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2009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황 경 숙

문학박사 학위논문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곽진석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황 경 숙

황경숙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26일



주	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심	상	교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위	원	문학박사	최	호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목 차

I. 서론	1
II. 연구사	5
III. 동화와 자아	20
IV.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	34
1.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 :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 ...	34
2.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 :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	56
3.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 : <오세암>, <강아지 똥>	70
V.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방어기제	85
1.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 :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	86
2.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 :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	109
3.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 : <오세암>, <강아지 똥>	135
VI. 한국 현대동화의 심리적 특성	160
1. 자아와 문제해결	160
2. 자아와 방어기제	166
3. 자아와 퍼스낼리티	175
4. 자아와 정신 에너지	181
VII. 결론	185
* 참고문헌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황경숙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요약

이 논문은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규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의 고찰을 통하여 자아의 심리적 특성을 조명하는 일이 된다.

연구를 위한 연구사 검토의 결과, 한국 현대동화에서 동화의 주인공의 자아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한국 현대동화에 자아가 제 모습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동화에서 자아가 제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는 일은 정신 에너지의 사용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일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 현대동화는 심리학적 연구대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동화의 주제의 이해에 기여하고, 동화를 읽는 많은 아동들의 정신 에너지의 사용에 관하여 이해하며, 삶의 다양한 국면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자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현대동화의 자아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동화와 자아에 관하여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동화의 자아는 성장의 일정지점에 위치하며, 갈망하는 팬터지의 심리세계가 있고, 사건에 대한 대처법이 드러난다. 또한 동화는 자아의 욕망이 내재해 있다. 그리고 동화의 자아와 정신 에너지는 자아의 성숙도를 드러내게 된다. 동화의 주인공은 주로 미성숙한 인물이며, 이러한 동화의 주인공은 자아 보호를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한국 현대동화에는 주인공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 자아의 양상이 달라짐을 살피볼 수 있다.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으로 나누어 살피볼 수 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은 현대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살피볼 수 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바위나리는 나르시시즘의 인물로, 아기별은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약한 자아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나는 무의식의 영역인 꿈을 중심으로 의식의 세계에서 소망을 충족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망 충족은 무의식의 정신 에너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아의 양상을 보여준다. 충동과 억제가 요동치는 자아의 양상에 관한 현대동화로는 <아프리카 새깅디>, <고물 자전거>를 살피볼 수 있다. <아프리카 새깅디>에서 나는 장애가 있는 상준이를 향하여 공격성을 드러낸다. 그러한 과정에서 초자아의 양심의 경종을 느끼며 정신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나는 상준이를 통하여 성숙을 지향하는 자아의 양상을 드러낸다. <고물 자전거>의 주인공 영신이는 자기에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대한 공격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야기 결말에서 아버지에게 대한 자신의 충동적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아의 양상을 보여준다.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에 관한 현대동화로 <오세암>, <강아지 똥>을 살피볼 수 있다. <오세암>은 5세인 길손이가 성장과정의 불안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지만 자아의 유효한 에너지 사용으로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강아지 똥>의 강아지 똥은 세상에서 소외되어 존재불안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내면의 불안과 갈등을 조절하는 자아 에너지를 유효하게 사용하여 민들레꽃을 피우는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주인공의 자아의 양상은 방어기제의 작동에서 비롯되고 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은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의 작동을 살피볼 수 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아기별은 미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아기별의 심리에 작동되는 방어기제를 살펴보면 아기별은 아직은 자아의 정신 에너지가 미약한 자아의 각성 유형의 동화이다. <꿈을 찍는 사진관>의 주인공인 나는 무의식의 꿈을 통하여 전치, 압축, 상징화의 기제가 작동되며 추억에 젖지만 깨어나 보니 꿈이라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자아의 각성 유형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새깅디>, <고물 자전거>

거>에서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의 작동을 살펴볼 수 있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주인공은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본능의 공격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결말에서 성숙한 방어기제를 지향하는 자아의 탐색 유형의 동화이다. <고물 자전거>에서 영신이는 아버지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며 미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하지만 결말에서 아버지의 애정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성숙을 암시하는 자아의 탐색 유형을 드러낸다. <오세암>, <강아지 똥>에서는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의 작동을 살펴볼 수 있다. <오세암>에서 길손이의 심리에는 미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자아의 갈등 양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길손이는 성숙한 방어기제가 다양하게 작동되며 승화의 경지에 이르는 자아의 실현 유형의 동화이다. <강아지 똥>에서 강아지 똥은 자기애적 방어기제로 존재 가치에 대해 갈등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이후 미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자아를 억제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성숙한 방어기제로 민들레꽃을 피우게 하는 자아의 실현 유형을 보여준다.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아의 심리적 특성을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자아의 문제해결을 보여준다. 둘째, 주인공의 자아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셋째,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는 인간의 성숙과 퍼스낼리티에 영향을 끼친다. 넷째, 한국 현대동화는 자아의 정신 에너지 사용에 따라 각성 유형, 탐색 유형, 실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자아의 심리적 특성을 조명함으로써 동화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현대동화, 자아, 욕망, 방어기제, 퍼스낼리티

I. 서론

현대동화라는 용어는 전래동화와 시대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로 개별 작가가 창작의도를 갖고 창작한 동화를 말한다. 전형적 인물이 주로 등장하는 전래동화에 비해 현대동화에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된다. 동화 속 주인공들의 개성에 관한 논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갖는 심리적 경향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현대동화에는 대개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게 되며, 사건 해결의 결과는 주인공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의 심리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 에너지의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 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정신 구조 속에 정신 에너지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역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¹⁾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가 이드에 머물고 있다면 주인공의 행동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일을 위한 행동을 드러내게 된다.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가 자아에 집중되고 있다면 주인공의 행동은 현실을 추구하게 된다.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가 초자아에 역점을 둔다면 도덕적이며 이상을 위한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 주인공의 자아가 정신 에너지의 세 영역을 유효하게 다스릴 수 있을 때 자기가 정한 최상의 목표지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의 사용은 자아의 성숙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²⁾ 자아는 이드의 본능 에너지를 다스리지 못하여 욕망 충족에 기울어지는 양상, 정신 에너지의 사용이 목표도달을 향해 나아가는 양상, 자신의 목표지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동화에서 주인공의 자아의 양상은 동화의 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으로 드러난다. 이때 주인공의 심리에는

1) 켈빈 S. 홀,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p.90.

2) 박경화, 「한국인의 자아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p.27. 참조

‘연령이 높아지면 비교적 성숙한 방어들을 쓰고, 연령이 낮을수록 미성숙하고 신경증적 방어를 더 많이 쓴다.’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방어기제 작동의 결과는 이후의 주인공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동화의 주인공이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의 작동에 대하여 고찰하는 일은 인간의 정신 에너지에 대하여 탐구하는 일이다. 동화에서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는 사건에 대처하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인간의 정신 에너지에 대한 조명을 통하여 동화의 심층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일은 주제에 대한 이해에 조력하는 길이기도 하다. 나아가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물을 통하여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 에너지의 사용과 더불어 이야기의 주제를 이해하거나 삶의 다양한 국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사문학의 탐구는 인물 탐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 고에서는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따르고자 한다.

첫째,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에 관하여 고찰한 다음, 연구대상 작품 6편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한국 현대동화의 자아 연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다.

둘째, 동화와 자아에 관하여 규명한다.

셋째, 한국 현대동화 6편을 중심으로 작품 전반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을 고찰한다.

넷째, 한국 현대동화 6편을 중심으로 자아가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방어기제를 살펴본다.

다섯째,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고찰의 결과를 중심으로 자아의 심리적 특성을 살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화의 주된 요소인 자아와 관련한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동화에서 사건에 대처하려는 인

물의 내면 심리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동화의 모든 인물들은 나름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아의 발달 수준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처럼 동화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대체로 자아의 성숙도가 낮은 인물일수록 자신의 욕망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드러나게 된다. 또한 자아가 발달할수록 생물학적인 개체로서의 자아가 갖는 욕망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지니게 된다.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릴 수 있을 때는 지각 집중, 학습, 판단, 분별, 이성, 상상 등의 심리작용이 성공적으로 잘 일어나게 된다.³⁾ 그래서 자아를 위한 더욱 합리적인 사건 해결 방법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신적인 과정은 정신분석학의 연구 성과를 적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 성과를 더욱 증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바위나리와 아기별> 4), <꿈을 찍는 사진관> 5), <아프리카 새깁디> 6), <고물 자전거> 7), <오세암> 8), <강아지 똥> 9) 등 총 6편이다. 이 여섯 편의 주인공의 특성을 개략

3) 켈빈 S. 홀, 백상창 역, 앞의 책, p.83.

4) 마해송, <바위나리와 아기별>, 『해송동화집』, 개벽사, 1934.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개성에서 발행된 『새별』(1923)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송동화집』(1934)의 <바위나리와 아기별>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5)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꿈을 찍는 사진관』, 홍익사, 1954.

<꿈을 찍는 사진관>은 1954년 『소년세계』 3월호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강소천의 제4동화집으로 간행된 『꿈을 찍는 사진관』(1954)의 <꿈을 찍는 사진관>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6) 서하원, <아프리카 새깁디>, 『아프리카 새깁디』, 대산, 1999.

7) 유호진, <고물 자전거>, 『고물 자전거』, 채우리, 2002.

이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물 자전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8) 정채봉, <오세암>, 『오세암』, 창작과비평사, 1984.

이 연구에서는 1988년 새로운 한글 맞춤법이 나온 이후에 출판된 『오세암』(1990)의 <오세암>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9) 권정생, <강아지 똥>, 『먹구렁이 기차』, 우리교육, 1999.

<강아지 똥>은 1969년 월간 기독교교육의 제1회 아동문학상수상작이다. <강아지 똥>은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개정본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정본이 수록되었다. 권정생은 『먹구렁이 기차』의 ‘이 책을 읽는 어린이에게’라는 머리말에서 ‘<강아지 똥>은 이 책에 실린 것을 정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먹구렁이 기차』(1999)의 <강아지 똥>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아기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꿈을 찍는 사진관〉의 나는 타향에서 고향과 고향의 순이를 그리워하는 인물이다. 〈아프리카 새깁디〉의 나는 장애를 가진 상준이에게 공격과 관심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고물 자전거〉의 영신이는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나는 인물이다. 〈오세암〉의 길손이는 5세이지만 현실에 잘 대처하며 영리한 인물이다. 〈강아지 똥〉의 강아지 똥은 부단히 자신의 존재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에 빛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 현대동화의 주인공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의 나, 〈아프리카 새깁디〉의 나, 〈고물 자전거〉의 영신이, 〈오세암〉의 길손이, 〈강아지 똥〉의 강아지 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연구사

한국 현대동화를 아우르는 아동문학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암울한 시기인 1900년경에 태동하였다. 당시 시대적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성세대의 희망은 아동들에 대한 계도로 이어져 아동문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은 시대 상황에 의한 계도에서부터 비롯되었기에 외국의 아동문학 발생과는 다소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당시 한국 현대동화의 기틀을 마련한 방정환¹⁰⁾은 동화를 ‘童은 兒童이란 童이요, 話는 說話의 話인즉 結局 童話는 兒童說話’¹¹⁾라고 정의하고

10) 한국 현대동화와 관련한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태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육당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1908)으로 보는 견해와, 방정환이 창간한 「어린이」(1923)로 보는 견해로 크게 이분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먼저 육당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1908)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p.43-58.

‘『少年』誌는 後續誌인 『붉은 저고리』·『아이들 보이』·『새별』등 본격적 아동잡지의 직접적 産母임은 물론 순수한 兒童文學運動의 搖籃이기도 했던 것이다.’라고 논한다. 이는 곧 최남선과 「少年」의 업적을 아동문학의 출발로 인정하는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방정환이 창간한 「어린이」(1923)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소년한길, 2002, p.52.

‘방정환은 우리 아동문학의 어머니임에는 틀림없다. 방정환은 누구보다도 먼저 아동문학의 발을 갈고 씨를 뿌려 수많은 작가를 길러 냈던 것이다.’라고 논한다. 이는 곧 방정환과 「어린이」의 업적을 아동문학의 출발로 인정하는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원수, 『아동 문학 입문』, 소년한길, 1984, p.68.

육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에 대하여 ‘동시가 자리 잡아야 할 아동의 마음, 아동의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이런 신체시는 사실 엄정한 뜻에서 소년시라고 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소년의 생활이 없고 민족의 자각이나 추상적인 정열이 있을 뿐이었다. 1923년 아동 문제 연구 단체인 색동회가 방정환 등의 발기로 발족되었고 아동잡지 「어린이」가 그들의 힘으로 창간되면서부터 아동의 인격 존중과 아동을 위한 동시 운동이 일어났다.’고 논한다. 이는 아동문학의 태동이 「소년」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p.146.

‘여러 정황으로 보아 아동문학의 진정한 출발은 어린이 해방의 독자적인 표어를 내건 방정환에서 찾고, 최남선의 활동은 그 전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싶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상욱,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비평사, 2002, p.132.

방정환을 ‘어린이 문학의 기원’¹⁾이라고 논한다. 이러한 논의들과 더불어 육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장르적으로 동화가 아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동화의 형성을 방정환에게서 찾고자 한다.

있다. 방정환의 정의에 따르면 동화는 兒童說話이다. 아동이 읽거나 아동에게 들려주는 아동을 위한 이야기가 동화라는 관점이다. 방정환은 아동들을 위한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어린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으며, ‘색동회’를 만들었다. 아동들을 위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방정환의 동화는 ‘영웅주의’, ‘눈물주의’, ‘동심천사주의’¹¹⁾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근거는 작품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방정환의 작품 <만년 샤스>에서는 주인공인 창남이의 영웅주의를, <참된 동정>에서는 거지 아이와 소녀의 동심천사주의를, <숨은 명예>에서는 동일이의 눈물주의를 엿볼 수 있다. 방정환의 이러한 작품 경향은 아동들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아동을 교화하려는 열정이 앞서는 운동적 경향이 앞선 까닭이다.

방정환의 동화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은 근본 원인은 아동의 ‘자아’에 대한 오해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은 성인이 내려다보는 ‘순수하고 천사 같은 이미지화된 대상’이 아니다. 그들 나름의 욕망과 불만과 고민이 내재된 역동적인 생명체다. 아동들은 때로 원하는 바를 모두 얻을 수 없다는 엄정한 현실 앞에서 위기감과 좌절감, 불안을 느끼게 되며, 그 과정에서 불만이 유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대체로 체계적으로 자신의 소망을 충족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막

11) 방정환, 「동화 작법-동화짓는 이에게-」, 『동아일보』, 1925. 1. 1

12) 방정환의 동화에 대한 평가의 예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김상욱, 앞의 책, 2002, p.132.

‘낭만성은 방정환에게서 엿볼 수 있듯, 희망을 향한 소박하고 간절한 바람과는 무관하게 자칫 감상주의나 어설픈 동심천사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계몽성 또한 경직될 경우 교육적인 설교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원종찬, 앞의 책, p.96.

‘방정환 자신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보이는, 그래서 실제로 그의 표비명으로 적혀 있는 ‘동심여선(童心如仙)’이라는 말에 대해 그동안 민족문학 계열의 아동문학인들은 날카롭게 맞서왔다. 알다시피 ‘동심여선’이라는 말을 문학에 그대로 적용하면 한 개 관념으로서 ‘동심천사주의’가 된다. 지금까지도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동화를 포함한 제도권 아동문학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동심천사주의라 할 수 있으니, 삶의 아동문학을 지향하는 이들은 이 그릇된 관념과 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

이재복, 앞의 책, p.31.

‘방정환을 중심으로 했던 이른바 동심천사주의 문학에 대해 카프동화작가들은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다.’

무가내로 가지려고 억지를 부리다가 혼나기도 하며, 때론 울음으로써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신체적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지라도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심리적 지원까지 충족하게 지원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아동들의 심리와 관련하여 볼 때 방정환이 작품에서 구현하는 아동관에서는 팽팽한 갈등이나 긴장이 흐르는 역동적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동화문학의 형성을 주도한 방정환은 고통 받는 현실 속의 아동의 삶에서부터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방정환은 아동들의 현실적 고통을 구원하고 해방에 이르도록 안내하려는 의욕이 앞서 동화문학을 계도문학으로 이끌게 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방정환의 사후 한국 동화문학은 낭만적 관념론에서 카프 계열 작가들이 주도하는 리얼리즘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당시 리얼리즘 작가들은 자아를 채 깨닫지도 못한 아동들로 하여금 일제 강점기의 조국의 해방과 민족을 위해 활약하게 한다. 이와 같은 카프계열의 작가들이 지닌 작품의 경향은 ‘동심천사주의’에 대한 반기이며 아동들로 하여금 지상에서 현실적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역동적인 인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를테면 아동들에 대하여 그들 나름의 판단력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자아’를 지닌 인물로 보고자 했던 것이다. 카프 계열 작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아동들에게 역동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카프 계열의 작가들이 의도했던 ‘아동들의 현실적 자아 인식’은 성장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아이 어른’¹³⁾을 양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카프 계열 작가들이 주도한 리얼리즘적 경향은 계급적 갈등과 일제의 탄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야 한다는 현실론에 경도됨으로

13) 이재복, 위의 책, pp.150-151.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이재복은 위의 책에서 동심천사주의의 문학과 카프동화를 송완순의 「아동문학시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송완순은 1946년 『신세대』 제2호에 발표한 「아동문학시론」에서 방정환의 동심천사주의의 문학과 카프동화를 비교하고 있다. ‘천사적 아동을 인간적 아동으로 환원시킨 데까지는 좋았으나 거기서 다시 일보를 내디디어 청년적 아동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방씨 등의 아동이 실체 잃은 유령이었다면 30년대의 계급적 아동은 수면 난 총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구실을 남겨 놓았다.’고 한다.’

써 또 다른 관념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이후 한국 현대동화는 8.15 광복과 6.25를 겪으며 이태준, 현덕 등의 카프 계열의 리얼리즘 동화 작가들이 월북하게 되었다. 전후 한국의 카프 계열의 작가들은 세력을 잃게 되고 대신 상업주의와 결탁한 유사 팬터지 동화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¹⁴⁾ 리얼리즘 동화의 한계와 리얼리즘 작가들의 월북, 전후의 절대 빈곤이라는 사회적 현실은 동화의 등장인물이 자아에 대해 갖게 되는 고통스러운 인식과정을 차단하고 왜곡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굴곡 속에서 동화는 작가의 호구지책을 위한 오락과 흥미위주의 동화로 변질되기도 했다. 유사 팬터지 동화와 지나친 리얼리즘 동화에 대한 반발은 ‘팬터지 동화’에 대한 우월적 경향을 형성하게 되었다. 팬터지 동화 우월주의는 등장인물의 주인공인 ‘자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팬터지’라는 창작 기법에 초점을 둔 경향이다. 이후 1955년 국가수준 교육 과정의 시행과 함께 제도교육을 위하여 일부 동화가 교과서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출판물이 흔하지 않던 당시에 교과서에 게재된 동화는 절대적인 위력으로 자리 잡으며 동화의 보급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의 동화는 인물이 진정성을 갖게 되는 일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동화가 교육이 의도하는 바에 부합하기 위해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의 흐름은 편집되거나 차단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현대동화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서 동화의 주인공의 자아가 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여러 역경이 있었다. 형성 초기의 방정환의 동심천사주의에도, 카프 계열의 리얼리즘 경향에도, 전후 혼란으로 인한 빈곤의 시기에도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아가 드러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출판문화의 다양화와 다양한 개성을 지닌 수용자 중심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화 주인공의 자아’에 대한 조명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동화의 주인공의 자아가 제 모습을 드

14) 유창근, 『현대아동문학의 이해』, 동문사, 1997, p.103.

유창근은 위의 책에서 전후의 한국 현대아동문학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6.25 이후부터 통속적인 소년소설, 어용적 교훈소설, 악성만화 등이 범람하여 50~60년대의 아동문학계를 오염시켰다.’

러내기에 어려웠던 이유는 동화를 어른들이 가진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동화의 주인공은 대체로 자아의 발달과정에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발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뇌나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결여된 이미지화된 주인공으로 그려내는 동심천사주의적 경향이나, 어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민족주의 등의 이념을 주입하는 리얼리즘적 경향이나, 상업성을 목적으로 오락적 팬타지를 구축하려는 상업적 경향이나, 교육적 목적이 지나쳐서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의 흐름이 편집되거나 차단되는 경향 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현대동화는 형성과 전개과정에 있어 사회 운동적 성격이 교육성으로 연계되었다.¹⁵⁾ 동화를 교육적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이러한 태도는 동화 주인공의 자아를 생명력 있는 복합적인 자아가 아닌 수동적이고 평면적인 자아로 바꾸어놓게 되었다. 이야기에 드러나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이 자아의 정신 에너지와 관련한 유기적인 의미망을 갖지 못한다면 동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상을 탐색하는 일에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자아에 대한 조명은 동화의 주제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현대동화의 연구대상 작품 관련 연구 및 자아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현대동화 연구에 대한 조명의 순서는 먼저 연구대상 작품 6편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 현대동화의 자아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 작품 6편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현¹⁶⁾의 연구에서는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대립과 갈등 구조로 파악하여 하늘(별나라)/땅(바닷가), 하늘나라의 화려함/바닷가의 쓸쓸함,

15) 원종찬, 앞의 책, p.91.

원종찬은 위의 책에서 한국 아동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실성을 ‘교육성과 사회성’으로 논하고 있다.

16) 김정현, 「마해송 동화에 나타난 저항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낮/밤, 권력자의 횡포/힘없는 세력의 추방과 죽음, 임금님/바위나리와 아기별, 가해자/피해자로 분류하고 있다. 김정현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임금님과 바위나리와 아기별 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킴으로써 당시의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세력의 횡포를 풍자하여 고발하고 있다’고 밝힌다. 김정현은 마해송의 자전적 소설 「아름다운 새벽」을 인용하여 작가의 의식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 표면적인 ‘대립과 갈등 구조’는 잘 파악하고 있으나 인물의 대립과 갈등이 유발되는 자아의 심리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고 있다. 신지영¹⁷⁾의 연구에서는 마해송 동화의 변모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조명하며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전기의 대표작으로 본다. 전기의 특징으로 ‘전통적 소재의 동화’를 들고 있으며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견우와 직녀>에서 소재를 가져왔다고 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신지영은 등장인물에 대한 구체적 조명은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바위나리와 아기별>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¹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연구들의 경향으로는 교육적 목적, 동화의 팬타지(환상성) 및 창작 기법, 현실인식(반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17) 신지영, 「마해송의 동화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김재규, 「마해송 동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김은숙, 「창작동화에 있어서 환상의 미적기능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고일곤, 「마해송 동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이영미, 「마해송 동화 연구 : 공간 분석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장소영, 「마해송 동화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상재, 「한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신수진, 「마해송 동화의 현실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한 연, 「마해송 동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명희, 「한국동화의 환상성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조규성, 「마해송 동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정숙, 「마해송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 -바위나리 아기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강기희, 「한·일 동화의 교육적 기능과 의의에 관한 일고-궁택현치와 마해송 작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성자, 「한국 현대 판타지동화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우정임, 「마해송 동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강남임, 「마해송 동화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연구로는 김재규, 고일곤, 장소영, 한연, 강기희, 이정숙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동화의 팬타지(환상성) 및 창작 기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김은숙, 박상재, 김명희, 이성자, 이영미, 강남임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현실인식(반영) 연구는 신수진, 조규성, 우정임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위나리와 아기별>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주인공의 심리 에너지의 변화에 관한 탐색을 통하여 자아를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 관한 연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김자연¹⁹⁾은 강소천의 동화를 ‘꿈 형식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상’으로 규정하여 작품의 입몽(入夢)과 꿈에 관하여 논한다. 이 연구에서 ‘소원충족에 의한 불균형 회복의 꿈’으로 <꿈을 찍는 사진관>을 조명하고 있다. ‘현실-꿈-현실로 돌아오는 순환적 구조 속에 화자의 무의식에 억눌린 무의식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고 논한다. 김자연의 연구는 화자의 무의식에 대한 조명이 아니라 작가의 무의식에 대한 조명을 위해 화자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에 관한 조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무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작품 외적인 것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전반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박상재²⁰⁾는 강소천의 동화를 ‘꿈의 상징성과 그리움의 미학’으로 규정하여 작품에 나타난 우의적 환상과 복합적 환상과 매직적 환상과 몽환적 환상에 관하여 논한다. 이 연구에서 ‘매직적 환상’으로 <꿈을 찍는 사진관>을 조명하고 있다. 박상재는 <꿈을 찍는 사진관>이 ‘꿈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기는 하지만 몽환적 판타지는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그 이유로 고향과 순이에 대한 ‘작가의 간절한 꿈을 사진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시한다. 동화를 이해하고자 꿈이 갖는 상징성에 관하여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를 탐색함으로써 작가의 의식을 이해하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꿈을 찍는 사진관>의 작가론적 연구와 관련하여 동화의 독자들은 동화를 읽는 일에 중점적이다. 동화의

19) 김자연, 『한국 동화문학 연구』, 서문당, 2000, pp.145-162.

20) 박상재, 『한국 동화문학의 탐색과 조명』, 집문당, 2002, pp.40-43.

작가가 지닌 그리움이나 향수 등의 심리 에너지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대신 동화의 주인공인 자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동화를 읽는다. 따라서 동화의 주인공인 자아를 조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꿈을 찍는 사진관>에 관하여 꿈을 소재로 한 연구, 교육과 관련한 연구 등²¹⁾이 있다. 남미영, 함윤미, 홍의정, 김윤미 등의 연구는 꿈을 소재로 한 것에 관한 연구이다. 공선희, 이선민 등의 연구는 교육과 관련한 것들이다.

권정생의 <강아지 똥>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영현²²⁾은 권정생의 동화를 인물의 특성, 배경의 특성, 구성의 특성, 표현 방식 및 문장의 특성, 주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조명으로 강아지 똥의 상대역으로 흙덩이, 민들레라고 논한다. 그런데 또 다른 등장인물인 참새와 어미닭에 대한 조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등장인물에 대한 부분적 조명은 동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일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인공인 강아지 똥의 내면에 대한 조명 없이 강아지 똥의 주제를 ‘생명의 존중’, ‘자연 친화’로 규정한다. 이처럼 강아지 똥의 내면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제가 왜 ‘생명의 존중’인지 또는 왜 ‘자연 친화’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계삼²³⁾은 권정생 문학의 종교적 성격과 관련지어 <강아지 똥>을 종교적 세계관을 담은 작품으로 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강아지 똥>은 ‘권정생의 종교적 세계관이 문학적 형상으로 창조된 대표작’이라고 논한다. 강아지 똥을 통해서 조명한 권정생의 종교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낮은 것에 대한 관심, 운명과 자각과 적극적인 순응, 자기희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명은 작품의 인물인 강아지 똥을 중심으로 조명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작

21) 남미영, 「강소천 동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0.

공선희, 「강소천 동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함윤미, 「강소천 동화의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선민, 「강소천 동화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홍의정, 「강소천 동화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수영, 「강소천 동화의 특성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2) 백영현, 「권정생 동화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3) 이계삼, 「권정생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품을 조명하는 방식이다. 작가의 세계관이 작품 조명의 관점으로 전이되어 제시됨으로써 인물에 대한 내면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강아지 똥>에 관한 연구들²⁴⁾이 있다. 권정생 동화의 연구 경향은 오길주의 종교적 경향에 관한 연구, 백영현, 이계삼, 이옥금, 최희구, 황경숙, 성갑영, 김영연, 박미옥 등의 교육적 목적의 연구, 이오덕, 최지훈, 이재복, 노연경, 박수경 등의 현실반영(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화의 주인공인 자아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있지 않다.

<오세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선일²⁵⁾은 정채봉 동화를 ‘구원의식의 형상화 유형’으로 희생과 죽음의 형상화, 자아각성과 자아실현의 형상화, 생명주의적 화해의 형상화, 사랑의 소통과 나눔의 형상화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세암>은 ‘희생과 죽음의 형상화’로 분류하고, 길손이의 죽음을 ‘득도한 성자들의 죽음’으로 논한다. 연구자는 길손이의 죽음이 구원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이유는 길손이의 ‘한결같은 동심’ 때문이라고 논한다. 이 논의에서 연구자는 동화에 표현된 길손이의 모습에서 동심을 엿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한결같은 동심의 실체인 ‘길손이’에 대한 자아의 탐색과정은 드러나지 않는

-
- 24) 이오덕, 「학대받는 생명의 사랑」, 『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
 최지훈, 「비통한 역사의 서정적 증언」, 『한국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 1991.
 이재복,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이야기」, 『강아지똥』, 길벗어린이책, 1996.
 백영현, 「권정생 동화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오길주, 「권정생 동화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계삼, 「권정생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노연경,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연,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화교육의 연계성 연구-6·7학년 문학교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옥금, 「권정생 문학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희구, 「권정생 초기소년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황경숙, 「권정생 동화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성갑영, 「권정생 동화의 교육적 가치」,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조경아, 「권정생 동화의 페미니즘적 읽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수경,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미옥, 「권정생 동화의 리얼리즘 구현 양상과 문학교육적 의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5) 김선일, 『정채봉 동화의 구원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다. 이로 인하여 길손이가 어떻게 죽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노제운²⁶⁾은 작품의 모티브인 설화 <5세 동자의 悟道>를 포함하여 동화에 깔려있는 작가의 무의식에 대하여 자유연상법으로 <오세암>을 조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출과 은폐 혹은 발현몽과 잠재몽’으로 작가의 욕망을 살펴본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스님의 정체 혹은 눈/눈의 실체’를 살펴보고, ‘오세암을 悟歲암’으로 논하고 있다. 노제운은 <오세암>의 연구가 ‘내용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주제에만 접근했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작가의 무의식에 중점을 두어 논하고 있다. 노제운은 연구 과정에서 작가의 내면 세계 이해의 한 과정으로 주인공인 ‘길손아’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다. 노제운의 연구를 살펴볼 때 작가의 무의식 연구를 위한 작품의 이해가 아니라, 주인공에 대한 자아를 조명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 외에도 <오세암>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²⁷⁾이 있으며 연구 경향은 작가에 대한 연구, 삶 또는 종교적 관점의 연구, 동화의 창작기법 연구,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 등으로 살펴

26) 노제운, 「동화 속의 숨은그림 찾기」, 『어문논집』 38, 안암어문학회, 1998, pp.177-194.

27) 전형준, 「삶에 대한 정서적 이해」, 『또 하나의 세상』, 도서출판 청하, 1988.

최지훈, 「정채봉론」, 『아동문학평론』, 아동문학평론사, 1989, 여름호.

이동순,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책」, 『서평문화 제1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1.

이태동, 「흰구름과 삶의 순결, 그리고 낭만의 세계」, 『우리문학의 이상과 현실』, 문예출판사, 1993.

장영우, 「순결과 동경의 세계」, 『소설의 운명, 소설의 미래』, 새미, 1999.

김용희, 『동심의 숲에서 길 찾기』, 청동거울, 1999.

김용희, 「친진한 눈으로 느낌표 찾기」, 『하늘새 이야기』, 현대문학북스, 2001.

김현숙, 『정채봉론-동심을 의역하면』, 아동문학평론, 2001, 제98호.

박상재, 「지순한 동심이 피워낸 그리움의 꽃」, 『한국 동화문학의 탐색과 조명』, 집문당, 2002.

김정신, 「정채봉 동화 연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오정임, 「정채봉 단편동화 연구」 동아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미희, 「정채봉 동화의 특질 연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유혜정, 「정채봉 동화의 서사적 특성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송주경, 「정채봉 동화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남숙, 「정채봉 동화의 크로노토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주연, 「정채봉 동화의 문체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볼 수 있다. 최지훈, 김용희, 김현숙, 박상재 등은 작가에 대한 연구로, 전형준, 이동순, 이태동, 장영우 등은 삶 또는 종교적 관점의 연구로, 김정신, 오정임, 이미희, 유혜정, 송주경, 박남숙, 박주연 등은 동화의 창작 기법에 관한 연구들이다.

<고물 자전거>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물 자전거>에 대한 연구로는 윤미원²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영신이를 ‘부성애를 확인함으로써 화해하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신이를 ‘화해’의 인물로 규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른 인물들에게 감화를 받아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라고 논한다. 영신이가 아버지로부터 감화를 받았음은 영신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화해’란 영신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고물 자전거>에서 아버지는 영신이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야기의 결말에서도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화해’의 용어 규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영신이의 입장에서만 불만이 해소되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신이의 자아를 중심으로 한 심리의 변화를 조명한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양상 이해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영²⁹⁾의 연구에서 ‘역할 정하여 낭독하기’를 위한 동화로 <고물 자전거>를 선정하고 있다. <고물 자전거>의 등장인물을 영신이와 아버지로 나누어 낭독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주인공인 영신이의 인물상으로 ‘부성애를 확인함으로써 화해하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고물 자전거>에서 영신이가 부성애를 확인하는 내용은 이야기의 결말에 드러나 있다. 주인공인 영신이가 부성애를 확인하기까지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진다면 ‘문학반응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물 자전거>에서 주인공 영신이와 아버지가 화해를 한 과정은 이야기에 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화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28) 윤미원, 「교과서 창작동화에 나오는 인물 연구 3·4학년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9) 이주영, 「문학반응 활성화를 위한 역할 정하여 낭독하기 방법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연구자는 공교롭게도 윤미원의 연구에서 밝힌 ‘화해’하는 인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야기의 결말이 영신이의 심리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인 영신이의 자아에 관하여 어떻게 할지는 아동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일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동화의 인물에 대한 탐구나 ‘문학 반응 활성화’를 위하여 ‘자아’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연구대상 작품 6편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본 결과 동화에 대한 연구는 교육을 위한 연구나 작가의 이해를 위한 연구가 주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동화의 주인공에 대한 심도 있는 조명으로 동화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연구대상 작품 6편에 대한 개별 작품 연구사 검토의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화의 자아에 대한 연구가 연구대상 작품 6편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인지, 한국 현대동화 전반의 연구경향인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에 연구사 검토의 범위를 확장하여 한국 현대동화를 중심으로 한 동화의 자아와 관련한 연구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영미의 「韓國童話의 變身 모티브에 內在된 原型性 研究」³⁰⁾는 한국 동화에서 전래와 현대의 시대구분을 넘나들며 연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영미는 용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한국동화에 나타난 변신 모티브의 주제별 고찰과 원형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변신 모티브를 매개로 한국 전래동화와 현대동화의 관련성을 구명하고자 함은 전래동화와 현대동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구 풍토에서 볼 때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영미는 모티브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대동화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밝히고 있다. 현대동화의 새로운 경향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 자아실현에의 지향, 현실 개선의 의지 등을 들고 있다. 현실 개선의 의지에 관한 하위 항목으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분단 극복에의 열망을 들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현실적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

30) 이영미, 「韓國童話의 變身 모티브에 內在된 原型性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는 항목이다. 물론 자연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등의 이념이나 사상을 어린 아동들이라고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념주의나 사상주의의 동화는 자칫 ‘동화’의 형식을 차용한 어른들의 훈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미의 연구는 현실 개선의 의지와 관련한 아동들과 밀접한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였으나 아동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작품을 조명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드러난다. 이영미의 연구에서 지적할 수 있는 다른 한계는 인물들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아의 갈등 과정은 배제되고 그러한 과정을 초극한 초인 또는 달인의 경지에 이른 이타적 행위가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분류한 항목에서 ‘전래동화에서는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 획득과 신분 상승을 이루는 현실주의적 사고가 나타나고, 현대동화는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타적 사고를 실현한다’고 논한 점은 그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선행에 대한 보상은 단지 ‘재물 획득과 신분 상승을 이루는 현실주의적’ 성취만이 전부가 아니라 선행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인 개별적 자아를 안정되게 해 주는 효과도 존재한다.

오길주의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³¹⁾는 한국 동화의 현실 인식에 관하여 네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사회의 현실 구조에 대한 비판’, ‘민족주의 현실인식을 위한 선체험의 두 양상’, ‘삶 가운데 새겨지는 본성의 풍자’, ‘삶의 이상적 승화를 위한 현실회귀의 팬터지’의 네 유형이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동화가 사회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형의 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사회화, 이상화에 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기준은 동화의 인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는 또한 이 연구에서도 밝힌 동화의 독자가 아동이라는 점과도 거리가 있다. 물론 한국 현대동화가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회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은 사실이다.

31) 오길주,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그러나 동화의 인물이나 동화의 독자인 아동을 고려한다면 사회화 이전의 개인에 대한 조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상화 이전의 현실에 대한 조명과 아울러 현실 이전의 유아기에 대한 조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동화의 인물인 발달단계상의 개인에 대한 조명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성현주는 「韓國現代童話의 나르시시즘 樣相 研究」³²⁾는 현대동화 다섯 편을 중심으로 나르시시즘의 양상을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병적인 나르시시즘으로 분류하여 조명하고 있다. 나르시시즘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동화의 인물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조력하는 일은 연구의 성과로 들 수 있으나 동화의 주인공이 병적이거나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양상을 보이는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 등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현대동화의 자아 연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 현대동화에 있어 자아와 관련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³³⁾ 이처럼 현대동화가 심리학적 연구대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 사용이 잘 드러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현대동화는 형성과 전개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인공의 ‘자아’가 잘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화의 주인공은 역동성이 결여된 인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현대동화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동화의 자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한국 현대동화의 자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화의 주제에 대

32) 성현주, 「韓國現代童話의 나르시시즘 樣相 研究」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33) 한국 현대동화의 자아와 관련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 전래동화의 자아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연구물들이 있다.

하지현,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노제운, 「한국 전래동화의 심층의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한 심도 있는 탐색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주제 이해와 더불어 동화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글에서 표현되기 이전의 저변에 내재한 의미들을 이해함으로써 동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한국 현대동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대동화를 읽는 많은 ‘아동들의 정신 에너지의 사용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자아의 정신 에너지의 사용이 서툴러서 자아가 더욱 불안해지게 되거나, 자아가 안정을 찾거나, 더 높은 자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등의 다양한 경우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한국 현대동화에 대한 자아의 연구를 통해 ‘삶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삶은 부단한 자아의 훈련 과정이며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여러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공과 좌절의 다양한 경우가 드러나는 현대동화의 정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 현대동화를 중심으로 자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때 동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아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아에 대한 연구는 곧 삶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이러한 연구들은 동화는 물론 문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동화와 자아

동화의 연구는 문학성을 중심으로 한 순수문학적 연구보다 교육의 장에서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실용문학적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동화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가치나 자료의 측면에서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반면, ‘동화문학’이라는 순수문학적 차원의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동화 연구의 경향은 자칫 동화문학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교육적 자료로서의 동화에 대한 연구의 편중으로 인하여 동화는 미학성보다 교훈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학의 출발은 인간의 삶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나아가 문학의 한 장르인 동화도 교육학적 측면의 연구와 더불어 인문학적 측면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동화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들의 사건에 대한 대처방법에 따라 인물의 미래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화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동화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자아의 성숙과정과 방어기제에 관한 과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

동화에 나타난 인물의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화를 향유하게 될 아동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동화가 아동을 주 독자로 하는 문학의 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동화에는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속성이나 자질, 즉 특출한 재주, 탁월한 피, 뛰어난 힘, 매우 착한 심성, 빠르게 살려고 하는 정의감, 약한 것에 대한 마음, 다사로운 동정심 등³⁴⁾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화의 연구에서 주인공의 자아를 고찰하는 일은 ‘동화 문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동화에는 등장인물이 있다. 동화의 인물은 때로 동물이나 식물의 의인화된 인물일 수도 있고, 사물이 의인화되어 등장인물이 될 수도 있다. 동화에서 등장인물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간에 심리적인 성장의 일정 지점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왜냐 하면

34) 김열규, 『어머니, 동화는 이렇게 읽어주세요』, 춘추사, 1993, p.18.

각각의 등장인물은 이야기의 진행과정에서 자아의 발달 정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동화에서 심리적인 성장의 일정 지점에 위치한 등장인물들은 나름의 문제에 처해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문제의 해결은 내면에 내재된 심리적 불안, 긴장 등을 해소하는 길이며 나아가 삶의 가치를 찾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화는 우리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갈등의 정서를 표현하고 또 그것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며 가치와 목표를 찾게 해주는 삶의 의미체계이다. 괴테는 ‘내가 인생의 불변 법칙을 배우게 된 것은 시트라우스 베르크 대학의 학창 시절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던 동화 속에서였다.’³⁵⁾라고 한다. 동화의 임무가 삶의 의미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동화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무엇으로 정서를 표현하게 하고 불안 해소하도록 도와주고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을지, 가치 목표를 찾는 일에 어떻게 조력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조명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동화의 주인공과 관련하여 볼 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연구 성과는 인간의 심리적인 성장과정³⁶⁾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동화에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인공의 심리적인 성장의 시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은 동화를 읽는 독자에게로 전해질 수 있다. 동화의 독자들은 동화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며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동참하게 되기도 한다. 외계에 있는 사물에 대해 동일시를 한다는 것은 이들 사물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를 마음 속에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자아는 현실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드에서 자아를 향해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과정으로부터 퍼스낼리티의 발달이

35) 김경중, 『아동문학론』, 신아출판사, 1994, p.91, 재인용.

36) 조두영, 『프로이트와 한국 문학』, 일조각, 2004, pp.7-15.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발달하는 과정에 따라 구강기(출생~1.5세), 항문기(1.5~3세), 남근기(3~6세), 잠복기(7~12세), 성기기(13세 이후)로 분류하고 있다.

라는 중요한 정신 역학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³⁷⁾ 이 때 동화의 주인공이 독자의 정신적인 성장지점과 같거나 비슷한 단계일 경우에는 주인공과의 동일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처럼 동화의 주인공은 성장의 일정 지점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이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퍼스낼리티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화는 환상을 창작의 주된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동들이 동화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상이 단지 이야기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환상은 현실을 보는 눈으로는 보아낼 수 없는 또 다른 인간의 진실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³⁸⁾ 동화에서의 환상은 아동들의 신천지이다. 그곳은 현실에서 규제되고 억압받는 세계를 벗어난 곳이다. 놀이가 존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으며 마음껏 이상을 펼 수 있는 세계다. 무한한 상상이 가능한 세계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는 환상의 세계가 심리적 휴식처라고 할 수 있다.

동화에서 환상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창작 기법으로서 가장 흔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꿈이다. 환상의 세계 즉, 꿈 속의 세계나 상상의 세계는 아동의 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이다. 동심이 꿈의 세계라는 점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동화에서 아동의 꿈이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상 세계를 말한다. 현실 세계는 어차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 세계, 꿈의 세계가 필요하다.³⁹⁾ 동화가 환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은 결국 아동의 마음에 현실 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다. 현실 세계에서의 억압이나 욕구는 아동들의 심리에 누적된다.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외부적인 현실에서 비롯될지라도 상처를 받아서 치유가 필요한 곳은 마음이다. 아동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마음

37) 켈빈 S. 홀, 백상창 역, 앞의 책, pp.80-81.

38) 김열규, 앞의 책, p.23.

39) 최지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pp.24-25.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 유익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다. 이에 동화를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꿈에 관한 정신분석학의 연구를 살펴보는 일은 아동들의 꿈이 현실과 어떤 의미망을 맺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의 분류에 의하면 동화의 주독자는 주로 7세에서 12세에 이르는 잠복기의 아동에 해당된다. 정신분석 초창기에는 이 시기에 본능적 욕구가 씻은 듯이 숨어버린다는 뜻에서 잠복기라는 말을 썼는데, 근래에는 무조건 잠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상, 환상, 놀이, 장난으로 이들 욕구를 많이 발산하는 시기라고 해석하고 있다.⁴⁰⁾ 잠복기의 특성인 공상, 환상적 요소를 중심으로 동화의 요소인 환상과 만나게 됨으로써 아동들에게 동화는 매력적인 심리적 안식처가 될 수 있다.⁴¹⁾ 아동들은 공상과 환상의 세계에서 동화의 주인공을 통해서 많은 현실적 욕구들을 간접 경험하고 공감하고 동일시함으로써 대리만족하는 심리적 쾌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화에서 환상이 필요한 이유는 심리적으로 억압을 느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욕망 때문이다. 주어진 현실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곳, 과거 어머니의 따뜻한 품 속을 복원할 수 있는 곳, 현실에 대한 억압,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환상 공간이다. 자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수록, 환상에 대한 염원은 더욱 강렬할 수 있다.

동화에 인물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요건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들 수 있다. 동화의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따라 아동들의 흥미는 달라질 것이며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동화의 인물이 처해질 미래가 성공일지 실패일지 결정되기도 한다.

40) 조두영, 앞의 책, p.14.

41) 서정철, 『인문학과 소설 텍스트의 해석』, 민음사, 2002, p.45.

동화 읽기와 관련한 글읽기에 관하여 위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글읽기는 (비록 실제 ‘대화’는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꿈꾸거나 몽환에 빠지기(fantasmer), 또는 놀이하기 등과 같은 즐거움을 줄 수 있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유발하는 폐색 현상과는 반대로 자기 전이 속에서 유연성과 자유로움을 가져다준다.’

현대동화에서는 미성숙한 주인공이 성숙을 향한 초기 양상에 있거나,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있거나, 성숙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동화의 주인공은 사건에 대처하는 자아의 양상이 드러나게 되며 현실과 조율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됨으로써 자아실현의 성공과 좌절을 드러내게 된다. 이 때 미성숙한 동화의 독자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의 욕구충족 성패에 관한 간접경험을 하게 된다. 동화에서 주인공이 자아의 욕구가 충족된 자아실현에 이르게 될 때 동화의 독자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성숙을 향한 초기의 동화에 있어 자아의 욕구충족이 좌절이나 실패로 이어지게 될 때 동화의 독자는 심리적인 불안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아와 욕망의 관점에서 볼 때 욕망충족에 대한 심리적인 부족분이 내재하게 된다.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은 저마다 욕망하는 바가 다르므로 자신의 욕망 충족이 곧 타인의 욕망 충족과 같을 수 없다. 예컨대 어른의 욕망이 곧 아동들의 욕망일 수 없으며, 부모의 욕망이 곧 자식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아동들의 욕망이 자신들의 욕망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화에 대한 논의의 오해의 대부분도 욕망에 관한 오인에서 비롯된다. 부모나 동화작가 등의 기성세대가 주장하는 동화에 관한 논의가 성인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오해를 빚어낸다. 그러므로 동화에 대한 논의는 동화의 수요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동화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도 ‘아동의 자아와 욕망’이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생명보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유아기에는 그 긴장의 원천을 이해하거나 자각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된다. 자아는 성장과 더불어 자기 내부로부터 나름의 욕망이 발생하고 그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과 외부 질서는 한 개체의 욕망을 저지하거나 포기하기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 욕망은 개인 내부의 문제이며 현실과 외부 질

서는 개인에게 있어서 외적 현상이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단지 현실적으로 욕망 충족이 가능할 때를 위해 개인적 자아는 욕망을 지연하게 된다. 또한 초자아는 아버지의 질서와 사회의 이상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요동 속에서 자아는 욕망과 현실사이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동화에는 자아의 이와 같은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과 결과가 인물을 중심으로 드러나게 된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며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욕망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은 무의식의 영역이며 이곳에 팬터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팬터지는 욕망충족에 유효하다. 동화의 주된 창작기법인 팬터지는 아동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통제받지 않은 열린 세계이다. 이러한 팬터지의 세계는 프로이트가 논한 쾌락원칙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아동들이 쾌락원칙을 추구하는 까닭은 긴장과 불안과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원칙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다. 아동들의 현실은 어른들로부터 억압되고 속박된 세계이다. 나아가 인간 본연의 삶의 여정에서 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고독과 분리불안 등이 도사리는 냉엄한 세계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현실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성인들은 대체로 자아가 정립되어 자신의 내부나 사회 질서로부터 부딪치게 되는 저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성숙한 아동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한다. 게다가 아동들은 왜 현실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야 하는지, 사회 질서에 조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현실보다는 비현실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인 팬터지의 세계에 쉽게 젖어들게 된다. 하지만 아동들이 추구하는 팬터지의 세계는 수단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구하기 위한 목적의 세계다.

21세기 첨단과학은 환상을 꿈꾸는 자아의 욕망을 유감없이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첨단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아동들은 현실

과 환상의 와중에서 더욱 고립감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심리적 도피처이자 위안의 휴식처인 환상마저도 성인들의 욕망이 뒤섞여 여지없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용어에는 ‘마법사(wizard)’나 ‘마법지팡이(wand)’같은 용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마법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팬터지에는 언제나 인간 이외의 상상 속의 종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세계에서는 아름다운 엘프, 난장이 드워프, 험상궂은 오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⁴²⁾ 이러한 시대에 있어 환상은 이미 인간 심리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인간의 의식세계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더욱이 성인들은 이러한 환상에 음란성, 폭력성, 잔인성을 교묘히 둔갑시켜 아동들을 욕망의 이미지리의 세계, 게임의 세계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는 전래동화로 내려앉기 이전의 설화나 민담들이 지녔던 성인들의 욕망이 다시 첨단과학의 힘을 빌어 환원됨으로써 아동들을 위협하게 되었다. 현실을 조종하는 다양한 전략을 인지한 성인들은 이러한 환상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 그러나 미성숙한 아동들은 현실과 환상의 무너진 경계 속에서 첨단문명으로 덧칠된 환상으로 인해 더욱 심한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아동들이 팬터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이유는 회복, 도피, 위안에 있다.⁴³⁾ 아동들이 회복, 도피,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이 충격, 위협적 상처라는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을 위하여 상처받은 심리를 회복하고, 쫓기는 마음의 도피처가 되어주며, 현실적 긴장과 불안에 대한 위안을 줄 수 있는 팬터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명력 저변에서 요청하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팬터지의 세계가 구현된 동화가 필요한 것이다.

욕망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동화는 주인공이 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욕망 충족과 좌절에 관한 이야기⁴⁴⁾이기도 하다.

42) 삼성, 『함께하는 사회』, 2006, 5~6월호, p.29.

43) J.R.R. Tolkien은 「On Fairy Stories」에서 환상문학의 문학적 기능에 관하여 Fantasy(환상), Recovery(회복), Escape(도피), Consolation(위안)을 들고 있다.

44) 이지호,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 집문당, 2006, p.95.

위의 책에서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을 ‘욕망의 충족과 좌절’로 나누어 논한다. 이러

동화에서 무의식의 욕망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에 성공한 자아는 행복한 결말에 다다를 수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아의 긴장이나 불안이 가중되거나 또 다른 불안으로 바뀌며 욕망의 좌절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동화는 결국 인물들의 자아가 욕망을 위해 세상에 대처하는 방어기제에 따라 충족과 좌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동들은 새로운 대상 이미지들을 서서히 형성해 가는 성장과정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형성한 이미지들 중에 어떤 것이 유용하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구해야 할지는 잘 알지 못한다. 동화에는 이와 같이 주인공이 사건에 대한 대처방법에 따라 욕망 충족이 좌절되거나 충족되어가는 과정이거나 충족된 이들을 다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동화의 주인공이 사건에 대한 대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아발달의 일정지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화의 주인공은 주로 미성숙한 인물이며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성숙을 지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동화의 주인공이 성숙을 지향하는 과정은 주인공의 말과 행동의 저변에 내재된 정신 에너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 에너지의 흐름이 동화의 주인공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드는 신체 내부 과정에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이드는 자아나 초자아에 비해 조직성을 겸하고 있다. 이드의 에너지는 항상 유동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배설되기도 하고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외계와 접촉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경험에 의해 수정되는 일도 없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자아에 의해 억제되고 조절될 수 있다.⁴⁵⁾ 자아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 관계의 산물이지만 그 발달 방향을 보면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자연법칙에 따른 성장과정인 성숙을 향하고 있다. 자아의 이러한 잠재력에 대한 실현은 인간의 경험, 훈련, 교육 등에 의해 강화된다.⁴⁶⁾ 초자아는 현실보다는 이상세계를

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야기와 욕망에 관한 논의는 옛이야기뿐만 아니라 현대동화에도 적용되는 논의이다.

45) 켈빈 S. 홀, 백상창 역, 앞의 책, p.48.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 성취나 쾌락보다는 하나의 완전함을 추구한다. 따라서 초자아는 인간의 내적 도덕률이 된다. 초자아는 자아에서 발달되어 나오는 것인데 이는 부모가 보는 선(善), 덕(德), 또는 악(惡), 죄(罪) 등의 규정에 어린아이들이 동화되는 것, 즉 표준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뜻을 닮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⁴⁶⁾ 퍼스낼리티 구성과 관련하여 이드, 자아, 초자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는 이드에서 생성된 것이며 초자아는 자아에서 생성된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 신체나 정신과 마찬가지로 자아도 일련의 순차적 방식에 따라 발달한다.⁴⁸⁾ 인간의 삶은 이드, 자아, 초자아가 서로 불협하거나 화합하거나 하게 되며 상호작용하면서 변형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드, 자아, 초자아의 정신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성격은 어떤 특정한 유형을 드러내게 된다. 자아가 정신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될 때 이드나 초자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신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역으로 이드와 초자아가 정신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될 때 자아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이드의 충동적인 욕구에 정신 에너지를 집중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 충동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동화의 주인공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주인공의 정신 구조 속에 배분된 정신 에너지의 역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동화의 주인공의 정신 에너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아의 양상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세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양상이다. 인간은 자기가 처한 강제적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는 존재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해 속박된 것이기 때문에 틈새만 보이면 속박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현실의 속박을 벗어나 자신이 꿈꾸는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46) 위의 책, p.55.

47) 위의 책, p.56.

48) 샌디 호치키스, 이세진 역,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교양인, 2006, p.82.

욕망은 상상력과 기억재생능력과 인지 능력을 동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가상세계를 구현해 내기도 한다. 인간은 만족 불감증이라는 태초의 유전적 증세에 시달리기도 하고, 소유할수록 더 소유하고자 욕망이 배가하는 위력적인 증세에 스스로 전복되기도 한다. 욕망의 도가니 이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아를 앞세워 욕망과 충족을 쫓다가 결국 자아와 함께 파멸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간의 정신 에너지의 저장고인 이드는 욕망과 충동의 원동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원천의 저장고이다. 그러나 인간은 무의식의 이드의 욕망과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 자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지만 이드의 충동적인 힘을 자아가 다스릴 수 있을 때 심리작용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둘째, 자아가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양상이다. 인간의 공격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자기애로 인한 인간의 이기심과 가학성은 인간이 지닌 본능에서 기인한다. 유아기인 나르시시즘 단계에서는 인간의 정신 에너지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유아는 외부세계를 최초로 인지할 때 주어지는 자극에 대하여 평화가 파괴되는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 때 유아의 자아보존본능은 외부 세계의 자극에 대한 방어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성본능은 상실된 평화를 재생산하기 위한 대상을 찾기에 급급해진다. 어머니의 품 속에 대한 집착 본능은 절대지복의 요람을 고수하기 위한 방어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집착과 방어의 에로스는 근원적으로 사랑과 증오의 양가감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양가감정의 저변에는 자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로스의 공격성으로 드러나며 사랑과 증오의 양가감정을 띠게 된다. 그러한 경향이 지나치게 되면 대상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하며 그로 인하여 스스로를 처벌하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에로스는 본능 에너지이므로 직접적으로 충족될 때 최상의 충만감을 얻는다. 그런데 초자아는 직접적인 충족의 위협을 알리며 저지하려 든다. 초자아의 경중에 대하여

에로스는 현실적 고통을 줄이고 자아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에로스가 지닌 공격성을 억제하거나 줄이거나 우회시킨 산물의 결과가 문명이다. 에로스가 추구하는 충동의 에너지는 문명을 양산하게 되며, 우회를 유도하는 억제의 에너지는 문명을 고수하고자 한다. 문명인이 되려면 본능의 에너지인 에로스의 공격성을 줄이고 자아와 이상을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자아의 양상과 관련하여 사회화란 아버지의 사회, 문명인의 경지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문명이나 사회화는 개인에게 있어 현실인식의 고통을 필요로 한다. 동화에는 이처럼 개인이 사회화 또는 문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심리적 저항이 드러나기도 한다.

셋째, 자아의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동화에는 등장인물이 있으며 등장인물들 중에 특히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과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숙명에 처해 있다. 그런데 동화마다 해결해야 할 주어진 과제가 각기 다르며 문제해결법 또한 다르다. 그 까닭은 동화의 주인공들이 욕망하는 바와 자아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동화의 주인공들은 미성숙한 자아의 양상을 보이며 성숙을 지향해 가게 된다. 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관련하여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에 관한 동화와, 자아의 욕망으로 인한 충동과 현실의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의 양상에 관한 동화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동화들은 자아가 성숙을 지향하고 있지만 완전한 성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심리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경지는 자아의 에너지 사용이 성공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다. 자아의 양상이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으로 드러날 때 완전한 성숙에 이른 동화라고 본다. 또한 성숙의 과정이 드러나는 동화가 추구하는 궁극의 지향은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이다.

이와 같은 동화의 자아는 자아의 정신 에너지 사용에 따라 성숙의 정도를 드러내며 사건에 대처한다. 동화의 자아는 직면한 사건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 불쾌감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자아의 성숙도에 따라 위계⁴⁹⁾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자아의 성숙도는 동화의 주인공의 내면에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자아의 방어기제⁵⁰⁾는

49) 조지 E. 베일런트, 한성열 역, 『성공적 삶의 심리학』, 나남출판, 2005, pp.134-141. 참조.

위의 책에서 방어기제의 종류와 위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방어기제의 성숙도에 관하여 네 가지 일반적 수준 정신병적(psychotic), 미숙한(immature), 신경증적(neurotic), 성숙한(mature)로 분류한다.’ ‘제1수준에는 이른바 정신병적 방어로 불리는 망상적 투사, 정신병적 부정과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제들은 종종 5세 이전의 정상적인 아동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들은 성인의 꿈이나 공상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에는 제2수준(미숙한 방어인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 등)의 기제를 보여주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3수준은 신경증적 기제(억압, 반동형성 등)이며 이는 신경증 증상이 기저에 있더라도 어린 시절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정상적인 개인들에게 또한 보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4수준 또는 성숙한 기제는 이타주의, 유머, 억제, 승화를 포함한다. 이 기제들은 청소년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박경화, 앞의 논문, 1991, p.33. 참조

위의 논문에서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 특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연령 차이는 20개 척도 중 18개 척도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진 척도는 퇴행,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적 행동, 투사, 전치, 해리, 유머, 승화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진 척도는 예견, 합리화, 이타주의, 부정, 억제, 회피, 신체화, 통제 등이었다.’고 논한다. 이 연구는 연령과 관련하여 방어기제 성숙도의 위계를 드러내는 연구의 예다.

김정옥, 「자아방어와 심리적 갈등」, 숙명여자대학교 창학100주년기념 학생생활상당 소 학술발표회, 2006, p.47.

위의 연구에서 방어기제와 성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방어가 성숙할수록 부담스럽고 문제가 되는 자신의 사고나 감정들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방어가 미숙할수록 문제가 되는 사고나 감정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근후, 박영숙, 「전래의 속담에 나타난 과거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 『신경정신의학』 제29권 제3호, 1990, pp.723-725.

위의 연구에서는 성숙단계별 방어기제의 빈도를 3단계 분류방식에 의해 나누고 있다. 즉 자기애적 방어기제와 미숙한 방어기제를 미성숙한 방어기제로, 신경증적 방어기제를 중간단계의 방어기제로, 성숙한 방어기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3단계 분류는 연구자의 자아의 유형 분류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50) G. E. Vaillant, "A cross-validation empirical studies of defense",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Washington D.C.:American Psychiatry Press. pp.73-146, : 구본권, 「방어기제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교 논문집 Vol.25 No.1. 1994, 275-277. 재인용.

구본권은 Vaillant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어기제를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성숙한 방어기제(Mature Defense)

성숙한 방어기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흔히 쓴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건설적이고, 친절하고, 감정이입, 박애정신으로 타인에 대해 일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여러 위험들과 그로 인한 불쾌한 감정적 동요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아의 분투 방식이다. 자아의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아의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 방어기제는 자아의 위험과 갈등으로 인한 불쾌감의 원천을 외부에 왜곡시키거나 타인에게 떠넘겨 투사하거나 부정하는 등의 행위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방어기제의 작동이 자아의 심리 발달에 역기능이 되기도 한다. 인간이 지닌 정신 에너지의 양은 정해져 있다. 이 일정량의 정신 에너지를 위협에 처한 자아를 비호하기 위하여 무의식의 방어기제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게 될 때 자아의 기능인 집중, 기억, 판단, 합리적 사고, 학습, 상상 등에 쓰일 유효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인간이 위협이나 고립에 처하

2. 신경증적 방어기제(Neurotic Defense)

신경증적 방어기제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 흔히 볼 수 있다. 신경증적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자기의견을 발표하지 못하며, 자주 참지만 분노는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다.

3. 미숙한 방어기제(Immature Defense)

미숙한 방어는 고립된 사람이나 경험이 결핍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람들과 친교를 우려한다. 미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피하려 한다. 이들은 사회관습이나 책임을 모르거나 남에게 전가하며, 비난이나 적개심을 쉽게 품는다.

4. 정신병적 방어기제(Psychotic Defense)

현실감이 없고 건강한 미래나 희망보다는 꿈을 꾸거나 공상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있다. 사람을 두려워해 지나치게 맹종하거나 적개심을 품으며 경계한다. 방관자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위의 연구는 방어의 위계를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정신병리에서 정신건강의 차원으로 배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이후 방어를 하나의 자아의 기능이라고 보며 자아발달과 관련하여 연구되는 경향이다. 방어기제의 네 유형에 대한 세부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숙한 방어기제(Mature Defense)로 이타주의, 예견, 금욕주의, 유머, 억제, 승화를 들 수 있다. 신경증적 방어기제(Neurotic Defense)로는 조정, 전치, 해리, 외부화, 금지, 주지화, 격리, 합리화, 반동형성, 억압, 성화, 상징화 등을 들 수 있다. 미숙한 방어기제(Immature Defense)로는 행동화, 차단, 건강염려증, 내부화, 수동공격적 행동, 동일시, 회피, 퇴행, 자기에로의 전향, 분열성 환상, 신체화를 들 수 있다. 정신병적 방어기제(Psychotic Defense)는 병리현상보다 자아의 기능에 역점을 둔 자기애적 방어기제(Narcissistic Defense)로 대체되어 부정, 왜곡, 투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방어기제의 위계를 성숙한 방어기제(Mature Defense)의 자아의 실현, 신경증적 방어기제(Neurotic Defense)의 자아의 탐색, 미숙한 방어기제(Immature Defense), 자기애적 방어기제(Narcissistic Defense)의 자아의 각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게 되면 자아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대처하기보다는 무의식의 충동에 휘말리기 쉽다. 방어기제는 자아의 성장환경이나 유전자, 가족환경 등에 의한 인자들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자아보호본능이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개체의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의식의 포위망을 뚫고 무의식적으로 발현된다.

동화의 자아가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방어기제는 자아의 성숙도를 드러내며 자아를 각성하거나, 자아를 탐색하거나, 자아를 실현하는 퍼스낼리티의 유형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퍼스낼리티의 세 유형을 중심으로 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한국 현대 동화의 연구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

동화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주인공은 발달정도에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 동화의 주인공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탐구이며 나아가 인물의 자아 에너지 작동에 대한 탐구이다. 인간의 총체적 퍼스낼리티는 이드, 자아, 초자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사람은 마음의 이 세 영역이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영역 간에 조화와 균형이 불협하거나 깨어져서 어느 한 영역으로 에너지가 집중되기도 한다.⁵¹⁾ 그런데 동화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인물이다. 그래서 마음의 세 영역을 통합하는 자아의 기능이 미약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 보이게 된다. 하지만 자아의 발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신 에너지의 영역을 통합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며 그 과정에서 때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또한 정신 에너지의 통합력이 발달된 자아는 조화롭고 안정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자아의 양상이 한국 현대동화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

인간이 지닌 마음의 세 영역과 관련하여 동화의 주인공은 어릴수록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에 충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이드에서 원하는 바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얻어내는 일에 미숙하다. 이러한 시기의 동화의 인물은 정신 에너지의 사용이 아직은 충동적인 이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아가 합리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드로부터 정신 에너지를 배분받는 일

51) 켈빈 S. 홀, 백상창 역, 앞의 책, p.41.

에 서툰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 에너지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한국 현대동화에는 자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드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양상의 동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현대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자아의 정신 에너지의 사용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바위나리와 아기별>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아기별이 현실의 억압과 부재의 포위망을 뚫고 꿈꾸는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갈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아기별이 처한 현실의 억압과 부재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들추어내는 일이 아기별의 행위를 이해하는 일이고 서사에 내재된 의미를 조명하는 일이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은 별나라에서 임금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 의인화된 인물이다. 등장인물에서 별나라에 존재하는 인물이 임금님과 아기별만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부재 상황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게 된다.⁵²⁾ 아기별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가 곧 자신이었던 시기가 존재한다. 이 시기는 어머니의 모습이 곧 아기별 자신이었던 시기이다. 근원적 나르시시즘의 시기인 리비도와 에로스의 시기이다.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오직 자신의 모습만을 보는 오인의 유아기 시기가 근원적 나르시시즘⁵³⁾이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은 주관과 객관이 서서히 구분되

52) Marie-Louise von Franz, *An Introdu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pring Publications, New York, N.Y., 1970, pp.2-3.

53) 권택영, 『프로이트의 성과 권력』, 문예출판사, 1998, pp.7~8.

위의 책에서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어떻게 그 단순한 나르시스 신화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해주는가? 철학도 예술도 대상의 신비를 그려내지만 정신분석은 가장 선명하게 이것을 설명해준다. 나르시스의 비극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위에 비친 제 모습을 타인인 줄 알고 사랑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 신경증을 치료하고 예술작품을 분석하고 사회와 문명을 비판했다. 흔히 우리는 프로이트 사상의 근원을 오이디푸스신화에서 찾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근원적인 곳에 나르시시즘이 자리 잡고 있다. 나르시시즘이야말로 그의 리비도요, 에로스요, 어머니요, 쾌감원칙이고 무의식이다.”

이와 같은 조명은 아기별과 바위나리의 나르시시즘에 관한 조명의 기틀을 제공하며 자아망어기제에 작동되는 에너지의 원천에 대한 제시이기도 하다.

어지며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오이디푸스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도기에 처한 아기별은 아버지의 질서, 현실원칙을 인식하는 가운데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 속에서 행복했던 시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 그래서 아기별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충만감이 현실의 틈새를 비집고 변장하여 불쑥불쑥 출현하기도 한다. 에로스의 충만감을 동경하는 아기별은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타인으로 착각하여 파멸을 맞이하는 나르시스의 근원적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주인공인 아기별을 중심으로 바위나리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갈등이 드러난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이야기의 발단은 바위나리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바위나리는 희고 흰 모래 벌판과 푸르고 푸른 바닷물만이 한 끝에서 한 끝까지 펼쳐진 곳에서 홀로 피어난다. 외로움으로 가득한 바위나리는 친구를 찾으며 노래를 부른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분리불안은 생명에 대한 강렬한 본능의 한 유형이다. 바위나리는 홀로 피어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강렬한 위기의식에 직면한다. 고립감과 분리불안에 처한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열망으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느낀다.

바위나리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세상에 제일가는
어엽분꽃은
그어느나라에
무슨꽃일까

남쪽은바다까
감장돌압해
오색꽃피여잇는
바위나리지요⁵⁴⁾

54) 마해송, 앞의 책, p.68.

김용희, 앞의 논문, pp.108-109.

바위나리는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여쁜 꽃’이라고 노래를 한다. 이와 같이 이 노래에는 바위나리의 나르시시즘이 가사에 잘 드러나고 있다. 바위나리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의 발로 이면에는 아기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의 완전한 충족의 시기가 존재했다는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야기에서는 식물인 바위나리가 의인화되어 등장함으로써 싹이 트고 자라는 일을 조력하는 뚜렷한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칫 ‘풀 한 포기’가 마치 스스로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생명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상 세계의 조형적 형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식물이 자라는 자연현상과 우주순환의 진리를 살펴볼 때 ‘풀 한 포기’조차도 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력을 지닌 생물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어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물리적 화학적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 아울러 바위나리에게 지원되었던 서사 이전의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도 연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위나리라는 의인화를 풀어 인간으로 환원할 때, 그 외부환경 속에는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준 어머니가 존재한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는 이처럼 성장을 위한 조력자의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조력자가 바위나리의 성장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 이야기에서는 단지 바닷가에서 스스로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결과론적 상황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바닷가의 바위나리는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위의 논문에서는 제시된 인용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는 단지 바위나리가 꽃을 피운 제 흥에 겨워, 또는 외로움을 달랠 동무를 부르기 위한 노래였을 뿐이다. 이 동요의 삽입은 서사구조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위나리 스스로 부르는 동심의 표현으로, 인물의 티 없는 순진성의 세계에 기여한다.” 그런데 동화의 전개로 볼 때 이 노래가 그저 흥에 겨워, 로움을 달랠 동무를 부르기 위한 노래라고 보기 어렵다.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이 노래의 삽입은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노래에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바위나리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가장 아름답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주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바위나리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 나르시시즘은 주관과 객관이 일치한다고 믿었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완벽한 애정적 경험을 복원하려는 갈망이기에 그 속에는 근원적인 이기심이 내재해 있다. 바위나리의 나르시시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되찾고, 내 삶을 찾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치열하고 이기적인 삶의 본능에서 출발한다. 바위나리는 노래에서 오색꽃을 피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모습이라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르시소스가 자신의 모습을 대상으로 착각하여 물에 빠져 죽음의 세계, 타나토스의 세계에 이른 비운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차이를 드러낸다. 바위나리는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던 쾌락세계와 현실세계의 과도기에서 자신을 사랑해 줄 진정한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위나리의 심리를 통해서 바위나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인용된 부분은 바위나리는 자기를 사랑해 줄 대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니 누군가 그 대상으로 나타나 자기의 이름을 불러 주기를 바라는 노래다.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바위나리는 어여쁘게 단장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가도 아침이 되어서 해가 동해바다에 불끈소사오르면 ‘올타 오늘은 누구든지 꼭와주겠지!’ 하고 더 어엿브게 단장을하고 고훈목소리를 쏘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치만 해가 서해바다에 슬그먼히 저들어 갈때까지 아모도 와주는 사람이 업섯습니다.⁵⁵⁾

바위나리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를 기다려도 찾아오는 친구가 없다. 동화에서 다루는 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화의 시간과 관련한 자아의 에너지는 시간의 한계를 지닌다. 생명체의 생존여부는 물리

55) 마해송, 앞의 책, p.69.

적 시간의 어느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어부와 마신>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간이 지닌 에너지가 변질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항아리 속에 갇힌 마신의 이러한 결심은 어린 아이가 ‘분리 불안’을 느끼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마음에서 기다림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바위나리의 기다림은 두 번의 반복 후에 세 번째에 아기별이 나타난다. 즉 마음에서 아직은 기다림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산화될 수 있는 유효한 시기에 아기별이 등장한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분리 불안은 생명에 대한 강렬한 충동의 한 유형이다. 바위나리는 회고 흰 모래 벌판과 푸르고 푸른 바닷물만이 한 끝에서 한 끝까지 펼쳐진 곳에서 홀로 피어난다. 인류학 사례로 미루어 헤아리면 소녀들의 성년식(어른 되기)은 초조를 계기로 시행되기 마련⁵⁶⁾이라고 한다. 외로움으로 가득한 바위나리는 친구를 찾으며 노래를 부른다. 바위나리는 며칠 동안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찾아오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 바위나리가 친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새로운 대상을 찾는 성숙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바위나리는 완전한 충족의 대상을 추구하는 남근기, 즉 오이디푸스 시기이다. 바위나리가 이처럼 나르시시즘에 빠지고, 분리 불안을 느끼고, 대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살펴본 바와 같이 바위나리의 성장을 도운 조력자에 있다. 바위나리의 내면에 완전한 충족감을 느꼈던 시기가 존재했기에 외롭고 쓸쓸한 결핍의 시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바위나리가 근원적 나르시시즘을 경험했기에 현실적 오이디푸스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기 위한 장치로 발단 부분에 장황하게 바위나리의 외로운 상황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자아의 양상과 관련하여 조명할 때 남쪽 바

56) 김열규,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동화교실』, 소금창고, 2005, p.302.

닷가에 홀로 오색 바위나리가 피어나는 바위나리이므로 공간적 고립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이 가중되는 부분이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자 바위나리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바위나리의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분리의 과정이다. 분리(separation)라는 개념은 자아와 타자들 사이의 경계 수립, ‘나’와 ‘너’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⁵⁷⁾ 동화에서는 바위나리의 울음소리를 떠나면 별나라의 아기별이 듣게 된다. 바위나리처럼 근원적 나르시시즘의 단계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쾌감원칙에 사로잡힐 때는 주관과 객관에 대한 분리가 어렵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아기별이 왔을 때 선택의 여지도 없이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위나리에게 아기별은 완전하게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환상의 옷을 입혀 둔 또 하나의 바위나리 자신의 모습이다. 이것은 바위나리 내면에 존재하는 나르시시즘의 본능, 쾌락원칙에서 주관과 객관이 혼재하는 환상으로 아기별을 대한다.

바위나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기별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내려간다.

이울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남쪽하늘에 맨몬저 뜨는 애기별의 귀에 들녔습니다. 애기별이 울음소리를 듣고 씹씩놀라서 ‘누가 이러케 슬프게우나 가서 달내 주어야겠다’ 하고 님금님에게 단녀오겠습니다 하지도안코 그대로 울음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쭈욱 내려왔습니다.⁵⁸⁾

위의 인용에서 바위나리의 울음소리를 천상의 아기별이 듣게 된다. 바위나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기별은 지상의 바위나리에게로 하강⁵⁹⁾한다.

57) 샌디 호치키스, 이세진 역, 앞의 책, p.78.

58) 마해송, 앞의 책, p.70.

59) 에드 섉스틴, 이용철 역, 『도킨스와 이기적인 유전자』, 이제이북스, 2002, pp.85-92.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인간을 유전자의 꼭두각시로 보며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의 원칙을 중심으로 존재를 영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전자 수준으로 볼 때 이타주의는 악이고 이기주의는 선이라고 보며, 개체의 수준에서는 이타주의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전자가 자기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증식시키기 위한 계산된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이는 유전자의 보존을 위한 차원이다. 유전자의 자기

아기별의 하강은 현실세계의 임금님의 질서로부터 억압을 느낀 아기별이 억압을 벗어나기 위한 충동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아기별의 하강은 자아에 지원되었던 에너지가 다시 이드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무의식의 세계, 이드의 세계를 위한 에너지로 환원된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아기별은 임금님의 질서로 인해 본능 에너지의 흐름이 자아로부터 차단되고 있다. 그래서 저항을 뚫고 나가려는 경향이 생기며 저항이 뚫리게 되면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충동적 원망 등이 합리적 사고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억압을 느끼는 아기별은 하강을 하면서 별나라의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내려 간다. 아기별이 이처럼 말도 하지 않고 하강한 이유는 아기별이 별나라에서 느끼는 불안의식에 기인한다. 그러한 불안의 근원은 하늘나라 임금님의 규율을 거역하는 행위에 대한 초자아의 불안이다. 임금님이 통치하는 별나라에는 규율과 법이 존재하며 아기별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조직의 한 구성원이다. 그런데 아기별의 입장에서는 별나라의 규율과 법이 본능의 억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아기별의 무의식에는 별나라를 탈출하여 자유를 얻고 싶은 충동적인 에너지가 기회를 노린다. 그러한 상황에 별나라의 탈출을 유도하는 바위나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아기별은 빌미를 삼아 별나라를 벗어나 하강⁶⁰⁾

본위적인 이기적 성향은 곧 바로 인간의 성향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위주로 사고하고 자기위주로 행동한다. 이기적인 개체는 이타적인 개체보다 더 살아남기 쉽다. 이와 같은 도킨스의 주장은 자아보존을 위한 본능 에너지가 목표 충족에 강렬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제공해 준다.

60) 박상재, 앞의 책, p.12.

위의 책에서 ‘아기별이 지상으로 내려와 바위나라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단군신화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과도 통한다. 천상의 아기별은 지상의 바위나라와 어울려 즐겁게 놀음으로써 즐거움과 이로움을 선사한 것’이라고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단군신화는 신의 이야기다. 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신화의 인물은 주로 신이거나 영웅적 인물이다. 이처럼 영웅이나 신이 아버지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과업성취를 위해서다. 그러한 과업은 영웅적 신적 견지에서 집단 공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과업이라야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물의 과업 또한 위업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아기별의 하강을 단군신화의 정신과 연계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과업 성취를 위해 출발하는 출격장면을 들 수 있다. 아기별은 하늘나라를 떠나면서 바위나라의 울음을 듣고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영웅적인

하게 된다. 이때 아기별이 임금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말을 할 만한 힘과 용기가 아직은 부족한 오이디푸스 시기임을 드러낸다. 즉 아버지의 현실원칙, 질서의 세계, 권위의 세계에 감히 도전할 만한 힘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아기별이 별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다. 아기별이 이러한 하강의 세계를 드나든다는 것은 마음 저변의 본능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일이다. 그곳은 원초적인 본능의 세계요, 잃어버린 아늑한 어머니의 모태 본능이 존재하는 곳이다.

아기별의 하강은 표면적으로 볼 때 바위나리를 달래주러 가는 일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아기별 자신의 자유 실현을 위한 본능적 욕구를 위해서 내려간 것이다. 아기별이 이처럼 본능적 욕구에 지배되고 자아의 확실한 신념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인물로 드러난다. 미성숙한 아기별은 자아에 대한 불확실한 신념으로 자아를 의식하지 못하고 갈등과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아기별이 불안을 느끼는 서술들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잠간동안 달내만주고 도라가려고 햇섯지만 바위나리가 아름답고 귀여워서 바위나리와 갖치 노는것 박게는 아모생각도 엄섯습니다. 다-이저버렸습시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심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며 떠나기 위한 출발의 거센 저항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인다.

둘째,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을 들 수 있다. 아기별은 바위나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위나리를 달래주고자 하늘나라를 떠난다. 바위나리를 달래주는 일이 바위나리 외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이익을 주는 영웅적인 과업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극히 아기별의 개인적 욕구에서 떠난다. 그러므로 단군신화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집단무의식의 관점이나 신화 원형적 관점으로 조망될 수 있는 문제이며,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개성을 추구하는 개인무의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신념에 관한 문제이다. 아기별이 영웅적 과업을 성취할 인물이라면 모험을 떠난 이상 목표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상황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심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아기별은 바위나리와 함께 있을 땐 하늘문이 닫힐까 걱정하고, 별나라에서는 바위나리만 생각하며 우는 모습을 보이는 소신과 신념이 불확실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로 「단군신화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과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의 행위를 연장선상에서 비교하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이악이도하고 달음질도하고 노래도불으고 숨박꼭질도하고 밤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습니다.

- 님금님은 눈을부릅쓰고 ‘나가거라’ 소리치셨습니다. 애기별은 무서워서 몸을 바르르 썰면서 ‘용서해주십시요 다시는 밋게 나가지 안켓습니다’ 하고 겨오 님금님압흘 물러나왓스나 병들어서 혼자 괴로워하는 바위나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여지는것 갓했습니다.

- 애기별은 날마다 밤마다 바위나리 생각만하고 울었습니다. 엇더케든지 한번 가보고 심흔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려갈수는엮고…… 소리를 질러 울고십흐나 그도 님금님과 여러별들이 듯겻스니까 울수도엮고…… 다만소사나오는 눈물만은 엇지할수 엮서 눈에는 눈물이 끈칠사이가 엮섯습니다.⁶¹⁾

위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기별의 불안 요인은 초자아의 양심에서 기인한다. 아기별은 아버지인 임금님의 질서를 거부함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아버지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강한 일에 대한 강한 불안의식은 아기별이 아직은 아버지의 질서를 거스를 수 있을 만큼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기별은 아직은 자아가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인물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질서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오이디푸스의 근원적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아기별은 하늘나라에서 문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바위나리에 대한 생각을 달래고 있다. 그 울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버지의 질서계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아버지가 별을 추방한 궁극적 이유는 별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별의 속성은 빛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빛은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사물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빛의 속성은 빛을 사물의 정체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정신의 형상, 혹은 지성의 명철성, 지혜의 속성 등으로 간주하는 속성을 낳았다.’⁶²⁾ 이러한 빛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정신의 분별력이다. 행동분야에서나 조용한 명상 속에서나 분별력이야말로 정신의 본질적 표지이며 이 능력은 무엇보다도 곧 빛이 상징하는 내용이다.’⁶³⁾ 하늘나라 임금님은 빛을 잃어버린 아기별, 정신의 분

61) 마해송, 앞의 책, p.70-74.

62) 김광길 외,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p.248.

63) 필립 윌라이트, 김태옥 역, 『은유와 실재』, 2000, p.129.

별력을 잃어버린 아기별을 더 이상 하늘나라에 둘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기별은 심지어 임금님의 명령에 하늘을 쫓겨날 때도 단지 수동적 인물로 존재한다. 실재하는 별나라는 광활한 우주공간이지만, 아기별에게 별나라는 불안의식으로 가득한 과밀한 공간이다.

이야기에서 임금님이 바위나리를 찾아간 행동에 대해 화를 낼 때 아기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 마디 변론도 하지 못한다. 이는 작품의 시대상과 함께 작가의 의식이 작품에 반영된 예다. 마해송의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시대적인 상황과 작가의 개별적 상황으로 맞물려 현실적 공간을 벗어난 환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마해송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집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나타낸 한편의 동화를 썼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창작동화라고 하는 <바위나리와 아기별>이었다.⁶⁴⁾ 작가는 실연의 아픔을 겪는 와중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 속을 바위나리를 통해 구현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인공인 아기별의 정신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조력하기 위하여 작가의 무의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 결과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는 동화 속의 주인공인 아기별의 불안은 근원적으로 작가의 불안이 전이되어 드러나기도 한다.⁶⁵⁾

이야기에서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무의식의 상태, 상징적 죽음의 상태로 돌아간다. 흔히 전래동화에서 죽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재생, 부활을 다룬 이야기들이 많다. 이때 죽음이란 상징적인 죽음이고 무의식으로의 회귀이다. 생명을 가진 개체의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과의 치열한 대결을 위한 출전의 의식이다. 이 대결에서 자아가 조력을 할 때 죽음의 본능을 물리치고 삶의 본능인 재생, 부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치열한 삶을 위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자아가 아니라 의지가 미약한 인

64) 이재복, 앞의 책, p.57.

65) 이 과정에서 작가의 무의식을 살펴보게 된 까닭은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주인공인 아기별의 불안의식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불안의식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기별의 정신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바다에 빠진 무의식으로의 회귀는 죽음의 본능으로 치달을 요소가 다분하며 이를 읽는 독자들 또한 본능적 불안에 빠질 수 있다. 작가는 바위나리와 아기별이 현실에서는 그들의 우정 또는 에로스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죽음으로써 영원한 우정을 얻게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 재생, 부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자아가 아니라 나약한 자아의 바위나리와 아기별이기 때문에 재생,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작가의 의지를 드러낼 뿐 작품 속에서는 구현되지 못하고 그저 환상으로 끝나버린다. 이로 인해 이야기는 미완의 불만과 심리적인 불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후로도 해마다 아름다운 바위나리는 바다밖에 피어나옵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집으면 김흠사록 환하게 맑게 보입니다. 원일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바다 그깃해서 아기별이 빛나는까닭이랍니다.⁶⁶⁾

위의 동화 후반부에 제시되는 문장을 두고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⁶⁷⁾ 이 부분은 동화의 출격양식(a ride de sortie)에 해당한다. ‘이 이야

66) 마해송, 앞의 책, p.75.

67) 박상재, 앞의 책, pp.14-16.

위의 책에서 극적인 만남의 장소로서의 바다에 대해 단군신화의 하강구도, 상징체계의 변형, 현실적 비극이 승화된 희극으로 파악한다. 이야기의 결말을 동심의 승리라는 해석과 함께 바다를 반전의 공간으로 본다. 그런데 <바위나리와 아기별> 동화에서 현실적 비극을 승화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주인공인 아기별의 자아가 나약함으로써 현실적 비극을 승화로 이끌어낼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현실적 승화를 추구할지라도 현실적 승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환상에 그치고 만다.

김자연, 앞의 책, pp.26-27.

위의 연구는 프롭의 연구 민담형태론의 관점으로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조명하고 있으며 귀환의 장소가 본래의 집이 아닌 바다 속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아기별의 행복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그런데 별의 고유성이 환원되자면 바다에 잠겨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명으로 위의 결말 부분의 서술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성현주, 앞의 논문, pp.100-121.

위의 연구에서는 바위나리를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인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바위나리는 타인이 완전히 자아의 일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닌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가진 ‘자기대상’에서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죽음으로 이루고자 한 자기애의 충족은 모테회귀의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다.”

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이며 우리는 지금 엄정한 현실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일상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 이야기에 뉘을 잃지 말고 당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동화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⁶⁸⁾ 이와 같이 위에 인용된 부분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래동화의 형태를 드러내며 독자인 아동의 심리작용을 일깨우고자 한다. 동화를 읽는 아동들로 하여금 이드의 세계, 쾌락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자아의 현실 인식, 현실 세계를 직시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녀야 한다는 어린 독자의 자아를 위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재구성한 팬터지의 공간에 다녀왔을 때 삶의 근원적인 문제의식 즉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진정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동화문학이 갖는 특성이자 한계성일 수 있다. 팬터지는 아동들에게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한 마술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 팬터지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법으로 아동들을 이끌어 삶의 치열함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야기를 감상하고 나왔을 때는 삶에 대한 통찰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읽은 독자들은 삶에 대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적어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날 정도가 되려면 삶을 위한 치열함이 내재되어야 한다. 아기별처럼 나약한 인물로는 불가능하다. 동화의 주인공이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시대사회의 현실 속에서 자아를 찾는 일이 아동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대동화는 이러한 길을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꿈을 짚는 사진관>

아동들의 꿈은 미래로 향하는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긴장된 현실의 도

이 연구에서 주인공인 아기별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마지막 이야기 부분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지 않는 점은 연구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모태회귀의 환원적 사고는 박상재의 승화와 대립되는 논의이다. 이 연구에서 조명한 모태회귀의 환원이라는 무의식의 소재는 연구자의 연구와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68) Marie-Louise von Franz, 앞의 책, pp.3-4.

피쳐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규제가 가해질수록 현실 회피의 욕망 또한 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돌파구의 휴식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이야기에서 꿈이 되기도 하고 환상이 되기도 한다. 잃어버린 유아기의 행복한 시기, 어머니의 따스한 품 속에 대한 복원의 염원은 아동들은 물론 어른들 또한 결코 잊지 못하는 영원한 마음 속의 파라다이스로 내재되어 있다.

모든 인간의 감춰진 욕망에는 동일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일성은 비밀스런 욕망의 배출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를 감동시키는 문학 작품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인간의 욕망과 관련하여 프로이트는 문학 작품과 꿈 사이의 어떤 유연성을 확인한다.⁶⁹⁾ 현실에 대한 긴장이나 억압, 결핍은 꿈을 통해 다소 이완이나 해소, 충족되기도 한다. 마음 속의 소망에 대한 현실에서의 손상이나 위협은 잠을 잘 때 복잡하게 뒤엉키거나 압축된 형태의 이미지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동화의 창작을 꿈을 매개로 하여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자 함은 현실의 규제로 인하여 고립감에 빠져 있는 아동들에게 심리적인 위안과 삶의 에너지를 조력해주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무의식에 내재된 소망을 드러내는 한 방법인 꿈을 소재로 한 작품 <꿈을 찍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제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꿈을 소재로 하고 있다. 꿈은 완전한 심적 현상이며 어떤 소망의 충족이다. 꿈은 인간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생시의 심적 행위의 관련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므로 아주 복잡한 정신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다.⁷⁰⁾ 프로이트는 ‘꿈이야말로 무의식으로 이르는 왕도’라고 했다. 그러기에 꿈의 재료와 원천에 관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무의식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꿈의 내용에는 잠재몽과 발현몽이 있다. 잠재몽은 발현몽을 일으키게 된 무의식에 있는 소망, 욕구, 충족들의 사념들이다. 발현몽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진행되는 의식의 체험으로서 발현몽을 유발한 기억할 수 있거

69) 막스 밀네르, 이규현 역, 『프로이트와 문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9, p.63.

70) 프로이트, 민희식 역, 『프로이트 꿈의 해석』, 정민미디어, 2006, p.47.

나 기억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인간의 심리 장치는 감각계(感覺系)와 운동계(運動系), 인지계(認知系)와 기억(記憶系)를 가지고 있다. 인지계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머리 속에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영상을 형성하게 된다. 인간은 이 영상을 기억장치 속에 보관하게 된다. 기억 계통 속에서 보존되었던 기억이 활성화되면 원래 인지되었던 사물의 영상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게 된다. 과거는 이와 같은 기억의 영상을 통해서 현실 속에 재연된다. 즉 인지는 사물의 정신적 표상이고 기억된 영상은 인지된 것의 정신적 표상이라 하겠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인지가 일어난다. 우리가 한번 본 것을 회상할 때 기억된 영상이 형성되는 것이다.⁷¹⁾ 꿈에서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지한 회상된 영상이 압축과 전치되어 이미지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의 꿈을 매개로 한 강소천의 <꿈을 찍는 사진관>을 살펴보는 일은 인간 심리의 영역인 무의식의 이해에 조력하는 길이다.

동화에서 주인공이 환상인 꿈 속으로 진입하여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내 눈이 맞은편 산 허리에 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리 만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활짝 핀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구꽃이 피려면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텐데, 저렇게 연분홍 꽃이 전등이라도 켜 듯이 화안히 피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꽃나무 있는 데로 쏜 살 같이 달아났습니다. 골짜기를 내려 다시 산으로 기어 올라, 그 꽃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단 숨에 달린 나는 숨이 차서 그만 땅에 주저 앉았습니다.

숨을 돌리며 내가 꽃나무를 자세히 바라보려니, 나무 밑줄기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5리>

- 중략 -

<꿈을 찍는 사진관은 여기서 남쪽으로 5리 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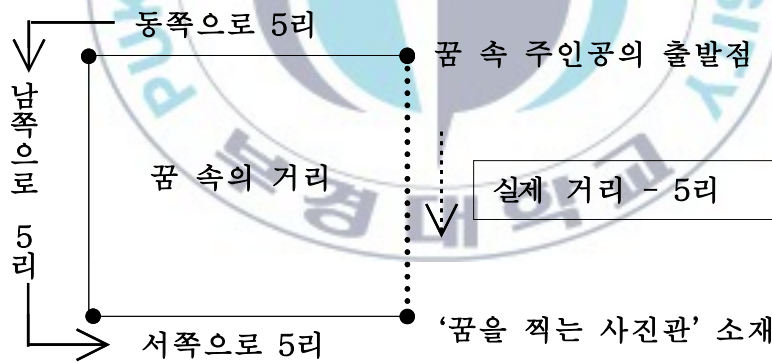
- 중략 -

71) 켈빈 S. 홀, 백상창 역, 앞의 책, p.42.

그것은 남쪽으로 5리가 아니라, ‘서’쪽으로 5리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만 더 속아 보자 하고 또 ‘서’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것입니다.⁷²⁾

주인공인 나는 일요일, 따뜻한 봄볕에 이끌리듯이 뒷산으로 향한다. 내가 이 맞은 편 산허리의 활짝 핀 꽃나무에게로 달려가자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이 안내되어 있다. 나는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안내하는 간판을 따라 동쪽으로 5리, 남쪽으로 5리, 서쪽으로 5리를 가서 커다랗고 훌륭한 양옥집을 찾아간다. <꿈을 찍는 사진관> 동화의 화자는 봄 햇살의 따스함으로 인해 간직되었던 아련한 그리움에 이끌려 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8년이란 긴 시간을 거슬러 추억을 회상하며 가는 길은 물리적인 측정의 거리로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의식의 끈을 따라 길게 우회하고 있다. 동쪽으로 5리, 남쪽으로 5리, 서쪽으로 5리를 가서 발견한 ‘꿈을 찍는 사진관’의 물리적 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

위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발점에서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5리의 지점에 ‘꿈을 찍는 사진관’이 소재한다. 그림에도 무의식의

72)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꿈을 찍는 사진관』, 홍익사, 1954, pp.27-28.

꿈 속을 따라 가는 길은 이리 저리 헤매어 먼 길을 우회하여 가고 있다. 마치 페넬로페⁷³⁾의 천짜기에서 위기를 지연시키는 페넬로페처럼 서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실제 거리는 5리이지만 꿈 속에서의 거리는 15리의 거리로 우회해서 환상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화자가 의식의 빗장을 풀고 어렵게 찾아간 무의식의 공간에 꿈을 찍는 사진관이 존재한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이처럼 동화의 서두에 낫설고 신비한 공간을 모색하여 동화의 환상성 구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상성 구현은 간절한 소망의 공간, 욕망 충족의 공간 진입을 위한 터널로 볼 수 있다.

꿈을 찍는 사진사는 꿈을 찍는 사진관에 찾아온 손님에게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해 객관적인 타인의 마음을 주관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손님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이 곳까지 찾아 온다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는 신기한 것을 즐기는 마음이요, 또 하나는 무척 그림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⁷⁴⁾

꿈은 낮 동안의 지적 활동을 계승하며, 낮에 도달하지 못하였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며, 또 의문을 해결하도록 하여 시인이거나 작곡가의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⁷⁵⁾ 근원적 나르시시즘 시기의 유아는 주관과 객관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욕망을 타인의 욕망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꿈을 찍는 사진관의 사진사는 신기한 것을 즐기는 마음과 무척 보

73) 호메로스, 유영 역, 『오디세이아』, 범우사, 1997, 참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아내. 남편인 오디세우스는 이타케섬의 왕자였으며 후일 트로이전에서 목마(木馬) 속에 병사를 숨기는 전술로 트로이를 함락시켜 헬레네를 구출하였다. 그러나 개신장군인 그의 귀향은 온갖 위험 속에서 20년간이나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야욕적 젊은이들이 밤낮으로 향연을 베풀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청혼하며 승낙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천짜기가 끝나면 배필을 고를 것이라며 위기의 순간을 지연시킨다. 그의 아내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즈음에 오디세우스가 등장하여 아내에게 구혼한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된다. 위의 동화에서 꿈을 통한 욕망 충족을 위해 욕망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차용하며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을 우회하고 있다.

74) 강소천, 앞의 책, pp.29-30.

75) 프로이트, 민희식 역, 앞의 책 p.28.

고 싶은 사람이 있으리라는 자신의 마음을 손님들의 마음과 동일시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사의 마음이 손님의 마음과 동일하리라는 설정은 현실과 이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나르시시즘의 시기인 환상의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이유가 호기심과 그리움만이라는 것은 작가의 작위적인 환상이다. 이야기에서 작가의 마음이 곧 꿈을 찍는 사진사의 마음이요, 꿈을 찍는 사진사의 마음이 곧 등장인물인 신사의 마음이 된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또 다른 인간에게 동일시하고자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신사’는 작가의 사상이 주입되어 의도대로 움직이는 주체적인 자아의 에너지를 갖지 않은 생명력이 상실된 인물이 될 수 있다. 즉 작가는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신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나아가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라는 화자의 현실인식을 작중 인물 속에 지나치게 주입하게 되면 인물의 정신 에너지도 작동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인공의 자아에 대한 진정성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사상이 화자에게 주입된 동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과의 심리적인 응집력을 해칠 수 있다. 독자들은 분단으로 인한 그리움에 대해 뇌리로 이해는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동일시하기에는 감정적 틈새가 있기 때문이다. 동화의 화자가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이유가 호기심과 그리움이다. 그렇지만 꿈은 무의식에서 작동되는 정신 에너지이므로 의식적으로 원하는 바를 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움과 호기심의 욕망을 현실적으로 충족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화자도 신사에게 꿈을 인간의 마음대로 꿈을 꾸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요행히 우리에게 ‘꿈’이란 게 있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가 버리고 없는 그리운 얼굴들도 꿈에서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꿈이란 사람의 마음대로 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고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 꿈에 보려고 애를 써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⁷⁶⁾

인간이 꾸는 꿈은 이미저리로 나타나는 발현몽과 발현몽의 근원을 제공하는 잠재몽이 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발현몽의 근원인 잠재몽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잠재몽의 네 가지 근원에 관하여 『꿈의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꿈꾸는 사람이 지니는 본능욕구, 내적 자극이나 외적 자극을 포함하는 신체적 감각, 현재의 인생 상황, 그 날 있었던 일과 관련한 생각의 잔재와 같은 네 가지 근원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 중 가장 근원적인 본능적 욕구를 중심으로 어느 한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식 수준인 발현몽으로 나타난다고 한다.⁷⁷⁾ 이와 같은 꿈의 작업에서 볼 때 꿈이 꼭 작가가 의도한 그리움에 관한 것만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건 무리한 설정이다. 또한 이 동화에서 말하는 꿈은 위의 네 가지 잠재몽의 근원 중에서 네 번째인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한 생각의 잔재’와 관련한 근원에 해당된다. 잠재몽이 발현몽으로 나타날 때는 다른 내용들이 일부 또는 전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소망 충족의 꿈 외에는 꿈이 없다는 것은 쉽게 반박할 수가 있다. 즉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을 보여주어서 소망 충족의 기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꿈도 얼마든지 있다.⁷⁸⁾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 있는 신사는 사진기를 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 생각을 둔 나는 이번 꿈을 찍는 사진기를 하나 발명했습니다. 이는 결코 거리의 사진사들처럼 영업을 목적인 건 아닙니다.

내게는 안타깝게 그리운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기의 사진까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76) 강소천, 앞의 책, p.30-31.

77) 이무석, 앞의 책, p.204. 참조.

78) 프로이트, 민희식 역, 앞의 책, p.53.

내가 이 사진기를 만들게 된 게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⁷⁹⁾

‘꿈을 찍는 사진기’를 만든 것은 신사 자신의 신경증적인 욕구를 보상 받기 위한 동기로써 사람들로부터 그리운 추억을 찍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에 그저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찍어주는 멋진 사진사로 존재할 뿐이다. 꿈을 찍는 사진사는 신사의 자신과 동일한 상실에 대하여 복원을 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꿈을 찍는 사진기는 잠재몽이 발현몽으로 나타나면 바로 사진으로 찍히는 참으로 신기한 기계이다. 그런데 어떻게 원하는 발현몽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신사의 고민’으로 잘 나타난다. 작가는 원하는 꿈을 꾸는 방법에 대하여 역으로 접근을 한다. 의식을 활성화하여 무의식을 일깨우고, 그 무의식이 다시 발현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꿈을 찍는 사진관의 사진사는 추억의 한 토막을 꿈 속에서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그럼 당신도 곧 그리운 이를 만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운 이의 꿈을 사진 찍어 드릴 테니.

그 방법—당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흰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 지난 날의 ‘추억’의 한 토막을 써서, 그걸 가슴 속에 넣고 오늘 밤을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은 지난밤에 본 꿈과 같은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⁸⁰⁾

꿈 작업(dream work)이란 잠재몽의 내용들을 발현몽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무의식의 정신작용이다. 즉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자 위협하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욕구나 사념들을 잠자는 동안에 의식적인 체험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정신작용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흔히 ‘꿈꿨다’고 할

79) 강소천, 앞의 책, p.31.

80) 위의 책, pp.32-33.

때는 꿈이 지니고 있는 무의식의 욕구나 소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응축되거나 전치, 투사, 상징화되어 나타난 파노라마다. 사람이 꿈이란 욕구나 소망 등이 대상 이미지를 형성하여 한 편의 시각화된 영상장면으로 각색되어 나타난 것이다.⁸¹⁾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그리운 이를 만나기 위한 꿈을 꾸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만나고 싶은 이와 추억의 한 토막을 써서 가슴 속에 넣고 잠을 자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신 에너지의 배분과 관련하여 볼 때, 그 가능성은 가늠할 수가 없다. 더구나 주인공인 ‘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스무 살 된 청년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20년이란 세월 속에 잠재된 무의식을 원하는 잠재몽으로 조정하고자 함은 무리한 설정이다. 또한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치 또는 압축된 이미지를 기계인 사진기가 인간의 뇌와 같은 인식 기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나아가 원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의문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동화에서 나는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그리운 순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게 된다. 하지만 동화의 결말에서는 기어이 봄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되돌아오게 된다.

내가 사진관 주인에게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사진 한 장을 받아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이와 나의 나이의 차이였습니다. 실지 나이로는 순이와 나는 동갑입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여덟 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순이의 나이는 열 두 살 그냥 그대로인데, 나는 지금 나이 스무 살이니까요. 그 동안 나만 여덟 해 나이를 먹은 것입니다.⁸²⁾

실제 순이는 볼 수 없기에 꿈 속에서라도 순이를 봄으로써 그리움에 대한 나의 긴장은 일정 부분 치유될 수 있다. 현실에서의 만남의 불가능성을 순이와의 나이 차이 발견에서 느끼며 그리움에 대한 충동이 배설되

81) 조두영, 앞의 책, pp.41-44.

82) 강소천, 앞의 책, p.36.

고 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순간 꿈 속에서 찍은 사진은 민들레 카드였기에 이야기를 따라가던 독자는 허탈해지게 된다. 그야말로 ‘일장춘몽(一場春夢)’이다. ‘꿈은 덧없는 것’이라고 할 경우 그것은 과학적 표현이지만, 일반 관용에 따르면 꿈은 오로지 애교 있는 소망의 충족자다. 현실에서 자기의 기대 이상의 것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뻐서 외친다. “난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⁸³⁾ 이처럼 기대하는 것을 꿈을 꾸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다. 이와 달리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꿈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충족감을 느끼는 듯하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에서는 그리움에 대한 충족감이 오히려 허탈감으로 변하여 그리움이 더욱 가중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꿈을 찍는 사진관> 동화에는 꿈을 이용하여 팬터지로 진입하는 창작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동화가 꿈과 함께 환상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자칫 꿈이 지닌 여러 특성들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꿈이 갖는 비현실성은 작품에 대한 리얼리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꿈’ 하면 ‘깨어나게 된다’는 허망함과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현실성을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꿈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무의식은 의식과 유리될 수가 없다. 무의식의 이드가 의식을 가진 자아의 욕망의 저장고이기는 하지만 의식으로 무의식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의식 이면에 생각하지도 않은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감지 장치와 더구나 그것을 이미지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기기를 현실적으로 아직은 만들지 못한다. 나아가 주인공인 나의 그리움과 호기심을 꿈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일은 무의식의 정신 에너지에 지나지 못하는 미숙한 자아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83) 프로이트, 민희식 역, 앞의 책, p.52.

2.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

자아의 정신 에너지 사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동들은 흔히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드러나게 된다. 동화에 드러난 주인공의 공격성에 대하여 인간의 정신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이 지닌 정신 에너지에서 본능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생명 현상’을 위해 쓰는 본능의 그룹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을 위해 쓰이는 본능의 그룹이다. 이때 죽음이라는 사태의 최종 목표는 무생물, 즉 무기물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한다.⁸⁴⁾ 생명력을 지닌 인간은 자아보존본능을 지니게 된다. 삶의 본능인 자아보존본능은 타인을 향한 공격욕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본능의 한 유도체라고 할 수 있는 파괴 본능 및 공격 본능⁸⁵⁾이 자신이나 타인을 향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파괴 본능 및 공격 본능은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때 본능을 유도하여 자아에 유효한 정신 에너지로 쓰이게 된다. 집착, 선호, 취미, 기호, 태도, 느낌, 가치관 및 이상 등은 본능의 유도체라 할 수 있다.⁸⁶⁾ 한국 현대동화에는 동화의 주인공이 이드의 공격욕을 느낌이나 태도, 가치관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정신 에너지가 이드의 충동과 자아의 억제로 요동치게 된다. 동화의 주인공이 드러내는 충동과 억제의 정신 에너지와 관련하여 한국 현대동화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아프리카 새깁디>

<아프리카 새깁디>는 인간의 공격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이야기다. 타인에 대한 공격은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본능의 다른 모습이다. 인간이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자기보존을 위해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 앞에서는 공격성을

84) 켈빈 S. 홀, 백상창 역, 앞의 책, p.105.

85) 위의 책, p.106.

86) 위의 책, p.180.

드러내게 된다. 우월성과 열등성을 지닌 존재에 대한 자아보존의 본능은 비겁자의 행동처럼 드러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양심과 자아이상보다 본능의 지배를 받기 쉽다. <아프리카 새깁디>의 주인공인 나는 본능의 지배를 받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학급의 반장이며 주인집의 아들이다. 그에 비해 상준이는 청색증을 앓으며 세 들어와 사는 집의 아이다. 상준이는 나보다 두 살 어리며,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다. 6학년인 나는 현재 이성애에 대한 관심 또한 슬슬 자라나는 시기이다. 이전의 오이디푸스 단계의 어머니에 대한 완전한 충족의 시기를 결코 잊지 못하여 어머니에 대한 갈망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서 나타나는 시기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서사들의 중심에는 자기애의 모습인 나르시시즘이 존재한다. 자아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타인을 이해하는 심리적 영역이 부족하다. 동화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사랑해서 출발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기도 한다.⁸⁷⁾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사랑과 미움, 친절과 불친절 등 자아와 본능의 양 극단의 심리에너지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를 제거하는 데 공격본능이 동원되기도 한다.⁸⁸⁾ 그래서 초자아는 자아가 도덕적 규율을 어길 때 자아를 처벌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나는 상준이를 향한 본능의 공격욕과 초자아의 도덕적 규율 사이에서 자아를 다스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공격성을 드러내어 보여주면서 그로 인해서 스스로 갈등하는 모습을 ‘나’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나보다 약한 상준

87)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예출판사, 1995, p.60.

권택영은 위의 저서에서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는 소설의 영원한 주제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단지 소설의 문제에서 나아가 인간 세상사와 관련하여 구성된 수많은 이야기 즉 서사의 주제로 확장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서사의 한 갈래인 현대동화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전체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지 대상이 아동들이므로 추구하는 방법이나 대상이 시기적으로 다를 뿐이며 사랑을 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속성은 같이하고 있다.

88)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10.

이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게 된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상준이가 또 말썹을 부리고 있다. 우리 집 화장실의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내며 아파트 공사장 쪽으로 뒹뒹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걸음을 떼 놓을 적마다 녀석의 옆구리에 달린 빨간 복주머니가 달랑거린다.

“야, 서상준! 너 거기 안 서?”

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내 속을 발각 뒤집어놓으며 녀석이 귀머거리처럼 저렇게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뜨려 짓밟아버리고 싶은 게 솔직한 내 마음이다.

그렇지만 나는 책가방을 열린 현관에 던져놓고 하얗게 끌려가는 화장지 옆을 스쳐지나 상준이를 붙잡는 것으로 분통을 삼켰다.

“너 벌써 다섯 번째야. 왜 또 우리 집 화장지 풀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영? 화장지하고 무슨 원수졌니? 말해봐, 새끼!”

“.....”⁸⁹⁾

상준이는 주인공인 ‘나’의 집 옥상에 세들어 사는 장애를 가진 아이다.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말도 어눌하다. 6학년인 나보다 두 살 아래인 상준이는 또래의 아이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다. 나는 정신연령이 뒤떨어진 상준이를 ‘멍청이’, ‘바보’로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 주인공 ‘나’가 보기에 상준이는 현실세계의 사회의 문명화 또는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다. 6학년인 나는 여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실 새로 이사 오는 셋집에 내 나이 또래의 예쁜 여자 아이가 오길 은근히 바라던 터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는 달리 예쁜 여자 아이는 커녕 남자아이가 이사를 온다. 그것도 하필이면 ‘바보’, ‘멍청이’ 상준이가 온 것이다. 나이에 맞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서서히 문명화가 되어가는 나에 비해 상준이는 신체적인 성장만 하고 있을 뿐 행동은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다. 상준이는 문명이 만들어낸 물건인 화장지가 아까운 줄을 모른다. 또한 사회화를 위해 구분지어야 하는 내 것과 네 것의 경계 또한 없다. 사회화를 위한 인간의 도구인 언어를 제대로 쓸 줄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문제인 것

89) 서하원, 앞의 책, pp.82-83.

이 상준이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런 일들로 화가 나는 것은 오히려 나다. 자신의 모습밖에 볼 줄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상준이를 보면 화가 난다. 문명인이 되고 싶은 나는 내가 이전에 속했던 무의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준이를 향한 공격에너지가 형성된다. 그래서 상준이를 공격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 이것은 약자를 발견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지니는 한 단면이다. 나도 자아의 완전한 성숙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포용하거나 나아가 타인의 아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아의 통합적인 성장이 아직은 불안정한 과도기적 시기이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준이가 싫다. 게다가 내가 상준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껴주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준이로부터 신경 쓰이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더욱 화가 치민다. 게다가 상준이는 내가 바라던 여자 아이도 아니다. 나보다 부족한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상준이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합당한 듯하다. 그런데 그건 나의 입장에서 상준이를 바라보고 평가한 기준에 불과하다. 상준이의 의아한 행동은 나의 무의식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본능의 파괴적인 공격욕을 자아가 조정하지 못하고 충동적이 되는 일에 대한 불안함이기도 하다. 상준이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어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화나게 한다. 그런데 상준이를 돌봐야 할 부모님은 바쁘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상준이 때문에 내면의 갈등 상황에 처한다.

상준이 부모님은 철새처럼 이 도시 저 마을로 공사판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분들이다. 우리 집에 이삿짐을 풀 이튿날부터 상준이 아버지는 집 앞의 아파트 공사장으로 새벽같이 나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 일자리를 얻어 밤 열 시가 넘어야 돌아오셨다.

그런 탓에 내가 학교를 마치고 오면 상준이는 언제나 내 차지였다. 나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골목길이며,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서 어기적어기적 달려오는 녀석을 보고는 가슴을 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저리 꺼져, 임마!”

내가 책가방을 벗어 녀석의 머리 위로 한 바퀴 휘두르면 녀석은 고개를 떨구

고 올상을 짓는다.⁹⁰⁾

상준이네가 이사 오던 날, 상준이 어머니는 나에게 상준이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왜 내가 상준이를 돌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 나는 지금 유아기의 나를 넘어서 더 넓은 사회인 질서의 사회, 현실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상준이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일은 나를 정체시키거나 혹은 퇴행시킬 우려와 함께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한다. 나는 상준이로 인해 내가 가야 할 문명화의 길을 방해 받고 싶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상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내가 피해를 입는 일처럼 느껴진다. 나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초자아의 의무감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상준이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일은 내 마음을 이드와 초자아의 부단한 갈등에 처하게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준이는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할 상황의 아이다. 상준이를 돌봐줘야 할 사람은 마땅히 상준이의 부모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준이의 부모님은 공사장에서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급급한 실정이라서 상준이를 등한시한다. 그래서 상준이를 돌봐주는 일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이없이 나의 몫이 되어버린다. 이와 같이 상준이를 돌보는 일이 나의 자아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해 강제된 일이므로 나의 이드는 불만에 쌓이게 된다.

이처럼 원하지 않은 상황의 상준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이드의 에너지를 공격욕으로 작동하게 한다. 이러한 공격욕은 순자의 성악설(性惡說)⁹¹⁾과도 맞닿아 있다. 순자의 성악설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90) 서하원, 위의 책, pp.86-87.

91) 순자, 김학주 역, 『순자』, 을유문화사, 2008, pp.773-805. 제23편, 사람의 본성은 악함(性惡) 참조.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순자는 자신의 사회론을 전개하기 위한 개념으로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다. 인간은 그 속성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회에 의해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며, 개인의 성격에 의해 사회의 구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가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의 논의는 인간을 떠나 인간을 논의하자는 이상론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사는 인간에 관한 논의이며 인간에 관한 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중

나 절망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듯이 주인공인 나의 공격욕이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절망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교육을 통한 후천적 훈련의 중요성과 인간 사회의 제도인 예(禮)로써 악(惡)한 성(性)을 교화하고자 하는 데 근본(根本)적인 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순자는 인간 모두가 인의와 법도를 알 수 있는 지(知)의 바탕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行)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순자의 이러한 지와 행에 관한 논의를 인간의 자아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의 자아는 인지하고 조정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능의 악한(충동적인) 에너지를 자아가 배분 받아서 지, 행의 능력을 갖추는 일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일맥상통함을 살펴볼 수 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존재하는 위력적인 본능 에너지에 대하여 자아의 조절능력이 요청되고 있다. 내가 상준이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은 나의 공격욕이 상준이를 향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충동한다.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내재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경종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나의 공격욕과 나의 자아의 갈등은 다음과 같이 지속된다. 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상준이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그러나 나는 상준이가 싫어서 책가방을 벗어 상준이에게 휘두르기도 한다. 상준이가 우는 지 보려고 넘어뜨려 보지만 울 줄을 모른다.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도 꺾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학원 앞까지 따라와서 세 시간이나 지난 뒤에 나와도 그대로 문밖에서 기다리는 상준이가 마치 혹처럼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지만 묘책이 없어 눈물이 핑 돌 지경이다. 나는 마치 나 스스로를 시험하는 듯한 욕망과 현실상황에서 고뇌하고 있다. 상준이가 하는 생각 없는 행동을 나는 상준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서서히 알음알음 나는 녀석의 습성을 알게 되었다. 녀석은 4학년 나이에
양말의 뒤꿈치는 언제나 발등으로 올라오도록 신고, 운동화도 양쪽을 바꾸어

심에 자아가 존재한다.

신는다. 거의 제대로 신을 때가 거의 없다.

- 중략 -

상준이는 그 나이에 백은 커녕 넷까지도 못 해야린다. 조약돌을 놓고 수십 번을 되풀이하여 셋까지 가르쳐 놓으면 하나에서 둘을 건너뛰고 셋이라 한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머리이다. 저런 돌머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면 상준이 부모님은 물론이고, 녀석도 고생 깨나 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타고날 때부터 심장도 안 좋아 녀석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니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다.⁹²⁾

나는 상준이의 습성을 서서히 이해하게 된다. 상준이는 신발이나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수준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4학년 수준에 이르지만 상준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신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혼란에 처하게 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내가 아직은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확실하지 못하여 상준이를 자신의 수준에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상준이랑 함께 생활함으로써 서서히 깨닫게 된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처음에 나는 상준이가 나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4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면 그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는 신체와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상준이에 대해 이해는 커녕 오해하며 더욱 미워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준이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서서히 상준이를 이해하게 된다. 숫자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나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상준이에 대한 연민의 정이 서서히 들기 시작한다. 상준이는 나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기는 하지만 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준이를 향한 공격성이 상준이에 대한 관심으로 변한다. 그것은 주인공 ‘나’가 자아의 에너지를 지원받아서 심리작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상준이를 향한 나의 무의식의 공격성은 서서히 자아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상준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게 된다.

“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공부를 시켜 주겠다. 나는 선생님이야. 따라해 봐,

92) 서하원, 앞의 책, pp.90-91.

선생님!”

“서새이!”

“옳지, 잘했어.”

나는 네모 칸 공책 맨 위에다 내가 좋아하는 지혜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랑’이란 낱말을 써 주었다.

“사랑이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뽀뽀하고 좋아하는 거야.”

나는 사랑이란 낱말을 가르치기 위해 상준이를 끌어안으며 포옹을 해 보았다.

“자, 따라 해 봐. ‘사랑!’”

“사라.”

“좋아. 그럼 이제 써 봐.”

희순은 틀렸지만 상준이는 숨을 할딱거리며 비슷한 모양으로 곧잘 흉내냈다.⁹³⁾

나는 그토록 미워했던 상준이를 가르쳐 보기로 한다. 그것도 주제는 사랑이다. 이처럼 내가 상준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주제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에로스가 원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고픈 마음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은밀한 사랑을 상준이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내가 사랑하고 싶은 지혜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 지혜는 내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향수의 대상적 인물이다. 사실은 나의 마음에서는 그 인물이 지혜가 아니라 그 누구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써 복원될 수 있는 완전한 충족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환상적 이미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대상적 지혜를 떠올리며 상준이를 끌어안고 포옹을 해 보인다. 나의 은밀한 즐거움을 모르는 채 상준이는 나를 따라 ‘사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 보라고 하니 글자 모양도 흉내낸다. 나는 상준이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느끼며 지혜에 대한 사랑의 실현 가능성에 희망을 갖는다. 나는 내면의 본능적 욕망을 상준이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비밀스런 마음의 동요에 대해서 전율하게 된다. 나의 본능적 욕망에서 출발한 마음은 부지불식간에 상준이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상준이를 미워하는 본능은 여전히

93) 위의 책, pp.92-93.

남아 상준이가 빨리 떠나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막상 상준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의 변화에 스스로 놀라고 있다.

“떠났구나!”

나는 다시 찾은 자유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위하여 계단을 뛰어올라 옥상 집으로 갔다.

-중략-

“이게 뭐야, 아프리카 새깁디?”

거기에는 아프리카 새깁디가 두 명이나 그려져 있었다.

“킁킁킁…….”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림 밑에는 검은 색 크레파스로 ‘허아 사라해’ 라는 글자가 뽀뽀뽀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팬스레 눈시울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 옆에는 눈에 익은 빨간 복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꾸로 흔들자 구슬이며, 따

-중략-

‘내가 왜 이래? 눈물이 썩어빠졌나?’

이럴 땐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너석을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눈물을 쏟아니, 줄창 흐르는 눈물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옥상 저편으로 내려다보이는 동네 골목길 쪽으로 돌아선 나는 키 돌음을 해 보았다. 차는 보이지 않았다.

“서·상·준! 임마! 잘 가!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 해!”

나는 마지막으로 너석의 이름을 불러보며 두 명의 아프리카 새깁디가 그려진 그림을 불끈 말아 쥐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⁹⁴⁾

나는 상준이의 존재가 하루빨리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바보’, ‘멍청이’ 상준이, 상준이가 하는 생각 없는 행동을 보며 약자에 대한 강자의 오만으로 상준이를 대해 왔다. 나의 오만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이므로 그러한 본능적 에로스의 공격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 필요하다. 상준이가 나보다 부족한 인물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내가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존재하는 초자아의 요청이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은 본능의 꿈틀거림이다. 성장 과정에 있는 주인공인 나는 상준이를 통하여 자아와의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는 일,

94) 위의 책, pp.100-102.

인간의 존엄을 깨닫는 일, 그래서 본능도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장애를 가진 상준이도 세상의 일원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새깁디>는 무의식의 공격욕과 초자아의 도덕적 규율 사이에서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며 상준이에 대한 이해로의 긍정적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2) <고물 자전거>

<고물 자전거>에서 영신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춘기 시기의 소녀다. 영신이는 어머니가 부재한다. 영신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불만스럽다. 영신이가 아버지에게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됨은 영신이의 심리에 아버지에게 대한 공격 본능의 정신 에너지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적개심이나 공격 본능이 발동할 때면 어떠한 충동이나 생각 자체에 대해서도 공격적이 된다.⁹⁵⁾ 이러한 영신이의 이드에 내재된 충동적인 공격 에너지가 작동되는 발단 부분이다.

이른 아침부터 영신이 아버지께서는 정성스레 자전거를 닦고 계셨습니다. 전부터 늘 보아 온 광경이었지만, 요즈음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영신이는 싫었습니다.

“고물 자전거를 닦는다고 새 자전거가 되나요, 뭐.”

“그래도 깨끗이 닦아 쓰고 곱게 다루면 더 오래 쓸 수가 있어.”

영신이는 그 자전거를 고집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자전거 좀 새로 사요.”⁹⁶⁾

고물 자전거를 아끼며 닦는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늘 보아 온 일상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 영신이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무척 싫어진다. 마음속에 내재화된 권위로서 작용하는 초자아는 자아가 외부의 적 또는 외부의 권위체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나올 때면 이 자아에 대해 호되게 꾸짖고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⁹⁷⁾ 그래서 영

95)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10.

96)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42-143.

97) 켈빈 S. 홀, 백상창 역, 앞의 책, p.110.

신이는 아버지에게 저항적 언어로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적개심과 공격욕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가 미운 영신이는 아버지가 아끼는 고물 자전거가 더욱 밍게 느껴진다. 이는 영신이의 분노가 아버지를 향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고물 자전거를 빌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영신이가 아버지의 고물 자전거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까닭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다. 영신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의 저변에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신이는 처한 현실에서 심리적으로 존재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영신이의 이러한 존재의 불안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하여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영신이의 이런 마음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알 수 없다. 영신이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 아버지는 오히려 영신이의 충동적 에너지에 힘을 더하는 말을 하게 된다.

“새로 사긴……. 아직도 5년은 더 탈 수 있을 거다. 군말 말고 방안에 밥상 차려 왔으니까 들어가 밥이나 먹어. 아버지는 일하는 곳에서 저녁까지 먹고 올 테니까 저녁도 혼자 먹고…….”

“…….”

“다녀오마.”

영신이 아버지께서는 연장 가방을 신고 자전거 종을 두어 번 울리며 대문을 나가셨습니다.⁹⁸⁾

누적된 심리적 불안에 대하여 안정과 만족감을 구하고자 하던 영신이는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을 듣지 못한다. 아버지는 자전거는 ‘아직도 5년은 더 탈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군말 말고 방안에 밥상 차려 왔으니까 들어가 밥이나 먹어.’라는 말이다. 즉 아버지의 고물 자전거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리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가 영신이에 대한 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라는 의미다. 또한 ‘군

98) 교육인적자원부, 위의 책, p.143.

말 말고 방안에 밥상 차려 왔으니까 들어가서 밥이나 먹어.’라는 말은 영신이를 더욱 고립감에 빠지게 하는 말이다. 영신이의 마음에 도사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달래는 말이 아니다. 더욱이 ‘저녁도 혼자서 먹고…….’라는 아버지의 말은 영신이의 공격 에너지를 더욱 부채질한다. 아버지의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 영신이는 무의식의 충동적인 힘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이 고조된다.

“아버지, 자전거 새로 사요.”

“아, 이 녀석이 왜 아침저녁으로 자전거 타령을 하고 그래?”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옷 좀 사 입으세요.”

“아버지가 좋은 옷이 뭐 필요 있어? 신사복 입고 가서 시멘트를 바르라, 구두를 신고 가서 사다리를 타라?”

- 중략 -

“내일 장에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없니?”

“운동화요.”

“운동화 가져와 봐.”

영신이는 낡은 운동화를 가져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녀석아, 한 달은 더 신어도 되겠다. 운동화는 안 돼.”

“그럼 체육복이나 사 주세요. 바지가 짧아졌어요.”

“어디 체육복 입고 와 봐.”

영신이는 체육복 바지를 입고 아버지 앞으로 왔습니다.

“이 정도 짧은 건 괜찮아. 조금 더 입어도 돼. 새로 사면 낭비지.”

“그래도 이렇게 짧은 것을 어떻게 입어요, 창피하게…….”

“그렇다고 멀쩡한 걸 버려? 체육복도 더 입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말해 보렴.”

“필요한 거 없어요. 차라리 묻지나 마시지. 아버지는 참…….”

영신이는 불멘소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⁹⁹⁾

영신이의 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영신이의 마음을 몰라주는 듯하다. 현실적인 아버지의 생각과,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영신이의 생각의 차이는 표면적인 갈등으로 드러난다. 현실적인 불만에 대한 표면적인 갈등은 심리적인 고통의 깊이를 더한다. 영신이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바꾸면 생활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99) 위의 책, pp.143-144.

아버지의 옷도 작업복이 아니라 신사복으로 사 입으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자아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말이다. 자아의 통합적인 기능을 작동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성인인 아버지와는 생각의 차이가 드러난다. 분수에 맞는 현실적인 삶보다 새 자전거와 새 옷을 추구하는 영신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영신이의 이러한 생각은 가정 경영이라는 현실적 짐을 짊어진 아버지의 생각과는 견해 차이를 드러낸다. 아버지는 영신이에게 현실적인 삶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가 좋은 옷이 뭐 필요 있어? 신사복 입고 가서 시멘트를 바르랴, 구두를 신고 가서 사다리를 타랴?’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말은 영신이에게 수용되기 어렵다. 영신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은 자아가 성숙된 상황이 아니다. 현실을 모른 채 무의식의 아늑함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시기임이 드러나는 자아이다. 이와 같이 자아의 미성숙 단계에 있는 영신이는 아버지의 말을 오히려 억압으로 느끼게 된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영신이에게 ‘내일 장에 갈 건데 뭐 필요한 것 없니?’라고 묻는다. 영신이가 낡은 운동화를 보이며 사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이 녀석아, 한 달은 더 신어도 되겠다. 운동화는 안 돼.’라고 잘라 말한다. 운동화에 대한 아버지의 거절에 영신이는 짧아진 바지를 보이며 체육복을 사달라고 한다. 아버지는 ‘이 정도 짧은 건 괜찮아. 조금 더 입어도 돼. 새로 사면 낭비지.’라고 한다. 영신이가 해 달라는 체육복과 운동화에 대한 거절은 영신이의 마음을 외면하는 하는 일이기도 하다. 영신이는 어떻게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거절당한다. 영신이는 인간이 지닌 파괴본능의 힘인 존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다. 이러한 파괴본능은 미성숙한 자아의 경우에 영신이의 경우와 같이 공격욕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영신이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아버지를 향한 불만으로 변하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충동적이 된다. 위험에 다다른 긴장은 신체의 안정을 위해 폭발의 출구를 찾게 된다. 영신이는 무의식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 기어이 아버지의 고물 자전거를 고물장수에게 팔아버리

고 만다.

빈손으로 돌아오시는 영신이 아버지의 가슴은 텅 빈 것같이 허전하였습니다.
‘고안 녀석, 제 엄마가 반지 팔아서 산 자전거인데, 그게 어떤 자전거라고. 그게 어떤 자전거라고…….’¹⁰⁰⁾

영신이가 자전거를 고물장수에게 팔아버린 걸 알게 된 아버지는 자전거를 찾아 나선다. 고물장수를 찾아가지만 자전거를 찾지 못한 아버지는 마치 자기를 상실한 듯이 허탈해 한다. 그리고는 그 자전거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그제야 독자들에게 독백하듯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고안 녀석, 제 엄마가 반지 팔아서 산 자전거인데, 그게 어떤 자전거라고. 그게 어떤 자전거라고…….’

영신이는 아버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딸로 등장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전거를 고물장수에게 비누와 바퀴버리는 일을 감행한다. 영신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인한 공격 에너지를 산화시키고 자아는 안정을 찾고자 한다. 이는 영신이가 아직은 무의식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정신 에너지를 자아가 효율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단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충동적인 에너지의 사용은 대체로 안정을 찾고자 했던 자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영신이는 고물 자전거를 팔아버림으로써 일시적인 자아의 안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보인 충동적인 행동에 대하여 탐색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린다. 이처럼 현대동화 <고물 자전거>는 주인공 영신이가 아버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드러나는 행동이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100) 위의 책, p.147.

3.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

동화는 미성숙한 주인공이 성숙으로 향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동화에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자아의 마음의 세계와 객관적인 현실 세계를 구분해가는 과정이 드러나게 된다. 자아의 마음이 객관의 현실 세계와 동일시하던 마음에서 차츰 구분과 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주관적 환상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서 구분하고 경계 짓는 일은 자아가 담당하는 기능이다. 마음의 세계와 객관적 현실 세계가 구분되는 것은 좌절감과 학습의 결과에서 비롯된다.¹⁰¹⁾ 좌절감을 인식하는 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 등과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거나 판단하는 일 등은 자아가 담당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자아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이드로부터 배분받아서 쓰게 된다. 본능의 저장고인 이드로부터 에너지를 배분받는 전략을 알고 현실 세계와의 타협을 모색하는 일은 자아의 기능이다. 자아가 이드로부터 에너지를 배분받는 과정에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현실의 자아가 자기 목표의 최상의 지점에 도달할 때 퍼스낼리티는 안정을 이룬다. 동화가 추구하는 궁극의 지향은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이다. 한국 현대동화의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과 관련하여 <오세암>, <강아지 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오세암>

<오세암>은 설화 <5세 동자와 오도>를 모티브로 구성한 정채봉 작가의 현대동화이다. <오세암>은 동화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공간¹⁰²⁾으

101) 위의 책, p.79.

102) 동화의 시간과 공간은 작가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해석되어 언어예술로 형상화된 상상력의 시공간이다. 나아가 작가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인물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태어난 현실의 시공간이다. 서사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본질적인 관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의 문예비평가 미하일 바흐친의 크로노토프(chronotope) 이론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다. 작가는 이 시공간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시공간은 이야기가 표현하는 인물과 사건의 정서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의도된 장치이다.

로 관음암이라는 설화적 공간과 겨울의 눈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오세암>에서 길손이 남매는 눈이 바다처럼 내리는 날 포구에서 스님과 처음 만난다.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강과 바다의 어귀이다. 동화에서 왜 하필 첫 만남의 장소로 포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화의 발단 첫 문장에서 이러한 시간과 장소 설정은 표면적, 이면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먼저, 만남과 관련한 표면적인 의미 고찰이다. 스님의 법명은 설정(雪程)스님¹⁰³⁾이다. 설정(雪程)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눈길’이다. 눈이 오는 날, ‘눈길’의 법명을 가진 스님과 ‘길손이’ 남매가 만남의 인연을 맺게 된다. 다음으로, 인물들이 만나는 장소로 물결의 드나듦이 상존하는 포구를 선택하고 있다. 동화의 인물들이 포구에서 만난 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의도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눈 오는 날, 포구에서 인물들이 만나는 것은 <오세암>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포구는 이후 인물들의 심리적 변화를 전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포구는 자아의 정신 에너지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드의 충동 에너지와 자아의 억제 에너지가 마음의 영역을 드나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는 장님인 누나에게 스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스님이야, 머리에 머리카락 씨만 뿌려져 있는 사람이야.”¹⁰⁴⁾

시각이란 허상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데 비하여 의미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의미는 상황 속에서 구축된다.¹⁰⁵⁾ 이러한 의미 구축은 자아의 정신 에너지인 사고력과 조합력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장님 누나에게 허상을 의미화하기 위해서 길손이는 자아의 에너

103) 서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명명에 대한 소개가 발단 부분에 제시되는데 <오세암>에서는 스님의 법명이 雪程이라는 사실을 이야기의 결말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104) 정채봉, 위의 책, p.158.

105) 서정철, 앞의 책, p.40.

지 사용이 필요하다. 두 남매의 이야기 전달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내아이의 시각을 통해서 스님이 형상화된다. 다음으로 형상화된 스님은 사내아이의 언어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누나의 청각을 통해서 전달된다. 다음으로 누나의 내면세계에 수용된다. 거지 남매가 주고받는 대화에는 이러한 일련의 전달과정이 담겨 있다. 그 과정 속에는 사내아이가 장님 누나에게 외부세계를 가능한 잘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도 담겨 있다. 사내아이는 스님이 입은 옷 색깔이 이야기의 시간인 눈 오는 날의 느낌과 비슷함을 누나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그런데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알맞은 표현을 찾으려고 애쓴다. 길손이가 이처럼 적절한 표현을 탐색하는 것은 길손이의 자아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예다. 그 때 스님은 시각적 이미지의 특징으로 규정지어진 ‘재색’이라고 얼른 가르쳐 준다. 그러자 사내아이는 스님에게 누나는 그런 말 모른다며 ‘맛없는 국물 색깔’이라고 고쳐 말한다. 스님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장님’이라는 시각의 결핍에 대해 사내아이는 누나가 이해할 수 있는 미각으로 전환하여 다시 들려주고자 애쓴다. 이는 시각이 온전한 사람만이 소통 가능한 언어를 선택한 스님의 나르시시즘적인 관점에 깨우침을 제공하는 말이다. 누나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내아이의 생각에 비해 스님은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주관적인 인물로 드러난다.

다음은 조카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게 되는 설화와는 달리 <오세암> 동화에서 스님이 거지 남매를 절로 데리고 가게 되는 동기에 관한 부분이다.

스님은 돌아서서 걸었다.

그런데 어린 것들이 눈바람 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물새 울음소리로 나타나서 걸음을 더디게 했다. 스님은 얼음이 서리는 징검다리를 건너다 말고 발길을 돌렸다.

짚더미를 헤치고 아이들을 불렀다.

“너희들 날 따라가지 않을래?”¹⁰⁶⁾

106) 위의 책, pp.160-161.

이 부분은 스님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설화에서는 그 아이가 조카이기에 돌봐줘야 하는 필연성이 확보된다. 이러한 필연성은 이야기의 구성을 탄탄하게 한다. 그런데 동화에서는 아이들을 절로 데리고 가는 이유를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스님의 내면적 갈등으로 인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 풍토에 뿌리내리고 있는 조카라는 혈연적 관계가 아니다. 오직 스님의 내면적 갈등에 의한 판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거지 남매를 절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이처럼 스님의 내면적 갈등에 초점을 두고자 할 때 스님의 갈등이 미약하게 드러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전술한 시각의 경우에서처럼 스님이 자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길손이를 절로 데리고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두 남매를 절로 데려가기 위한 선택은 <오세암>에서 볼 때 스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데 스님이 거지 남매에게 ‘너희들 날 따라가지 않을래?’ 라고 묻는다. 스님의 말에 오히려 어린 길손이는 ‘스님, 우리를 데려가도 높은 사람이 눈치 안 해?’라고 묻는다. 어린 길손이지만 자아의 사고력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후 누나와 함께 절에서 생활하게 된 길손이는 절의 풍경들을 누나에게 부지런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대웅전에서 절을 하면서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길손이는 욕망과 집착에 연연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엿보게 된다. 이 부분은 정신 에너지의 흐름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길손이는 욕망 에너지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고하고 나름으로 판단하는 자아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다. 길손이는 어리지만 욕망을 조절하는 자아 에너지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않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누나에게 말한다. ‘부처님도 참 성가시겠다. 그지. 누나? 사람들이 자꾸자꾸 조르기만 하니까. 나 같으면 부처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겠는데…….’ 이와 같이 길손이는 아직 어리지만 지각하고 사고하는 자아 에너지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인물로 드러난다. 어느 날, 길손이는 바람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형체도 없으면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의 존재를 누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바람은 형체가 없어 볼 수가 없으므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갑갑해 한다. 그러다가 부처님 눈에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스님에게 묻는다.

“그럼. 우리 한사람, 한 사람한테는 수많은 눈의 창문이 있단다. 지금 감이는 육신의 창문이 닫힌 거구, 길손이와 나는 마음의 창문이 닫혀 있는 거지.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하나 창문이 열리거든. 그 땀 안 쪽 마지막 창까지를 연 분이 부처님이란다. 그 땀 바람도 보이고 하늘 뒤란도 보이는 거지.”¹⁰⁷⁾

스님의 대답을 듣고 길손이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이 생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마음의 땀 안쪽 문을 다 열고 싶은 일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처럼 바람의 존재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여 눈이 보이지 않은 누나에게 잘 설명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길손이의 마음이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 스님은 암자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함께 가자고 한다. 길손이는 누나와 헤어지는 것이 싫지만 마음 속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스님을 따라 나선다.

길손이는 암자로 떠날 때 절 앞의 개울에서 건진 ‘흰 구름’이라며 물을 담은 물초롱을 들고 나선다. 스님이 보기에는 그냥 물이기에 암자에도 좋은 샘이 있다며 길손이를 만류한다. 그런데 그것은 스님이 길손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서 빚어진 말이다. 그래서 스님은 길손이로부터 ‘스님 바보야. 내가 물 가져가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듣게 된다. 절 앞의 개울물이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물이 아니다. 길손이에게 그 물은 친구다. 암자로 가서 심심하고 외로울 때 함께 놀기 위한 친구인 흰 구름을 담아서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길손이는 자아 에너지를 잘 활용하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암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길손이는 주위의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어떤 날은 벌한테 쏘여서 머리에 혹이 났고, 어떤 날은 뱀 굴을 다람쥐 굴로 잘못 알고 건드렸다가 혼이 난 적도 있

107) 위의 책, p.163.

다. 솜다리를 보고 놀라기도' 한다. '암자의 구석진 곳을 뒤지는 것으로 재미를 삼'기도 한다. 이러한 탐색활동은 길손이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마음 속의 불안과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스스로 달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길손이는 누나가 보고 싶을 때면 마치 누나가 곁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눈다. 스님이 혼자 중얼거리는 길손이를 보며 감이는 큰 절에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길손이는 스님이 답답하다며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감이 누나 마음도 따라와 있다고 대답해 준다. 이처럼 어린 길손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누나의 모습도 마음의 문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문에 머무르는 스님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자 한다. 스님이 길손이에게 '누나는 절에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일은 길손이로부터 깨우침을 얻는 경우를 보여준다.

암자에서 길손이는 가끔 스님이 함께 놀아주기를 바라지만 스님은 수행에만 전념한다. 그러자 화가 난 길손이는 친구인 흰 구름¹⁰⁸⁾을 찾지만 그날은 흰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다. 길손이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터득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 길손이는 암자의 온 구석을 다 뒤지고 다닌다. 스님이 가지 말라는 골방까지 뒤지다가 관세음보살 탕화를 발견한다. 길손이는 탕화를 보며 엄마라고 불러본다. 길손이는 언제 어디서나 현실에 잘 대처하는 인물이다.

길손이는 스님으로부터 마음을 다해 부르면 엄마가 온다는 신념을 얻게 된다. 길손이는 관세음보살을 부를 것이라는 암시를 남긴 채 동화는 주인공인 길손이를 혼자 놓아둔다.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¹⁰⁹⁾

108) 박상재, 앞의 책, p.169.

정채봉 동화에서 흰 구름은 한없이 자유롭고, 영원불멸하고, 꿈과 동경의 대상이며, 끝없이 유량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의미가 있다고 논한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자아와 욕망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세암>에서 흰 구름은 길손이의 무의식이며 초자아이다. 개울물에 비치는 구름은 나르시시즘 상징이요, 하늘로 올라가서 흘러가는 구름은 초자아의 상징이다. 길손이는 동무인 흰 구름들과 함께 길손이 되어 윤회하게 된다. 흰 구름은 우주순환론의 근원이며 이는 불교의 윤회설에 맞닿아 있다.

109) 정채봉, 앞의 책, p.176.

<오세암>에서 눈길은 늘 사건을 유발한다. 설정 스님은 탁발을 나섰다가 눈을 만나서 암자로 돌아가지 못한다. 눈길에서도 길손이를 걱정하며 길을 나서다가 오히려 앓아눕게 된다. 스님이 큰절에 올라간 것은 보름 후, 암자를 떠나온 후 한 달하고 스무날 째 암자로 향한다. 절에 있던 감이와 함께 길손이가 있는 암자로 향한다. 암자로 가는 길의 고개가 시작되는 데서 감이는 스님에게 냄새가 난다고 한다. 스님은 신체 감각인 후각에 의존하여 사향 냄새 아니냐고 대답을 한다. 그런데 감이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에 의해서 길손이 내음을 느낀다. 가는 길에 감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아니냐고 하니 스님은 바람 소리, 딱따구리가 고목 쪼는 소리라고 대답을 한다. 이처럼 스님은 오직 시각, 청각, 후각에 의한 자연의 소리만 열거한다. 스님과 감이는 암자를 오르며 바람을 타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목탁소리와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게 된다. 함께 가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스님이 겨우 목탁 소리를 들었을 때 감이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길손이의 목소리까지 감지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관해 불교에서는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마음(意)의 6근(根)으로 설명한다.¹¹⁰⁾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이러한 감각기관 중에서 귀를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법을 실천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감이도 외부현상의 소리 즉 바람소리나 물소리, 염

110) 남전스님, 「중생들이 갖는 모든 번뇌 상징적 표현」, 『불교신문』 2280호, 2006. 11. 22.

불교에서 번뇌는 우리의 몸에 있는 감각기관이 어떤 외부의 대상과 접촉함으로 생겨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은 6가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6근(根)이라고 해서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마음(意)으로 설명한다. 이 6근은 저마다 접촉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6근이 대상과 접촉하면서 우리의 심리 작용, 행동 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 대상을 6경(境)이라고 하는데 색깔이나 형태(色), 소리(聲), 향기(香), 맛의 요소(味), 촉감의 요소(觸), 마음으로 파악되는 원리(法) 같은 것이다. 6근과 6경이 접촉하면서 상호 작용으로 번뇌가 일어난다. 6근의 상호 작용은 ‘좋다(好)’, ‘나쁘다(惡)’,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無記)’라는 판단으로 나타난다. (6×3=18). 반면에 6경은 ‘괴롭다(苦)’, ‘즐겁다(樂)’,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捨)’는 세 가지 감정을 일으킨다. 여기에서도 18가지의 번뇌가 일어난다(6×3=18). 6근과 6경의 36가지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쳐 모두 108가지의 번뇌를 일으킨다는 것이 간단한 백팔 번뇌 내용이다(36×3=108).

불소리, 그리고 길손이가 세상에 대해 설명하는 말소리들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원통(圓通)의 과정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이의 깨달음의 경지는 심리적으로 볼 때 자아실현의 경지, 승화된 삶의 경지로 볼 수 있다.

암자에 들어서자 길손이가 빨간 맨발로 걸어 나오며 엄마가 오셔서 젖을 주고 함께 놀아주었다고 말한다. 다음에 인용된 부분은 뒷산 관음봉에서 관음보살이 내려와서 말하는 부분이다.

“이 어린아이는 곧 하늘의 모습이다. 티끌 하나만큼도 더 없이지 않았고 덜하지도 않았다. 오직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나를 불렀으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

-중략-

이 아이는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¹¹¹⁾

길손이는 이처럼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불렀기에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욕구를 승화로 이뤄내게 된 것이다. 길손이의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감이 누나에게 전이되었고, 감이 누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관세음보살에게로 전이되었던 것이다. 감이 누나는 길손이가 상실한 간절한 어머니의 품이다. 그 품을 관세음보살에게서 느꼈기에 마음을 다해 부르고 싶었던 아늑한 이상세계이다. 마음을 다해 부른다는 것은 놀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 두렵고 의심되는 마음을 조화롭게 조절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억제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과정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손이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누나에게 스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자아의 인지력, 자신들의 남매를 절로 데리고 갔을 때 스님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판단력, 의지의 대상인 누나와 헤어지면서도 스님에게 유머를 건네는 지적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 등의 심리 작용 발달을 조력하는 자아의 정신 에너지 사용의 역량을 보여준다. 성숙이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다.¹¹²⁾ 이처럼 길손이는 정신 에너지를 이드로부터 끄집어내어 자

111) 정채봉, 앞의 책, p.182.

아가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길손이는 이후에 혼자 있게 되어도 자아를 잘 다스려 승화의 경지에 이르게 됨을 예상하게 된다. <오세암>에서는 길손이가 암자에 50여 일 동안 먹을 것도 없이 혼자 남겨졌지만 자아의 조화와 적응을 위해 고투하고 있었음을 예측하게 된다.

설정 스님의 괴로움과 감이의 슬픔은 길손이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설정 스님은 부처님 공부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감이는 막상 눈을 뜨고 보니 길손이가 설명해 주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이 세상 풍경에 실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망감으로 인하여 감이는 길손이가 더욱 그립다.

이야기에서 감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표면적인 의미인 동시에 마음의 눈을 뜬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에 비해 설정 스님의 수행의 경지는 여전히 눈길인 ‘雪程’에서 머문다. 그러한 마음의 혼란이 ‘설정 스님은 부처님 공부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서술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또한 포구에서 만난 상태에서 수행이 크게 진전이 없이 마음의 갈등이 드나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므로 포구는 사바세계와 해탈 사이에서 번뇌하고 있는 설정 스님의 번뇌의 지점지요, 무의식의 이드와 초자아의 이상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인간의 내면세계다.

<오세암>에서 개별적 인물들의 내면인 자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야기의 구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설화를 모티브로 한 동화이기에 설정 스님의 입장을 결말에서 구태여 밝히고 있다. 오세암 설화에서는 그 특성상 개별 인물의 개성은 드러나지 않고 사건의 전개에 초점을 맞춰 스님의 시점에서 서술해 나간다. 그러다보니 동화에서도 스님의 시점은 시종일관 놓치지 않으려 하며 오히려 주인공인 길손이를 한 동안 놓아 버린다. 그래서 혼자 암자에 남겨진 길손이가 그 이후로 어떻게 자아를 찾으며 고투했는지에 대한 전개에 대하여 논란이 일기도 한

112) 조지 E. 베일런트, 한성열, 앞의 책, p.169.

다.¹¹³⁾ 한 겨울의 깊은 설산에서 먹을 양식도 없는데 5세아 길손이가 50여일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과정은 환상으로 처리되어 이로 인해 이야기의 주제가 다양하게 논의되기도 한다.¹¹⁴⁾ 이러한 논란은 주인공의 자아를 중심으로 한 정신 에너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논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길손이는 어리지만 무의식의 본능에 정신 에너지를 사용하기 보다는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길손이의 정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외부세계를 장님 누나에게 전하기 위해 사고하는 일, 자기 남매를 절로 데리고 갔을 때 스님의 입장을 생각해 내는 일, 암자로 갈 때 흰구름을 동무로 삼고자 하는 일,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어머니의 부재에 대하여 스스로 마음을 달래는 일 등이다. 따라서 <오세암>에서 길손이는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아의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동화로 규정할 수 있다.

2) <강아지 똥>

한국 현대동화 <강아지 똥>의 강아지 똥은 ‘돌이네 흰둥이가 누고 간 똥’이다. ‘골목길 담 밑 구석자리’이며 ‘바로 앞으로 소달구지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곳이다. 자신의 존재가 축복받은 존재거나 아니거나 생명력을 지닌 것의 탄생이란 그 자체만으로 세상에 던져진 분리 불안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 불안을 느끼는 강아지 똥에게 더욱 시련이 가중된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강아지 똥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

113) 박상재, 앞의 책, p.167.

길손이가 혼자 암자에 남겨진 상황에 대하여 위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설악에 아무리 큰 눈이 왔고 미끄러운 빙판길이 가로막더라도, 다섯 살 난 어린 아이가 양식도 떨어진 암자에 혼자 갇혀 있는데 50일 동안이나 아무런 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필연성이 부족해 보인다.’

114) 김용희, 앞의 논문, p.193.

위의 논문에서 <오세암>의 주제를 다섯 살짜리 아이가 맑은 마음의 상태에서 부처님과 같이 해탈한 이야기, 착한 오누이의 눈물겨운 이별의 이야기, 아이가 부처님 품에 귀의하게 되는 변화를 통해 욕심과 거짓과 집착이 없이 세상을 산다는 참의미 등으로 조명한다. 이처럼 주제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은 조명 관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자아의 양상을 중심으로 조명할 때 이러한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재인지를 모른다. 그저 세상에 태어나 추위에 떨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 강아지 똥 곁에 앉더니 주둥이로 콕! 쪼아 보고, 뽕뽕 침을 빨고는,
“똥 똥 똥 ……에그 더러워!”
쫓알거리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강아지 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참새가 날아간 쪽을 보고 눈을 힘껏 흘겨 줍니다.¹¹⁵⁾

참새는 주둥이로 강아지 똥을 콕 쪼다. 강아지 똥이 아직은 무의식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 참새가 강아지 똥을 향해 공격을 한다. 강아지 똥은 느닷없는 참새의 공격에 대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한다. 참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이를 찾아다니는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본능적인 행위가 강아지 똥을 공격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 참새의 공격에 강아지 똥의 이드에 존재하는 파괴본능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게 된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외모나 역할에 관계없이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강아지 똥은 자신의 존재가 똥이라는 것, 더럽다는 것에 속이 상한다. 강아지 똥은 아직은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자아가 조절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나약한 인물로 드러난다.

참새의 공격을 받은 강아지 똥이 화가 나 있을 때 흙덩이가 강아지 똥을 보고 빙긋 웃는다. 강아지 똥이 흙덩이에게 대들자 흙덩이는 강아지 똥을 향해 ‘똥 중에도 제일 더러운 개똥’이라고 빈정거린다. 흙덩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강아지 똥에게 떠넘기게 된다. 자신의 불안이 충동적인 공격욕으로 변한 흙덩이는 강아지 똥을 공격함으로써 불안을 없애고자 한다. 자아는 이드 속에 본래부터 들어 있던 죽음의 본능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공격 본능으로 바꾸는데, 이는 자기 자신이 아

115) 권정생, 앞의 책, p.51.

닌 적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¹¹⁶⁾ 이렇게 자신을 나르시시즘 속에 가두어 둘 때 타인과의 상호관계는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강아지 똥이 화가 나 있는데 또 다른 인물인 흙덩이가 강아지 똥을 보고 웃는다. 강아지 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도 전에 똥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된다. 화가 난 강아지 똥이 자신을 비웃는 흙덩이에게 대어든다. 그런데 ‘똥을 똥이라 앓고, 그럼 뭐라고 부르니?’라는 흙덩이의 말에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할 말을 잃게 된다. 자신의 존재가 ‘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에 저항을 드러낸다.

화가 난 강아지 똥이 흙덩이에게 저항하자 흙덩이는 자신을 돌아본다. 흙덩이는 강아지 똥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고자 한다. 흙덩이는 자신의 불안에 대한 마음으로 강아지 똥을 괴롭혔음을 털어놓는다. 흙덩이가 마음을 열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강아지 똥의 상처 받았던 마음도 풀리게 된다. 강아지 똥의 마음의 변화를 감지한 흙덩이는 강아지 똥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

흙덩이가 나직이,

“강아지 똥아.”

하고 부릅니다. 무척 부드럽고 정답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똥은 못들은 체 대답을 않습니다. 대답은커녕 더욱 알밋다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도둑놈만큼 나빴어.”

흙덩이는 정색을 하고 용서를 빕니다.

강아지 똥은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눈도 깜짝 않습니다.

“내가 괜히 그래 봤지 뭐야. 정말은 나도 너처럼 못 생기고, 더럽고, 버림받은 몸이란다. 오히려 마음 속은 너보다 더 흉측할지 모를 거야.”

흙덩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제 신세타령을 들려주었습니다.¹¹⁷⁾

흙덩이는 자신의 마음 속에도 공격성이 있음을 털어놓는다. 생존하고자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존재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116)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10.

117) 위의 책, p.53.

생명을 지닌 개체는 존재하고자 하는 본능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존재를 위하여 때론 그릇된 생각도 하고 경쟁하는 마음도 가지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존재를 위협하거나 모함하기도 한다. 흠덩이는 이드 속에 들어있던 죽음의 본능을 삶의 본능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격욕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본능의 충동이다. 흠덩이는 강아지 똥에게 그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흠덩이는 강아지 똥에게 ‘내가 괜히 그래 봤지 뭐야. 정말은 나도 너처럼 못 생기고, 더럽고, 버림받은 몸이란다. 오히려 마음 속은 너보다 더 흥측할지 모를 거야.’라고 말한다. 흠덩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이 길바닥에 버려지게 된 것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값이라고 말한다.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흠덩이는 괴로워하고 있다. 이는 흠덩이가 자신의 충동적인 공격욕에 대하여 재조명하며 괴로워함으로써 자아 에너지를 사용하며 성숙을 지향하는 인물임을 살펴볼 수 있다.

강아지 똥은 흠덩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흠덩이의 잘못이 아니라 햇볕이 그토록 따가웠기 때문이라고 위로를 한다. 그러나 흠덩이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며 지금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지게 된 것도 그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한다. 인간은 대체로 한계상황이 되면 타인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이기적인 본능을 갖고 있다. 그러한 이기적인 본능 앞에서 무력한 자아에 대하여 흠덩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흠덩이는 죽음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드의 충동적인 에너지로 행했던 일들을 자아가 반성하게 된다.

"강아지 똥아, 난 그만 죽는다. 부디 너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나 같은 더러운 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니?"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¹¹⁸⁾

흙덩이는 자신이 언제 달구지 바퀴에 치어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 놓인 존재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듯이 죽음 앞에서 삶을 설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죽음에 직면한 흙덩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강아지 똥에게 유언을 하듯이 당부한다. 흙덩이로 인하여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현실을 인식하게 된 강아지 똥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회의적이 된다. 자아가 삶의 본능을 위해 일하는 두 번째 방식은 죽음의 본능을 잘 설득하여 마침내 삶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¹¹⁹⁾ 그러나 그 때 흙덩이는 강아지 똥에게 ‘하느님은 쓸 데 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라는 한줄기 빛이 되는 이야기를 남긴다. 강아지 똥은 흙덩이의 그 말을 가슴에 담아 삶을 새롭게 가꾸어내는 에너지원으로 생각한다. 강아지 똥은 존재의 불안에 대하여 삶은 본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 또 다른 인물인 엄마 닭이 나타난다.

셋노란 열세 마리의 병아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귀여운 아기들의 점심밥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면 기꺼이 제 몸을 내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 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인 걸.”

그러고는 병아리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 버립니다.

“꿀꿀꿀…….”

“삐악 삐악 삐악 ……”

강아지 똥은 또 풀이 죽었습니다.

‘나는 역시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찌꺼기인가 봐.’¹²⁰⁾

강아지 똥은 엄마 닭이 나타나 자신을 들여다보자 병아리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겠다는 각오를 한다. 그러나 엄마 닭은 강아지 똥의 존재에 대한 무용성을 다시 각인하게 한다. 엄마 닭의 말과

118) 위의 책, p.60.

119)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09.

120) 위의 책, pp.65-66.

행동으로 강아지 똥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또 한 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강아지 똥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또다시 삶을 새롭게 가꾸어내는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를 맞고 싹이 난 민들레가 강아지 똥의 헌신적 사랑을 제안한다. ‘너의 몸똥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 속으로 들어와야 해.’라는 민들레의 말을 듣고 강아지 똥은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낀다. 강아지 똥은 그렇게 추구했던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디어 찾게 된다.

그러자 민들레 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하고는 강아지 똥을 쳐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
네가 거름이 되어 줘야 한단다.”
강아지 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너의 몸똥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 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서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야.”¹²¹⁾

강아지 똥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는 기쁨에 민들레 싹을 꼭 껴안는다. 봄비에 잘디잘게 부서진 강아지 똥은 민들레의 뿌리로 들어가 봄이 한창인 어느 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강아지 똥>은 참새와 흙덩이, 엄마닭과의 관계를 통한 거듭되는 시련에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 에너지를 사용한다. 강아지 똥의 이러한 자아의 노력은 민들레꽃을 피우는 일에 조력함으로써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강아지 똥의 자아의 양상은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으로 드러난 현대동화이다.

121) 위의 책, p.69.

V.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방어기제

앞서 4장의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에서 다음과 같은 자아의 세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자아를 의식하게 되는 초기에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각성한 자아가 무의식의 욕망과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시기에는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자아가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외부적 현실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무의식의 욕망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자아의 양상은 자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화의 주인공은 사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으며 방어기제의 작동은 자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주인공의 심리에 어떤 방어기제가 작동되는지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지며, 이후 주인공이 처하게 되는 상황도 달라진다. 이와 같이 동화의 주인공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작동되는 방어기제는 자아의 세 양상에 따른 성숙의 세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초기의 자아의 각성(覺醒)과 방어기제의 유형이다. 둘째,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의 탐색(探索)과 방어기제의 유형이다. 이 시기는 각성한 자아가 무의식의 욕망과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하며 좌충우돌하는 시기이다. 셋째,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실현(實現)과 방어기제의 유형이다. 이 시기는 자아가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외부적 현실의 요청을 수용하여 무의식의 욕망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자아가 이르고자 하는 궁극의 지향점에 이른 시기이다. 이와 같은 자아 성숙의 세 유형은 작품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1.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미숙한 자아는 아직은 무의식의 이드의 욕구 충족에 경도되는 자아의 각성 유형이다. 이때 자아는 무의식의 에너지인 쾌락 세계에 빠져 있다가 엄정한 현실에 부딪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머니의 품 속에 대한 오인의 환상 속에서 깨어나기 싫지만 현실원칙이 자아를 서서히 각성하게 한다. 이때 자아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아 에너지가 필요함을 알지만 자아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못한다. 자아는 필요한 에너지를 이드에서 지원받아야 하므로 이드가 요청하는 바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무의식의 욕구와 현실적 요구의 사이에서 심리적 평형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자아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초보적인 방어기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이러한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회피’의 바다에 빠진 아기별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비닷가에 홀로 피어난 바위나리가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노랫소리를 아기별이 듣게 되면서 발단된다. 아기별이 지상으로 하강하게 된 표면적인 원인을 보며 이면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일은 아기별의 행위를 잘 이해하는 일이다. 바위나리의 울음소리가 아기별의 귀에 들리자 아기별은 자기가 가서 달래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기별은 별나라의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내려간다. 이때 아기별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동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에서 임금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별이 지상의 바닷가로 떠난다는 것은 임금님에 대한 아기별의 억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아기별은 임금님으로부터 기인한 억압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에 말도 하지 않고 바닷가로

떠난다.

‘누가 이러케 슬프게우나 가서 달내주어야겠다’ 하고 임금님에게 단녀오겠습니다 하지도안코 그대로 울음소리 나는곳을 향하여 쭈욱 내려왔습니다.¹²²⁾

아기별은 임금님에 대한 억압으로 탈출구를 찾아내어 ‘누가 이러케 슬프게우나 가서 달내주어야겠다’ 하고 행동화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아기별이 어리다는 이유로 통제하고 억압을 했을 임금님에 대하여 ‘임금님에게 단녀오겠습니다 하지도안코 그대로 울음소리 나는곳을 향하여 쭈욱 내려’움으로써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임금님은 아기별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여기며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님의 태도가 억압으로 느껴진 아기별에게는 바위나리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로 인식된다. 아기별의 마음속에 내재된 억압이 이러한 분출구를 찾음으로써 임금님에 대한 ‘수동공격적 행동(passive-aggressive behavior)¹²³⁾’으로 드러난다.

아기별은 그동안 임금님이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불만을 느낀다. 하지만 아기별에게 있어 임금님은 절대 권위를 지닌 존재이며 거대한 존재로 느껴진다. 아기별은 임금님이 지닌 권위를 지니고 싶어진다. 이제 자신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한 시기에 바위나리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아기별은 슬프게 우는 누군가를 자신이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임금님에게 말하면 또 꾸중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하지 않는다. 아기별은 임금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었던 자신의 마음에는 안정을 되찾고 임금님을 향하여는 무언

122) 마해송, 앞의 책, p.70.

123) 조두영, 앞의 책, pp.39-40.

수동공격적 행동(passive-aggressive behavior)은 당사 스스로 수동적이 되고 피학적이 됨으로써 오히려 남을 괴롭히고 고통 받게 하여, 남들을 향한 공격심을 교묘하게 발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 수술 받고 살면 무엇하니, 젊은 너희들이나 자식들과 잘 살아야지!”라면서 꼭 필요한 수술 결정을 차일피일 끌며, 늘 희생과 고통에 찬 얼굴로 아들과 며느리의 가슴을 곱고 있는 시어머니의 경우이다.)

의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아기별의 심리에는 하늘나라를 떠나 바닷가로 내려가는 ‘행동화(acting out)¹²⁴⁾’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아기별의 수동공격적 행동과 행동화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난 이후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단지 무의식적인 욕구와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아기별은 임금님에게 ‘단녀오겠습니다 하지도안코’ 바닷가로 쭈욱 내려간다.

바닷가로 내려간 아기별은 울고 있는 바위나리를 달래 주고자 한다. 아기별은 잠깐만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으나 바위나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밤새는 줄 모르고 논다. 이처럼 이야기의 표면에는 아기별이 바위나리를 달래주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아기별의 심리를 들여다 보면 오히려 역지사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바위나리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래주고자 했던 아기별은 바위나리와 친구가 된다.

밤이되어 사방이 캄캄해지니까 애기별은 올탯구나 하고 또님금님에게도 아모에게도 말엽시 바다 싸에를 내려갓습다.
바위나리와 애기별은 이러케 밤마다 밤마다 질겁게 놀앗습다.¹²⁵⁾

다른 사람을 먼저 염려하는 이런 태도는 자신이 힘든 상황에 있고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더 걱정하는 인물로 보이게 한다.¹²⁶⁾ ‘사방이 캄캄해지니까 애기별은 올탯구나 하고 또님금님에게도 아모에게도 말엽시 바다 싸에를 내려’간다. 이러한 아기별의 심리에는 외롭다고 울부짖는 바위나리보다 더 큰 외로움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아기별은 바위나리와 ‘밤마다 밤마다 질겁게 놀’게 된다. 아기별은 자신의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에 대한 반동형성(reaction-formation)¹²⁷⁾으로 자신이

124) 앞의 책, p.70.

행동화(acting out)는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충동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125) 마해송, 앞의 책, p.71.

126) 심상교, 「그림(Grimm) 동화에 나타난 악인형 인물 연구」, 『어문학교육』 제38집, 2009, p.200.

127) 조두영, 앞의 책, p.31.

반동형성(reaction-formation)은 억압이 과도하게 일어난 결과 그 반대의 욕구·생각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것이다.

아기별은 임금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바닷가의 바위나리를 만나러 간 것이 하늘나라의 법도를 어긴 행위임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임금님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인 바위나리를 만나서 즐겁게 노는 일에 대치된다. 그래서 울고 있는 바위나리를 잠간동안만 달래 주려고 했던 아기별의 정신 에너지는 변화된다. 바위나리와 더 놀고 싶어서 다른 생각은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밤새는 줄을 모르고 논다.

아기별은 시간이 되면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아기별의 회피는 아기별이 겪었던 불쾌한 경험이나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수용되기 어려운 욕구 등을 무의식 속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행위이다. 아기별은 자아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직은 무의식의 에너지에 지배되는 인물이므로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회피하고자 한다.

아기별도 잠간동안 달내만주고 도라가려고 했었지만 바위나리가 아름답고 귀여워서 바위나리와 갓치 노는것 박게는 아모생각도 엄섯습니다. 다-이저버렸습니
다.

그리고 이악이도하고 달음질도하고 노래도불으고 숨막곡질도하고 밤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습니다.¹²⁸⁾

아기별은 임금님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소극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하여 도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아기별은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일시적으로 도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외적인 상황에 순응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체념해버리게 된다.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치지 못하는 아기별의 내면에는 ‘회피(avoidance)’¹²⁹⁾

을 의식에서 갖게 되는 것이다.
128) 마해송, 앞의 책, pp.70-71.

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그래서 아기별은 ‘바위나리와 갯치 노는것 박게는 아모생각도 엄’게 된다. 아기별의 자아에 회피의 방어기제가 작동됨으로써 임금님과 의 갈등으로 직면해야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이저버’림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기별은 이러한 회피 기제의 매력에 빠져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피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회피의 방어기제가 지속되게 되면 아기별의 자아는 나약해지게 되며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성향이 아기별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아기별은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저항하고 싶지만 외적인 상황에 순응하고 만다. 자아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에 서투른 아기별은 자아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자신을 맡기듯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게 된다.

애기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꽤는 좀 느꼈습니다. 그러치만 병든바위나리를 혼자두고 참아일어나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위나리가 또 ‘나는 켜찬으니 어서가시오’ 하고 재촉을하니까 ‘자-그럼 오늘밤에 또 올테니--’

-중략-

임금님은 눈을부릅뜨고 ‘나가거라’ 소리치셨습니다. 애기별은 무서워서 몸을 바르르 떨면서 ‘용서해주십시오 다지는 밧게 나가지 안겡습니다’ 하고 겨오 님금님압흘 물러나왓스나 병들어서 혼자 괴로워하는 바위나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여지는것 갓했습니다.¹³⁰⁾

아기별은 바닷가의 바위나리에게 가서는 하늘나라의 질서를 잊어버리고 무의식의 충족감에 빠져들게 된다. ‘병든바위나리를 혼자두고 참아일

129) 이무석, 앞의 책, p.199.

회피(回避, avoidance)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 의식적·비의식적 회피가 둘 다 가능한. 때로는 비의식적 회피를 ‘정상적인 좋고 싫음’의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130) 위의 책, pp.72-73.

어나갈수가 업’다. 아기별은 병든 바위나리를 보살펴줌으로써 자신의 존재의식을 느끼게 된다. 아기별은 하늘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충족감을 바위나리에게서 느끼면서 무의식의 아늑함에 머무르고자 한다. 병든 바위나리를 두고 차마 갈 수 없다는 표현에는 임금님의 질서가 억압적인 하늘나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기별은 바위나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은 없다. 아기별은 바닷가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외적인 상황에 순응하는 ‘회피(avoidance)’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아기별이 하늘나라 임금님의 질서를 의식한다면 바위나리에게 더 이상 올 수 없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러나 아기별은 바위나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아가 에너지를 사용하여 판단력을 갖춘 아기별이 아니라 이드의 자기보존본능에 지배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의식의 영역에 정신 에너지가 기울어진 아기별은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아기별의 회피는 공간을 달리하여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바위나리에게 다녀 온 일이 탄로 난 아기별은 임금님이 소리치자 무서워서 떨게 된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인 바위나리를 만나러 가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만 피하여 불안한 심리의 안정을 구하고자 ‘다시는 밧게 나가지 안겠습니다’라고 임금님에게 용서를 빈다. 아기별은 임금님 앞에서는 바위나리와 문제의 문제에 대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물이다. 그런데 아기별의 이드는 바위나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기별은 바닷가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회피의 방어기제로 문제를 덮어두게 된다. 그 가운데 아기별의 이드는 바위나리를 만나러 가고 싶은 충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질서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논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아기별의 자아가 심리조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무의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배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기별은 그러한 용기와 지혜

와 논리를 갖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애기별은 날마다 밤마다 바위나리 생각만하고 울었습니다. 엇더케든지 한번 가보고 심혼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려갈수는업고…… 소리를 질러 울고심흐나 그도 임금님과 여러별들이 듯겻스니까 울수도업고…… 다만소사나오는 눈물만은 엇지할수 업서 눈에는 눈물이 끈칠사이가 업섯습니다.¹³¹⁾

아기별은 임금님에게 억압을 느끼지만 억압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애기별은 날마다 밤마다 바위나리 생각만하고 울’고 있다. 바위나리를 보고 싶지만 ‘엇더케든지 한번가보고 심혼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려갈수는업’기에 울고만 있다. 아기별은 임금님에게 저항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기별의 자아가 이와 같이 아버지의 권위와 억압에 대처할 자신이 없으므로 문제에 대한 무의식의 회피 기제가 작동된다. 아기별이 회피의 기제에 정신 에너지가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형식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아기별의 문제는 지속되게 된다. 반복되는 문제 상황에도 아기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회피(avoidance)’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는 것이다.

문제는 아기별이 회피의 방어기제에 정신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자체가 아니다. 자아의 안정을 위해서 회피의 기제가 작동될 수도 있다. 비록 자아의 안정을 위해서 회피의 기제가 작동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자아가 무력해져서는 안 된다. 자아는 에너지를 배분받아서 문제에 대하여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등의 자아의 심리작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기별은 자아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을 경감하는 진정한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이야기가 진행된다. 아기별은 결국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임금님에게 쫓겨나서 바다에 떨어진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는 주인공인 아기별이 회피의 기제에 집중적으로 정신 에너지가 배분되고 있으며 그 외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아기별

131) 위의 책, p.74.

의 심리적 기제인 회피,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는 미숙한 단계의 방어 기제이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은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억압을 느끼고 있다. 그러한 억압의 원인은 아기별의 마음에서 오는 불안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사람에게서는 억압이 인격 발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자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억압이 작동되는 모습은 각기 다르다. 이 이야기에서 아직 어린 아기별은 무의식의 정신 에너지에 사용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아기별은 세상과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하고 평소에 소심하여 세상과의 소통 또한 소심하다. 그러다 보니 행동이 어색하고 불안하다. 자아를 억압하고 있는 아기별은 억압에 많은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러한 아기별의 억압은 하늘나라 임금님의 억압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라질 수 없다. 억압은 위협의 원천이 사라지면 자연히 소멸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기별의 자아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억압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 아기별이 억압을 효율적으로 다룰 때 자아는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여 인격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아기별의 자아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억압으로 인하여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 회피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아기별은 자아의 불안을 경감하는 진정한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이야기가 진행된다. 결국에는 임금님에게 쫓겨나 바다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의 결말에 이른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하늘나라 임금님으로부터 억압을 느낀 아기별은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욕망한다. 그 과정에서 아기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아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피의 방어기제에 에너지를 묶어 두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자아의 심리 발달을 저해하게 되는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에 관한 동화이다.

2) ‘상징화’된 화가의 꿈 사진

꿈과 문학은 무의식의 욕망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꿈의 작업’에 관한 분석에서 강조한 여러 특징은 문학 기법으로부터 직접 발상을 얻은 것이거나, 적어도 문학 기법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¹³²⁾ 꿈의 작업에서 전치(displacement)¹³³⁾, 압축(condensation)¹³⁴⁾, 상징화(regression)¹³⁵⁾ 등의 자아방어기제가 나타나며 이러한 꿈의 내용은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한 생각의 잔재 즉 사진에서 보았던 고향친구와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함께 놀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한다.¹³⁶⁾

<꿈을 찍는 사진관>의 잠재몽은 사진에서 보았던 고향친구와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함께 사진을 찍은 꿈이다. 이는 잠재몽의 원인 중에서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한 생각의 잔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꿈을 찍는 사진관>에 나타난 꿈을 중심¹³⁷⁾으로 한 전치, 압축, 상징화 등의 방어기제에 관하여 구체적 이야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치는 꿈에서 어떤 인접한 요소가 전달한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될 의미를 대수롭지 않은 요소에 부여하는 것이다. 수사학에서 환유(換喩)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해서 담론의 기표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보면 그것과 인접한 다른 기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유사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¹³⁸⁾

132) 막스 밀네르, 앞의 책, p.63.

133) 조두영, 앞의 책, p.33.

전치(displacement)는 실제로 있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감정이 그대로 대리물에게 향하는 것이다.

134) 위의 책, p.43.

압축(condensation)은 이미지 수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소망 충족 환상으로 묶는 것이다.

135) 위의 책, p.35.

상징화(regression)는 어떤 대상이나 사념(思念)을 대변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사념을 내세우는 것이다.

136) 위의 책, p.42.

137) 이무석, 앞의 책, p.204.

꿈을 통한 방어기제

꿈에는 잠재몽과 발현몽이 있으며 잠재몽은 발현몽을 일으킨 무의식적 근원이며 발현몽은 꿈에 본 내용이다. 잠재몽이 변형되어 나타난 파노라마인 발현몽을 분석하여 잠재몽을 발견하는 일의 꿈의 분석이며 꿈을 통한 방어기제에는 전치, 압축, 상징화, 퇴행 등이 이에 속한다.

사실 당신과나 말이지만,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문명을 자랑해서 ‘텔레비존 시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비하면, 그까짓 게 다 무엇입니까?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¹³⁹⁾

화자는 꿈 속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하여 현실의 이야기를 ‘저 세상 사람들’이라고 서술한다. 화자는 문명이 지배하는 현실 원칙을 벗어난 쾌락 원칙의 꿈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화자는 문명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문명은 현실원칙에서 비롯된다. 아버지는 현실원칙이요, 사회의 법이요, 문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현실원칙을 받아들이려 해도 한 번 맞본 지복의 순간을 잊지도 포기하지도 못하는 데 있다. 유아기에 경험한 최초의 성은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늘 그 그들 속에서 대상을 찾고 그녀가 아닌 것을 알고는 실망하지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던 그 때 그녀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것이 삶의 허무와 존재의 결핍을 낳는 비극의 근원이다.¹⁴⁰⁾ 오늘의 물질문명인 텔레비전은 화자의 문명에 대한 저항적 시각의 대표적인 예로 나타난다. 텔레비전이 현실에서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을지라도 인간의 저변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에로스의 욕망까지는 온전히 지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화자는 꿈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지금 하고자 한다. 화자의 무의식에는 어머니 또는 고향에 대한 복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꿈을 찍는 사진관> 동화에서 화자인 나의 심리에는 전치(displacement)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그래서 고향의 품 속으로 귀환하고 싶은 화자의 욕망은 문명으로 전치되어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저항의식을 문명의 대표적 산물인 텔레비전에 빚대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욕망에 관하여 과학적 정당성으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꿈 쪽에서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문학 쪽에

138) 막스 밀네르, 이규현 역, 앞의 책, p.64.

139) 강소천, 앞의 책, p.30.

140) 권택영, 앞의 책, p.175.

서는 의식의 움직임이 문제된다. 한 쪽에는 프로이트가 일차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과정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의식이 개입하는 이차 과정이 있다.¹⁴¹⁾ 자신의 신체를 조정하는 자아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인식해 낼 수 있는 기계 생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기표들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화의 연장선상에 프로이트가 꿈의 작업에서 연구했던 무의식에 관한 압축과 전치가 은유와 환유로 대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꿈의 해석을 위한 압축과 전치된 이미지인 은유와 환유는 결코 기표로 기의를 대신할 수 없는 이미지다. 꿈 사고의 풍부함은 의식의 검열 작업으로 인하여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압축되어 나타나거나,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전치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치와 압축의 과정을 의식적인 메커니즘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식으로 무의식을 조정하려 들은 개의 꼬리로 개의 몸통을 흔들려는 우와 같은 이치다. 이것은 또한 동화가 구현할 수 있는 환상의 세계가 비과학적이며 황당무계함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동화가 서론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꿈을 찍는 사진관이 소재한 환상 공간은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계인 사진기로 인간의 무의식까지도 조정하려 들은 동화의 리얼리티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더러 의식적인 상황에서도 무의식의 강력한 에너지에 지배되거나 전복될 수 있다. 그런데 무의식적인 꿈이라는 상황에서 의식이 작동하여 무의식을 조정하려는 일은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신 에너지의 부적절한 상황을 드러낸다.

이야기의 화자가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일’은 표면적으로는 낙원으로 돌아가고픈 갈망의 한 방법인 꿈을 찍는 일이다. 그런데 화자의 소망충족으로 나타난 꿈을 찍는 일은 잃어버린 추억에 대한 회상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고향의 품 속으로 귀환하고 싶은 화자의 욕망 그

141) 막스 밀네르, 이규현 역, 앞의 책, p.65.

자체가 전치되어 나타난 이야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의 하나는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라는 것입니다.¹⁴²⁾

추억이란 상실된 것의 복원을 기원하는 마음이다. 고향에 대한 추억을 향유하려는 일은 일종의 퇴행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애뜻함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뜻함을 배가시킨다. 인간의 성장은 시간의 상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성장의 과정에서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볼 때 위안이 된다. 역으로 추억을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더욱 배가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하여 나의 내면에는 방어기제 ‘전치(displacement)’가 작동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의 하나는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으로 전치된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사의 시간에는 과거의 회상시간이 있다. 지나버린 시간들 속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회상하는 일은 잃어버린 것들을 복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모든 꿈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이다. 비록 변장하고 있을지언정 꿈 속에서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자기가 등장한다. 꿈 속에서 채워지는 소망은 언제나 자기의 소망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꿈을 불러일으킨 것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다.¹⁴³⁾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주인공인 나의 소망에 대한 복원의 욕망이 전치되어 드러나고 있다.

꿈에서 압축은 공통의 성격을 지닌 여러 인물 또는 여러 사물이 하나의 심상으로 융합하는 현상, 또는 심지어 서로 다른 현실을 가리키는 여러 낱말이 단 하나의 낱말로 융합하는 현상이다.¹⁴⁴⁾ 동화에서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동경의 마음은 내가 순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융합

142) 강소천, 앞의 책, p.30.

143) 프로이트, 민희식 역, 앞의 책, p.90.

144) 막스 밀네르, 이규현 역, 앞의 책, p.63.

되어 나타난다.

샘처럼 솟아오르는 지난 날의 추억들.

정말, 내가 민들레와 할미꽃을 좋아 하는 까닭도 순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순이의 그 노랑 저고리가 어찌면 그 때 내 마음에 그렇게도 예뻐 보였을까요?¹⁴⁵⁾

융합은 또한 작가의 현실원칙에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실향의 마음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지복의 충만한 시기였던 유아기의 행복감을 상실한 작가의 무의식에는 복원 불가능한 지복의 시기에 대한 동경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의식 속에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지난 날의 추억들.’이 압축되어 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동경의 마음은 무의식에 고스란히 뿌리를 틀고 앉아 틈만 나면 의식의 빗장을 뚫고 나오려고 한다. ‘정말, 내가 민들레와 할미꽃을 좋아 하는 까닭도 순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의 무의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순이에 대한 추억으로 방어기제 압축(condensation)이 작동된다.

<꿈을 찍는 사진관>은 동화의 환상성과 접목하는 방법으로 꿈을 활용하여 꿈 속에서 소망을 충족하는 구성을 가진 이야기이다. 샘처럼 솟아오르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현실에 의해 강제되고 억압되어 무의식으로 밀려나 있다가 의식의 빗장이 느슨한 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수많은 그리움은 순이라는 대상적 이미지 압축으로 드러나게 된다. 모든 그리운 사람들의 중앙에 노랑 저고리의 순이가 위치하고 있다. 노랑 저고리의 순이는 민들레꽃의 사랑스러운 이미지, 꿈 많은 어린 시절의 생기발랄한 역동성, 대지의 기운을 타고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다. 더욱이 화자인 내가 순이를 그리워하는 실향 또는 잃어버린 낙원의 복원에 대한 염원이 압축되어 노랑저고리의 순이로 표현된다. 화자인 내가 타향의 현실에서 지나버린 어린 시절의 시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압축하여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가 노랑저

145) 강소천, 앞의 책, p.34.

고리의 순이다. 그러므로 민들레꽃의 노랑과 노랑저고리의 순이는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복원의 염원이 압축되어 드러난 소망충족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화자는 고향의 풀 한포기인 민들레와 민들레를 닮은 순이와, 순이와 함께 보냈던 유년의 기억이 압축되어 꿈으로 드러나게 된다.

상징화(regression)는 유비(類比)에 바탕을 둔 형상화로 말하자면 은유와 근사하게 비교될 수 있다. 은유는 담론에서 한 기표를 환유의 경우처럼 인접한 것이 아니라, 처음의 기표와 유사성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표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수단은 직유와 은유를 추적하는 시인의 표현수단과 같이 재현된다.¹⁴⁶⁾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5리>

-중략-

<꿈을 찍는 사진관은 여기서 남쪽으로 5리 되는 곳으로 옮겼읍니다.>

-중략-

서쪽으로 5리라고 써어 있었읍니다.

-중략-

마침내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것입니다.¹⁴⁷⁾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숫자 5와, 방위에 관하여 유사성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환상의 욕망 공간을 추구하게 된다.

첫째,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가는 길의 5리에 관한 숫자 상징이다. 위에 인용된 예에서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가는 길이 동쪽과 남쪽, 서쪽으로 각각 5리의 지점에 있다. 또한 화자가 마음 속에서 늘 동경하고 있는 순이와 헤어진 것이 소학교 5학년 때이다. 위에 인용된 예에서 숫자 5의 상징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의 수와 관련한 인류학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수는 단순히 무언가를 셈하고 계산하는 기능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수많은 서사를 엮어내는 일

146) 막스 밀네르, 이규현 역, 앞의 책, p.65.

147) 강소천, 앞의 책, pp.27-28.

을 담당하는 ‘문화적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야기에서 인용된 숫자 5는 달리 표현하면 2와 3의 합이다. 숫자가 상징하는 바 1은 모든 단위의 기본이 되는 절대수이며 시작과 출발을 상징하는 수이다. 2는 짝수의 맨 첫 번째 오는 수로서 여성을 상징하며 3은 기본 단위가 되는 1을 제외한 홀수로서 첫 번째 오는 수이므로 남성을 상징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이 조합하여 이루어진 숫자 5는 조화로운 공간, 통합된 의미를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문화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수의 듀얼리즘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수(奇數), 남(男), 좌(左), 성(聖), 길(吉), 동남(東南)이 일정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한 무리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고 이와는 상대적으로 우수(偶數), 여(女), 우(右), 속(俗), 흉(凶), 서북(西北)이 또 다른 한 무리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게 된다.¹⁴⁸⁾ 그러므로 기수로서의 홀수 5에서의 통합적 관점은 화자의 주체적 관점에서의 통합이요 문화적 관점에서의 우월적인 남성적 측면을 상징하게 되어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되기도 한다. 이야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조화롭고 이상적인 상징화의 세계는 화자인 남성의 관점에서 그림고 보고 싶은 고향인 대지와 어머니의 품과 그러한 욕망이 압축된 노랑저고리의 순이를 볼 수 있는 세계이다.

둘째,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가는 방위에 관한 상징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방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방위의 기본 축인 동서남북을 활용하면서 북쪽으로 가는 방향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 동화의 3회 반복의 법칙과 관련한 서술이다. 1회에서 동쪽으로 5리, 2회 반복에서 남쪽으로 5리, 3회 반복에서 서쪽으로 5리를 가게 된다. 동화에서 이러한 3반복의 원칙이 시간의 축을 따라서 전개되는 동안 상실/상실의 회복 등과 같은 듀얼리즘의 사건의 진행을 돕게 된다. 이것이 동화의 거시적인 서사 진행원리다.¹⁴⁹⁾ 둘, 물리화적인 측면에서도 북쪽으로 5리를 더 가게 되면 출발한 지점의

148) 김열규, 「한국인의 수(數) 개념의 신비」, 『기호학 연구』 제14집, 한국기호학회, 2003, p.199.

149) 김열규, 위의 논문, p.211.

동일선상에 위치하게 되어 이동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즉 출발한 지점에 다시 회귀하게 됨으로써 동서남북을 돌아다닌 일이 무의미한 방황이 되고 만다. 셋, 동쪽과 남쪽의 방향에 비해 서쪽과 북쪽의 상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꿈 속의 가상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 서쪽이 효과적이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나의 무의식에 이와 같이 숫자 5와, 방위에 관한 ‘상징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 제시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쪽 방향 즉 좌측 공간에 놓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좌측은 여성, 속(俗)을 상징하며 그곳은 곧 어머니의 품 속, 상실한 고향, 잃어버린 낙원이 존재하는 공간을 상징한다. 숫자 5와 방위의 상징화는 꿈을 찍는 사진관의 건물에 대한 색깔로 이어진다.

벽과 창문만이 아니라 지붕까지 새하얀 집— 다만 정문에 커다랗게 써 붙인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일곱 글자만이 파아란 하늘 빛이었습시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들어 오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 왔습시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시다. 하늘빛 파란 까운을 입은 점잖은 신사 한 분이, 하늘빛 파아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으며, 회전 의자에서 일어났습시다.

-중략-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의 지난 날의 ‘추억’의 한 토막을 써서, 그 걸 가슴 속에 넣고 오늘 밤을 주무시오.¹⁵⁰⁾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나는 잃어버린 추억을 복원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는 흰색과 파란색의 상징으로 드러난다. 동화의 자아가 소망을 충족하는 과정이 흰색과 파란색의 상징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꿈을 찍는 사진관의 흰색에 관한 상징이다. 새하얀 집의 흰색은 무언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색의 상징이다. 그래서 천사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흰색을 나타내기도 하며 신부의 웨딩

150) 강소천, 앞의 책, pp.28-32.

드레스도 흰색으로 신비감을 더하고자 한다. 서양의 대표적인 환상동화라고 일컬어지는<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흰색 토끼 또한 환상세계의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도 벽과 창문만이 아니라 지붕까지 새하얀 집으로 되어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흰색은 어떤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며 기쁨 있는 이상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색의 상징이다. 그리고 흰색은 잃어버린 추억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감정적 회상을 유발하는 색이기도 하다. 화자는 새하얀 사진관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추억을 복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흰색의 상징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둘째, 파아란 하늘빛, 하늘빛 파란 가운, 하늘빛 파아란 안경 등의 파란색의 상징에 관한 것이다. 파란색이 상징하는 것은 이완, 차가움, 청명, 고요, 희망, 젊음, 우울, 그리움, 동경 등을 상징한다. 색채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파란색이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색이라고 말한다. 또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매마른 현실세계로부터의 도피처를 마련하여 포근한 안식처를 마련하고자 한다.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상황에서의 하늘빛 파란 가운은 화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색상의 상징화로 나타난다. 더욱이 파란색은 성인들에게 유년의 추억을 되살려 주는 데 조력하는 상징화된 색이다. 그러므로 상실된 유년의 추억을 복원하고자 꿈을 꾸고 그 꿈을 찍으려는 화자에게 파아란 하늘빛, 하늘빛 파란 가운, 하늘빛 파아란 안경 등의 파란색으로 가득한 <꿈을 찍는 사진관>은 유년에 대한 동경의 상징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의 무의식에는 잃어버린 추억을 복원하고자 하는 하얀 소망을 하늘빛 파란 가운으로 안정시키고자 ‘상징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흰색과 파란색의 색깔에 관한 상징은 꿈을 찍는 사진관에 소재한 방들이 온통 홀수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소망 충족인 꿈을 찍기 전까지는 그 공간 자체도 아직은 화자에게 낯선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방 번호가 모두 홀수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상징을 연

상하게 한다. 수치(數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수치(數値)와는 달리 ‘수의 의미의 가치’란 뜻의 수치가 이럴테면 문화적 수치가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점은 ‘문화의 수’를 말하게 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인류학에서 기수/우수의 듀얼리즘은 다른 듀얼리즘, 예컨대 좌(左)/우(右)의 듀얼리즘과 더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를 던진다. 뿐만 아니다. 때로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수/우수의 듀얼리즘은 음/양의 듀얼리즘 또는 남/녀의 듀얼리즘, 더 나아가서는 성(聖)/속(俗)의 듀얼리즘과 그리고 길/흉의 듀얼리즘과 겹쳐서는 까다로운 말썽거리가 되기도 한다.¹⁵¹⁾

1호실 다음엔 3호실, 그 다음이 5호실, 바로 그 다음이 7호실입니다. 어쩌면 사진관이 꼭 여관집과도 같습니까. 나는 그제야 이 집의 방 번호는 모두 홀수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¹⁵²⁾

‘1호실 다음엔 3호실, 그 다음이 5호실, 바로 그 다음이 7호실’이다. 야기에서는 온통 홀수의 세상이요 기수의 세상이다. 이러한 홀수의 세상은 냉혹한 현실세계, 문명화된 세상, 아버지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 현실에서 화자는 6.25로 인하여 보고 싶은 순이를 볼 수 없다. 또한 38선으로 인하여 고향에도 결코 갈 수 없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의 공간에서 화자는 현실의 방랑자가 되어 무의식의 꿈으로 이상화된 낙원과 문명으로 덧칠되어지지 않은 순수의 세상과 어머니의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충족을 상징한다. 이야기의 꿈을 찍는 사진관 방 번호는 모두 홀수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사진관의 소재 위치에 나타난 숫자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이 동쪽으로 5리, 남쪽으로 5리, 서쪽으로 5리의 지점에 있다는 홀수 중심의 문화의 상징과 맞닿아 있다. 이는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다. 이와 같

151) 김열규, 앞의 논문, pp.210-211.

152) 강소천, 앞의 책, p.29.

이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주인공의 심리에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홀수 '상징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이로 인하여 이야기에서 복원하고자 한 소망 충족의 세계는 완전히 통합된 세계가 아닌 남성이 중심이 된 또 다른 문명세계이다. 정신 에너지로 볼 때 무의식의 세계에서 또 다른 의식세계를 구현한다.

<꿈을 찍는 사진관>은 이처럼 꿈을 통한 방어기체인 전치, 압축, 상징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 이러한 방어기제가 꿈 속에서 일어난 소망 충족에 관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내가 처음 앉았던 뒷동산에 와 앉아 다리를 쉬며 가슴 속에 간직했던 사진을 꺼냈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넣었던 곳에서 꺼냈는데 내가 사진관에서 받아든 순이와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 하는 동화집 갈피 속에 끼어 있던 노오란 민들레꽃 카아드였습니다.¹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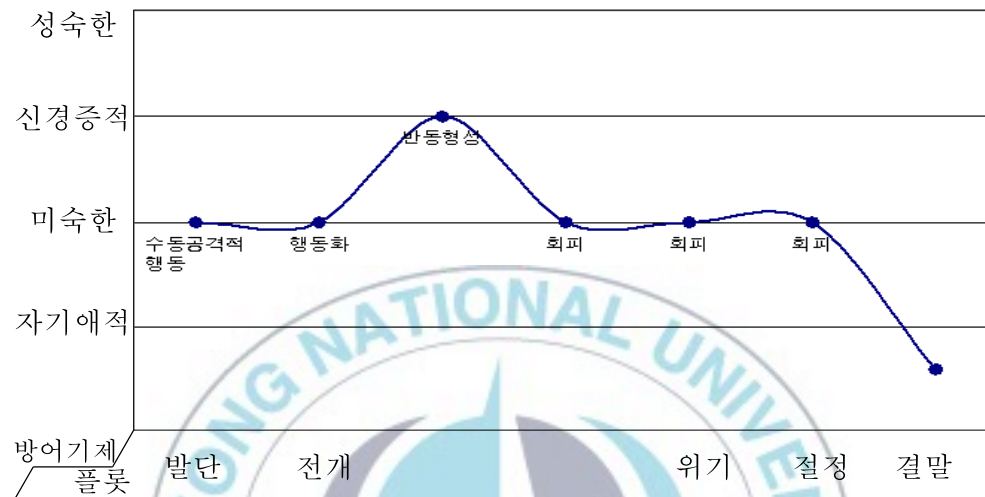
주인공의 무의식에 내재된 유아기의 소망인 잃어버린 고향, 그리운 순이에 대한 향수를 꿈을 통해 충족하고자 한다. 꿈은 무의식의 정신 에너지이므로 인간이 의식으로 꿈을 다룰 수는 없다. 잠을 자는 이가 꿈을 꾸는 일에 관해 주인공은 무의식의 정신 에너지를 의식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소망 충족을 위해 현실을 조정한 하나의 환각 또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식의 언어로 무의식의 영역을 다루는 일은 진정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 인간의 정신 에너지는 자아가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꿈을 찍는 사진관>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의 유형이다.

3) 小結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바위나리

153) 강소천, 위의 책, p.37.

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의 내면에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관하여 동화의 플롯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방어기제와 정신 에너지 흐름

위의 [그림 2]에서 아기별은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 반동형성, 회피의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아기별의 심리에 가장 집약적으로 작동되는 방어기제는 회피이다. 쾌락세계에 빠져 있던 아기별이 현실원칙을 인식하게 되면서 불안과 갈등을 함께 인식하게 된다. 아기별의 자아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주관적 자아의 욕망과 객관적 현실사이의 아득한 거리를 인식하며 불안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기별은 아직은 주관적 자아가 객관적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초보적이다. 그러므로 아기별은 미숙한 방어기제인 회피가 작동되며 자아를 불안에서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숙한 방어기제인 회피의 기제가 지속적으로 작동됨으로써 자아를 오히려 더욱 불안하게 만들게 된다. 합리적인 자아의 에너지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한 아기별은 무의식의 더 깊은 본능의 세계로 빠져들어 버린다. 바다에 빠진 아기별의 무의식의 영역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영역이다.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은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한다. 깊은 바다에 빠진 아기별의 경우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가 삶의 본능을 위해 깨어나지 못하면 개체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위의 [그림 2]에 나타난 결말의 결과와 같이 위기의 무의식의 바다에 빠진 아기별은 자칫 삶의 본능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죽음의 본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주인공 ‘나’의 심리에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관하여 동화의 플롯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꿈을 찍는 사진관>의 방어기제와 정신 에너지 흐름

<꿈을 찍는 사진관>은 꿈을 소재로 한 동화이다. 따라서 꿈을 통한 방어기제인 전치, 압축, 상징화가 작동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어기제는 꿈이 아닌 경우에는 신경증적 방어기제로 분류된다. <꿈을 찍는 사진관>은 의식의 영역을 무의식의 영역인 꿈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므로 정신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잠을 잘 때는 자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사고(願望思考)의 1차적 심리작용이 일어나게 된다.¹⁵⁴⁾ 자아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이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드는 직접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줄

154) 켈빈 S. 홀, 백상창 역, 앞의 책, p.81.

때 자아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욕구 충족이 불만족스러울 때 자아에 지원되었던 에너지는 다시 이드로 유입되고 자아는 합리성을 잃게 된다. 이는 꿈을 통해서 일어나는 원망충족과 같다. 꿈에서는 의식적인 자아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인 꿈으로 흘러들어가서 이드가 욕망하는 것들이 이미저리가 되어 나타난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는 의식적인 자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서 유치한 원망충족을 하게 된다. 꿈을 통해서 잃어버린 유년의 고향, 고향의 그리운 순이를 만난다. 그런데 무의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지원받는 자아가 역으로 무의식의 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설정은 무리이다. 설령 무의식의 원망충족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꿈에서 깨어나면 충족은 현실에서의 욕구로 환원된다. 그래서 꿈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자아의 욕구는 그대로 남겨진다. 이로 인하여 나는 현실세계에서는 허탈감과 더불어 그리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원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고는 자아를 주관에 빠트리거나, 객관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동화에서는 꿈을 통한 방어기제인 전치, 압축, 상징화의 기제가 작동되고 있지만 이는 깨어있는 상태의 방어기제와는 정신 에너지 작동이 같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결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의 에너지는 합리성을 잃고 유치한 원망충족의 상태 이드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원망사고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대부분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 155)이와 같이 꿈을 통한 방어기제는 정신 에너지가 이드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므로 모호성을 내포하는 작품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에 나타난 정신 에너지의 사용과 동화의 자아 유형 구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55) 앞의 책, p. 82.

[표 1]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 및 정신 에너지 사용

구분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꾀는 사진관		자아 양상	자아 유형
	방어기제 종류	정신 에너지 사용	방어기제 종류	정신 에너지 사용		
자기애적 방어기제		X		X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는 자아	자아 의 각성
미숙한 방어기제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 회피	●		X		
신경증적 방어기제	반동형성	○	전치, 압축, 상징화	○		
성숙한 방어기제		X		X		

※ 정신 에너지 사용여부 : ●=집약적 사용, ○=제한적사용, X=사용안함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은 미숙한 방어기제인 회피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사 이전의 어머니의 품 속, 아늑한 상상계의 환상에 빠져 있다가 서사에서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질서세계를 의식하게 된다. 외부의 질서세계에서 아기별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숙한 아기별이기에 회피의 기제가 작동되지만 결국 무의식의 더 깊은 세계로 빠져 들고 마는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의 동화이다.

<꿈을 꾀는 사진관>에서 주인공 ‘나’는 꿈을 통한 방어기제인 전치, 압축, 상징화가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방어기제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분류될 때는 신경증적 방어기제이다. 그러나 꿈은 무의식의 원망충족의 현상이므로 의식 영역의 자아는 에너지를 지원받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꿈을 통하여 전치, 압축, 상징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더라도 그것은 정신 에너지 영역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주인공인 ‘나’가 꿈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을 찾고 그리운 순이를 만났을지라도 현실적인 귀향이나 그리움의 원망충족은 존치한다. 이야기의 결말은 다음과 같

다. ‘분명히 내가 넣었던 곳에서 꺼냈는데 내가 사진관에서 받아든 순이와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동화집 갈피 속에 끼어 있던 노란 민들레꽃 카드였습니다.’ 이러한 결말에서 살펴보면 주인공 ‘나’는 결국 방어기제 작동 이전의 무의식의 욕망으로 환원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꿈을 찍는 사진관>은 꿈을 통한 방어기제가 작동되어 자아 에너지를 지원받으려고 하지만 무의식으로 환원되는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의 동화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은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의 동화이다. 이 유형에서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각성 유형을 보인다. 그러나 자아의 이 초기 유형은 다음 유형인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로 정신 에너지가 이동되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

2.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는 무의식과 자아와 초자아의 와중에서 정신 에너지의 혼란을 드러내는 유형이다.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자아는 초기의 각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의식의 욕구만을 따르는 일이 오히려 자아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다. 자아의 각성에서 보다 분별력이 형성된 자아는 현실적 외부환경 등의 요청에 정신 에너지를 배분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 에너지를 배분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때로는 쾌락원칙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원칙에 지배당하기도 하면서 혼란을 겪는다. 자아는 욕망충족과 현실과 외부의 요청에 대한 완전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야 평정심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아의 각성에서 무의식의 힘을 자아로 끌어내는 에너지의 부분적 흐름을 익혔다 할지라도 자아의 탐색과 에서는 성숙한 자아로 이끌기 위한 다음 유형의 접근법에 초보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자아는 심리적인 갈등과 고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성

숙한 자아를 지향하며 자아에 에너지를 더욱 투입하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에서는 자아의 각성을 지나면서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갖춘 자아가 성숙의 의미를 깨닫는 상황에서 이야기의 결말에 이른다. 이처럼 자아의 탐색과 예서는 자아가 성숙으로 가는 경계지점을 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확실한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러한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아프리카 새깅디>, <고물 자전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행동화’의 통찰로 성숙되는 나

<아프리카 새깅디>의 주인공은 6학년인 나다. 주인공 나와 대비되는 인물로 ‘상준’이가 등장하는데 상준이는 청색증을 앓는 장애인이라서 지적 수준이 많이 뒤떨어지는 인물이다. 상준이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상준이 앞에서는 더욱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나의 우월감과 는 아랑곳없는 상준이는 나를 화나게 한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상준이가 또 말썽을 부린다. 우리 집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풀어내는 상준이에 대하여 나는 분노가 끓어오른다. 상준이는 왜 하필 남의 집 화장지를 가지고 그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준이가 화장지를 풀어내는 행동을 보면 화가 치민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상준이가 또 말썽을 부리고 있다. 우리 집 화장실의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내며 아파트 공사장 쪽으로 뒹뒹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걸음을 떼 놓을 적마다 녀석의 옆구리에 달린 빨간 복주머니가 달랑거린다.

“야, 서상준! 너 거기 안 서?”

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내 속을 발각 뒤집어놓으며 녀석이 귀머거리처럼 저렇게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뜨려 짓밟아버리고 싶은 게 솔직한 내 마음이다.

그렇지만 나는 책가방을 얼른 현관에 던져놓고 하얗게 끌려가는 화장지 옆을 스쳐지나 상준이를 붙잡는 것으로 분통을 삼켰다.

“너 벌써 다섯 번째야. 왜 또 우리 집 화장지 풀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엉? 화장지하고 무슨 원수졌니? 말해봐, 새끼!”

“.....”¹⁵⁶⁾

나는 상준이가 나보다 인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부족한지는 알지 못한다. ‘우리 집 화장실의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내며 아파트 공사장 쪽으로 뒤통뒤통 걸어가고 있는’ 상준이는 자아의 분별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 상준이의 행동에서 드러난 인지적 수준은 화장지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 집 화장질 풀어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벌써 다섯 번째다. 이와 같이 상준이는 아직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무의식의 에너지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상준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래서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 주관과 객관이 구분지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사춘기 시기인 6학년으로서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는 아이다. 이에 비해 나는 이전의 주관과 객관이 일치한다고 믿었던 환상에서 자아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으며, 사회화 또는 문명화가 되어가는 단계에 있다. 나는 상준이도 나와 비슷한 생각과 판단을 하리라고 여긴다. 따라서 상준이도 당연히 남의 집 화장지는 함부로 풀어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상준이의 행동은 나의 신경을 건드리기 일쑤다. 이로 인하여 나의 심리에는 ‘행동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되어 상준이에게 화를 내게 된다.

상준이가 의도적으로 나의 신경을 건드리려는 목적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사회화를 향한 과도기에 처한 내가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는 상준이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고, 세상의 시비를 판단하는 안목이 아직은 미숙한 성숙 단계의 자아의 양상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상준이의 판단력이 나와 다름을 아직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사회의 질서를 인식하고 남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상준이도 마땅히 우리 집 화장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상준이의 행동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치미는데 상준이는 나

156) 서하원, 앞의 책, pp.82-83.

를 약 올리듯이 옆구리에 달린 빨간 복주머니를 달랑거리며 달아난다. 상준이가 달아난다고 본 것은 상준이의 행동에 대한 나의 추측이다. 그런데 상준이는 남의 화장지를 함부로 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여 달아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화난 모습을 보이자 상준이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낌으로써 자아보존본능에 의해 살아남기 위해서 달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준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아보존을 위한 절박한 행동이다. 결코 나에게 약을 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상준이를 지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우리 집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풀어가지고 도망가는 일에 화가 치민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상준이에 대한 행동화로 드러난다. 더구나 집안에는 다른 사람도 없다. 상준이에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될 상황이다. 나는 상준이에게 다그치고 협박하며 분통을 삼킨다. 상준이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상준이 때문에 치밀어 오르던 긴장된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상준이를 붙잡아 다그치는 행동화를 드러내게 된다. 나는 행동화로도 상준이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해소되지 못한다.

나는 상준이네가 이사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집에 ‘누군가 이사를 올 거라면 내 또래의 여자 아이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준이네가 이사를 온 것이다. 상준이는 내가 기대했던 여자 아이가 아니다. 게다가 지적 수준이 못 미쳐 학교에도 안 다니는 아이다. 그래서 나는 상준이가 우리 집에 이사 오던 날부터 불만이 가득하다. 나에게서는 상준이의 존재 자체가 불만이다. 가만히 있어도 상준이가 미운 지경이다. 그런데 상준이는 날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벌이고 다닌다. 우리 집 화장지를 풀어낸다든지, 나를 졸졸 따라다닌다든지 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를 자극시킨다. 그런데 상준이는 내가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며, 말을 잘 하지도 못한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지껄여대는 상준이를 보면 알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여대는 상준이를 보면 속이 불화로처럼 활활 타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난 참아야 한다.

상준이는 나보다 두 살 어린 4학년 또래이다. 그런데 멍청이다. 아니 바보다. 바보니까 학교에도 안 가고 날마다 집안이며 골목에서 일만 저지르고 다닌다. 하지만 상준이는 우리 옥상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애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여대는 상준이를 보면 속이 불화로처럼 활활 타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상준이의 행동은 나의 공격에너지를 자극한다. ‘그래도 난 참아야 한다.’ 내가 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 에너지가 현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상준이는 우리 옥상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애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나의 자아는 상준이를 괴롭히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상준이네 부모님에게 곤란해 질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 우울감을 갖고 있는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지만 상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러한 분별력과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리에는 상준이의 행동들로 인하여 억압(repression)¹⁵⁷⁾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나의 기대와는 달리 상준이네 가족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내 꿈이 깨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그 원인이 다 상준이 때문이라고 여기게 된다. 누가 이사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자아이가 이사 오는 꿈을 꾸곤 나다. 나 혼자 환상에 젖어 마음껏 상상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자 그 원망이 상준이에게 향한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내 또래 여자 아이들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생각하니 상준이가 밉다. 게다가 정상적인 수준의 아이가 온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상준이가 우리 집에 이사를 왔으니 더욱 화가 난다.

상준이네가 이 백양산 아래로 이사를 온 건 3년 전이었다. 우리 집 앞의 산 자락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자 이삿짐을 풀었었다. 그날 나는 내 또래의 여

157) 이무석, 앞의 책, p.161.

억압(repression)은 의식에서 용납하기 힘든 생각, 욕망, 충동들을 무의식 속으로 눌러 넣어 버리는 것이다.

자애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함께 숙제하고, 언덕길을 따라 학교를 오가며 가끔은 오락실에도 가고, 비디오도 빌려다 바꿔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싶었는데 영 빛나가고 만 것이다.

상준이!

정말 이런 팔푼이가 이사를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¹⁵⁸⁾

주인공인 나는 상준이에 대한 우월감으로 오만함이 드러난다. 상준이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성격은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다. 나는 학급의 반장으로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자아의식이 다소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나는 지금 또래 여자 아이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이사 올 가족도 ‘내 또래의 여자애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한 기대는 ‘함께 숙제하고, 언덕길을 따라 학교를 오가며 가끔은 오락실에도 가고, 비디오도 빌려다 바꿔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하는 달콤한 생각들로 이어진다. 그런데 하필 상준이네가 이사를 움으로써 내 꿈은 한순간에 깨어진다. ‘내 또래의 여자애’가 오지 못하여 나의 상상이 ‘영 빛나가고 만’ 것이 상준이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심리에는 상준이를 향한 ‘투사(projection)’¹⁵⁹⁾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상준이의 어머니는 이사 오던 날 상준이를 동생처럼 돌봐달라는 당부를 한다. 그러나 상준이는 ‘학급 반장을 하는 나와는 어느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 녀석이다.’ 상준이 부모님은 공사판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분들이라 상준이를 돌보지 못한다.

내가 학교를 마치고 오면 상준이는 언제나 내 차지였다. 나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골목길이며,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서 어기적어기적 달려오는 녀석을 보고는 가슴을 찢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저리 꺼져, 임마!”

158) 서하원, 앞의 책, p.85.

159) 조두영, 앞의 책, p.34.

투사(projection)는 자신이 무의식에서 품고 있는 공격적 의도와 충동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책가방을 벗어 녀석의 머리 위로 한 바퀴 휘두르면 녀석은 고개를 떨구고 울상을 짓는다. 하지만 눈물샘이 없는지 녀석은 울 줄을 모른다. 눈물을 흘리나 보려고 한 번 더 휘둘러 넘어뜨려도 녀석은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도 꺾소리를 안 한다.

-중략-

“벼영신!”

퍽, 소리가 나도록 옆구리를 쥐어박아 거꾸러뜨려도 녀석은 울지 않는다.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도 녀석은 고통을 드러내지 못한다. 아파도 아픈 표정을 못 지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였다.

“너 앞으로 내가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죽으라면 죽어. 알았지?”

나는 양 눈썹 사이를 힘껏 모아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렸다.

“.....”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임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어어.”¹⁶⁰⁾

‘내가 학교를 마치고 오면 상준이는 언제나 내 차지’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는 상준이가 싫다. 그래서 가방을 휘두르기도 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한다. 본능의 저장고 이드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 공격욕은 죽음의 본능이 자아에 의해 삶의 본능으로 변형된 욕구로 볼 수 있다. 죽음의 본능은 자아에 의해서 변형되어 파괴행위, 공격성, 지배, 착취, 경쟁 등으로 밖으로 표출된다.¹⁶¹⁾ 나의 이드에 내재한 공격욕이 상준이에게 드러나게 된다. 주위에는 아무도 나의 저변에 있는 공격성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 상준이의 옆구리를 쥐어박아 거꾸러뜨려도 녀석은 울지 않는다. 이러한 공격성의 원인은 나의 우월감으로 인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상준이는 ‘팔푼이’고 나는 ‘반장’이다. 또 나는 ‘주인집’의 ‘아들’이고 상준이는 ‘셋집’의 장애를 지닌 ‘아이’다. 나는 ‘6학년’이고 상준이는 ‘나보다 두 살 어린 4학년 또래’이지만에 ‘바보니까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상준이가 잘못했을 때는 혼내줘야 한다는 사회 질서의 신탁을 부여받은 듯이 지배적인 행동한다. 상준이가 잘못하면 혼내주기도 하며, 함부로 대하기

160) 서하원, 위의 책, pp.86-88.

161)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82.

도 한다. 상준이로 인한 나의 심리에는 이와 같은 ‘행동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나의 행동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자아의 양심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상준이를 함부로 하는 일에 대한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다. 문명과 사회화는 잔인성 속에서도 양심이라는 초자아의 근엄한 음성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나는 양심과 자아이상을 외면했을 때 나의 자아도 결코 평화롭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준이랑 둘이 있을 땐 나의 본능의 공격성이 발휘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드의 공격성과 초자아의 양심 사이에서 상준이를 괴롭히기도 한다. 그러다가 누군가 돌보아줘야 하는 아이라는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나는 이드의 에너지에 더욱 강하게 지배됨으로써 상준이에 대한 불쾌감이 마치 떼어내어야 할 혹처럼 느껴진다.

한 번은 불조심에 관한 글짓기로 원고지를 열 장이나 써 갈기고 무려 세 시간만에 나왔는데 녀석은 그 때 까지도 어둠을 담요처럼 뒤집어쓴 채 웅크리고 앉아 손가락을 쭈뼛 빨고 있었다.

“임마 아직 안 갔어? 하긴 바보니까 어떻게 집을 찾아가겠냐?”

나는 측은한 생각이 들다가도 순간 내 몸에 혹이라도 돌아난 것 같아 너무나 짜증스러웠다. 이 혹을 어떻게 떼어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지만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눈물이 핑글 돌았다.

-중략-

한번은 원장선생님께서 밖을 내다보며 ‘저 엔 누구니?’하고 물었을 때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그냥 아는 애라고만 했었다.

학원을 나서며 같은 반 지혜가 “네 동생이니?” 하고 물어왔을 때 나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¹⁶²⁾

학원에서 세 시간이나 걸려서 글짓기를 하고 나왔는데 상준이가 어둠 속에서도 웅크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두 가지 마음에 사로잡힌다. 세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동안 혼자서 자신을 기다린 모습이 측은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준이의 존재가 몸에

162) 서하원, 앞의 책, pp.87-88, pp.89-90.

돌아난 흑처럼 떼어버리고 싶지만 뗄 수도 없다. 상준이를 보며 측은해 하는 마음은 나의 초자아에서 보내는 신호요 몸에 돌아난 흑처럼 떼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이드에서 보내는 신호다. 그런데 이드의 에너지가 더 강렬하기 때문에 상준이를 흑처럼 떼어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 그러한 마음은 나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 ‘눈물이 핑글 돌’게 한다.

아동들에게 선생님은 대체로 우상화되는 존재이다. 다소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며 다가가서 사랑을 받아내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선생님이든 선생님에게는 대부분 가능한 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야기에서 원장 선생님이 상준이를 보며 ‘저 앤 누구니?’ 하고 물었을 때 내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른다. 우월감으로 뽐뿌한 내 자존심이 선생님으로부터 가격을 당하니 마음을 진정시키기 힘이 든다. 저 애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지 우리 집에 잠시 세들어 사는 집의 아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말 대신 얼굴이 먼저 달아오른다. 원장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준이를 나와 동일시할까 봐 걱정된다. 나를 상준이와 같은 수준의 아이로 취급 당할까 봐 자존심이 상한다. 나는 상준이처럼 결코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반장인 만큼 인정받고 싶은 아이이다. 그런데 원장님으로부터 가격 당한 내 자존심은 나의 말을 가로막는 신체화를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는 애’라고만 대답한다. 상준이로 인한 나의 무의식의 공격욕은 상준이를 볼 때마다 끓어오른다. 그럼에도 나의 자아는 참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상준이가 흑처럼 느껴지지만 뗄 수 없음이 이드와 자아의 팽팽한 정신 에너지의 대립으로 느껴진다. 어찌지 못하는 상준이의 존재로 인하여 나의 심리에는 ‘신체화(somatization)’¹⁶³⁾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나는 서서히 상준이의 습성을 알게 된다. 상준이는 4학년 나이에도 운동화의 양쪽을 바꾸어 신는다. 심장도 안 좋아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163) 조두영, 앞의 책, p.37.

신체화(somatization)는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 수의근육계 외의 신체 증세로 표출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춘기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경우이다.)

사실을 알게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상준이와 방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나는 상준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본다. 상준이에게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 준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여자 아이들을 떠올린다.

“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공부를 시켜 주겠다. 나는 선생님이야. 따라해 봐, 선생님!”

“서새이!”

“옳지, 잘했어.”

나는 네모 칸 공책 맨 위에도 내가 좋아하는 지혜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랑’이란 낱말을 써 주었다.

“사랑이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뽀뽀하고 좋아하는 거야.”

나는 사랑이란 낱말을 가르치기 위해 상준이를 끌어안으며 포옹을 해 보였다.

- 중략 -

상준이에게 사랑이란 말을 가르쳤던 그날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내가 좋아했던 아이들 이틀테면 영애, 희봄, 희영이는 작은 일에도 오해를 하거나 화를 내며 토라져 이미 내 곁을 떠난지 오래다. 지혜는 개들보다 무뎌하기는 하지만 내가 저를 좋아해 같은 학원에도 나가주는 나의 사랑을 눈꼽만큼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¹⁶⁴⁾

나는 상준이에게 ‘사랑이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뽀뽀하고 좋아하는 거’라고 가르친다. 내가 하필이면 ‘사랑’을 상준이에게 가르친 이유는 내 마음 속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 에너지에 기인한다. 나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끌어안고 싶은 은밀한 마음이 이글거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지혜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랑이란 낱말을 써 주’게 된다. 나를 끌어안고 뽀뽀해 주던 엄마의 아늑한 품 속은 자라나면서 현실 세계에서 상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고향은 언젠가 꼭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완전한 만족감이 존재하던 에로스다. 그러기에 그 만족감은 마음 깊숙이 간직되어 틈틈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무의식의 본능적 욕망은 내 곁을 떠난 영애로, 희봄이로, 희영이로, 지혜로 옮겨간다. 그러한 마음은 상준

164) 서하원, 앞의 책, pp.92-94.

이에게로 대체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혜는 무뎌하지만 은밀한 마음을 알지 못한다. 지혜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준이에게 가르치는 ‘사랑’ 속에도 혼재되어 있다. 상준이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나의 심리에는 여자 아이들에 대한 ‘성화(sexualization)’¹⁶⁵⁾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이와 같이 나의 에로스는 상준이에게로 변형되어 불순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흐르고 있다. 이러한 은밀함은 상준이에 대한 미움이 사랑의 피비우스로 돌아오게 하는 데 기여한다.

상준이에 대한 공격욕은 나의 자아의 인지에 따라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어느 날 상준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상준이가 없어진 날은 상준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상준이 아버지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 놓았다지만 상준이를 찾았다는 연락이 없다. 나는 애써 무관심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먼저 관심을 갖고 몸을 움직이게 부추긴다. 나는 이따금 창문에 붙어 밖의 동정을 살핀다. 최소한 자아를 보존하려는 방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상준이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결코 태연할 수 없다.

글짓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까지도 상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상준이 아버지가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 놓았다지만 헛일이었다. 나는 방안에 틀어박혀 학원숙제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웬지 녀석이 영영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 창문에 붙어 밖의 동정을 살피곤 하였다.

‘이 녀석, 어디로 간 거지? 어기적거리다 차에 치어 죽은 거 아냐?’

불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내가 알 바 아니란 생각으로 도리질을 해댔다.¹⁶⁶⁾

이러한 마음은 상준이를 걱정하는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녀석, 어디로 간 거지? 어기적거리다 차에 치어 죽은 거 아냐?’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알 바가 아니’라며 부정한다. 내 마음은 상준이

165) 조두영, 앞의 책, p.38.

성화(sexualization)는 성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닌 것에 성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 하는 것으로 이는 금지된 충동들과 관계된 불안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166) 서하원, 앞의 책, p.95.

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데 그렇지 않음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내 마음에서 부정이 드러나는 까닭은 상준이를 걱정하는 일이 마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나의 심리에는 ‘부정(denial)’¹⁶⁷⁾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상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상준이에 대한 미움과 사랑의 양 극단에서 정신 에너지의 혼란을 겪는다. 그런 가운데 상준이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된다. 상준이를 잃어버린 날, 상준이의 부모들은 물론 경찰도 상준이를 찾지 못한다. 상준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 뒤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상준이의 부모는 공사장에 다니느라 상준이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준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잘 모른다. 상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들로 인해 나는 상준이의 습성을 조금은 알게 된다. 어머니가 ‘자갈’이라는 말에 나는 상준이의 습성을 떠올린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순간 자갈이란 말에 내 머릿속은 용광로처럼 활활 끓어올랐다.

“어쩌면 아파트 공사장일지도 몰라요.”

나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밖으로 뛰쳐나와 골목길을 내달렸다. 머리 속에 선 강가에 널려 있는 자갈들의 둥글둥글한 모습들이 팝콘처럼 마구 튀어 올랐다. 나는 빨간 주머니 속의 잡다한 물건들과 동그란 자갈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던 것이다.¹⁶⁸⁾

동그란 물건에 관심을 갖고 그런 물건이 보이면 상준이는 빨간 복주머니에 주워 담는다. 상준이의 그런 습성을 알고 있기에 어머니가 ‘자갈’이라는 말에 ‘내 머릿속은 용광로처럼 활활 끓어’오르게 된다. 상준이가 갈만한 곳이 ‘어쩌면 아파트 공사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빨간 주머니 속의 잡다한 물건들과 동그란 자갈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을 발견

167) 조두영, 앞의 책, p.36.

부정(denial)은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 욕구, 충동,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인정치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노한 사람이 “나는 화 안 났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168) 서하원, 앞의 책, pp.96-98.

했기 때문이다. 나는 상준이가 빨간 복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갈을 따라갈 수도 있으리라는 추측하게 된다. 나의 심리에는 상준이의 습성으로 상준이가 갈 만한 곳을 짐작하는 ‘예견(anticipation)’¹⁶⁹⁾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상준이의 부모도, 경찰도 찾지 못하는 상준이를 나의 예견으로 찾아낸다.

상준이는 털바지 속에 자갈을 가득 넣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상준이의 바지 속에 든 자갈들을 뽑아내고 있을 때 상준이는 나를 ‘허야!’라고 부른다. 말도 제대로 못하던 상준이로부터 들은 ‘형’이라는 명명(命名)에 나의 자아 에너지도 상준이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그럼에도 마음속으로는 상준이네가 이사 가기를 기다리던 터다. 그런데 상준이가 떠나며 ‘빨간 복주머니’와 ‘아프리카 새깁디’ 그림을 남겨준다.

그 옆에는 눈에 익은 빨간 복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꾸로 흔들자 구슬이며, 파조며, 병뚜껑이 왈왈왈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상준이의 모든 것이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내게 남겨주고 가다니, 코끝이 찡해오고 가슴이 울컥거렸다. 텍테 그르르 굴러가 장롱이 놓였던 자국에 가까스로 선 유리구슬을 보자 눈물이 찔끔 흘렀다.

‘내가 왜 이래? 눈물이 썩어빠졌나?’

이럴 땐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녀석을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눈물을 쏟아니, 줄창 흐르는 눈물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¹⁷⁰⁾

그토록 싫어했던 상준이. 상준이를 떠나보내고 나면 혹을 떼어내듯이 후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준이가 떠나며 남겨놓은 빨간 복주머니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빨간 복주머니는 상준이의 모든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내게 남겨주고’ 떠난 것이다. 나는 상준이의 빨간 복주머니로 인하여 ‘코끝이 찡해오고 가슴이 울컥거렸’지만 상준이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부정한다. ‘내가 왜 이래? 눈물이 썩어빠

169) 조두영, 앞의 책, p.40.

예견(anticipation)은 닥쳐올 내적 불편을 현실에 입각해 받아들이기 준비를 하는 것이다.

170) 위의 책, pp.101-102.

졌나?’라며 스스로 질책하기도 한다. 상준이를 좋아한다고 인정하는 일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부족한 아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나 또한 부족해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할 불안함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나의 무의식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내 생각을 드러낸다. 나는 건잡을 수 없는 ‘줄창 흐르는 눈물’로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요동치는 심리 에너지의 변화를 느낀다. 이러한 나의 심리는 상준이를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는 ‘신체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상준이에게 향하던 공격욕이 이처럼 눈물로 변하게 된 것에 대해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마음이다. 나의 이드에서 솟아오르던 공격욕이 상준이가 남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아 에너지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상준이는 나의 무의식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심리작용의 발달을 조력하는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조력한 인물이다. 상준이는 이와 같이 나의 정신 에너지를 발달시키는 데 공헌을 하고 떠난 것이다.

옥상 저편으로 내려다보이는 동네 골목길 쪽으로 돌아선 나는 키 돌음을 해 보았다. 차는 보이지 않았다.

“서·상·준! 임마! 잘 가!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 해!”

나는 마지막으로 녀석의 이름을 불러보며 두 명의 아프리카 새끼들이 그려진 그림을 붙인 말아 쥐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¹⁷¹⁾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상준이, 그러나 상준이가 떠나면서 남겨둔 빨간 복주머니와 그림으로 인하여 증오의 마음은 뫼비우스의 띠(mobius-strip)처럼 돌아 나와서 상준이에 대한 애정으로 변한다. 사랑과 증오가 이렇게 교차하는 이유는 에로스의 본능에서 연유한다. 에로스의 공격성은 자기애가 강하여 대상을 과대평가하다가 소유하고 난 후에 과소평가하는 식의 사랑과 증오의 엇갈림을 낳는다.¹⁷²⁾ 그런데 나는 상준이를 과소평가하며 증오하다가 떠나고 난 후에 상준이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애정의 감정으로 전환하게 되어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는 그토록 싫어했

171) 서하원, 앞의 책, p.102.

172) 권택영, 앞의 책, p.183.

던 상준이에 대한 마음이 변화되며 ‘이타주의(altruism)’¹⁷³⁾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상준이는 나의 공격욕을 일깨웠지만 나의 자아 에너지가 발달하도록 조력한 인물이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새깁디>는 행동화, 신체화의 미숙한 방어기제가 작동되지만 예견과 이타주의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아의 노력이 드러난다. 따라서 현대동화 <아프리카 새깁디>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의 동화이다.

2) ‘행동화’로 눈물 흘리는 영신이

동화 <고물 자전거>는 영신이의 공격욕이 드러나는 동화이다. 영신이의 아버지는 영신이의 무의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드러내게 된다. <고물 자전거>에서 아버지는 고물 자전거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갖고 정성스레 닦는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인 영신이는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인 자전거로 향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영신이는 아버지 대신 애꿎은 고물 자전거를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고물 자전거를 향하여 공격하고자 한다.

“고물 자전거를 닦는다고 새 자전거가 되나요, 똘.”

“그래도 깨끗이 닦아 쓰고 곱게 다루면 더 오래 쓸 수가 있어.”¹⁷⁴⁾

영신이는 아버지를 향하여 ‘고물 자전거를 닦는다고 새 자전거가 되나요, 똘.’라며 불만을 드러낸다. 영신이의 불만에도 아버지는 단지 자전거에 관한 답변으로 ‘그래도 깨끗이 닦아 쓰고 곱게 다루면 더 오래 쓸 수가 있’다고 대답한다. 영신이의 아버지는 영신이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공격적인 말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신이가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은 ‘닦아 쓰고 곱게 다루면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대답이 아니다.

173) 조두영, 앞의 책, p.38.

이타주의(altruism)는 남들의 본능적 욕구 충족을 건설적인 면으로 집요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174)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42-143.

아버지는 분노의 감정이 고물 자전거로 향한 영신이의 공격 에너지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신이 아버지는 영신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영신이의 심리에는 아버지의 고물 자전거를 향하여 ‘투사’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동화에서 주인공인 영신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4학년 교재에 실려 있으므로 또래아이라고 본다면 만 11세경이 되는 아이다. 이 시기는 성장과정으로 볼 때 잠복기에 해당되므로 잠복기의 특징인 초자아의 확립과 자아 성숙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 영신이는 이드의 충동적인 공격 에너지가 점점 힘을 더해가는 상황이다. 4학년 또래의 영신이는 학습을 통하여 영신이는 초자아의 전통적인 효도관이나 사회화의 규율을 인지와 학습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영신이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적 충동 에너지는 아버지를 향해 공격하게 된다. 이것은 곧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자 나아가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영신이의 공격 에너지는 ‘고물 자전거를 닦는다고 새 자전거가 되나요, 뭐.’라며 아버지를 향한다. 영신이의 심리에 자아의 판단 에너지보다 본능적 충동 에너지인 공격 에너지가 더욱 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신이는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억압된 감정의 긴장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한다. 자아의 안정을 찾으려는 영신이는 아버지를 향하여 또 한 번의 심리적 공격을 개시한다. 그래서 영신이는 ‘아버지, 자전거 좀 새로 사요.’라고 주문한다.

“새로 사긴……. 아직도 5년은 더 탈 수 있을 거다. 군말 말고 방안에 밥상 차려 났으니까 들어가 밥이나 먹어. 아버지는 일하는 곳에서 저녁까지 먹고 올 테니까 저녁도 혼자 먹고…….”¹⁷⁵⁾

영신이의 공격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은 영신이의 본능적 공격 에너지를 더욱 강화하여 영신이의 심리적 긴장을 위태롭게 만든다. 아버지는

175) 위의 책, p.143.

‘굳말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어라.’, ‘저녁도 너 혼자 먹어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영신으로 하여금 긴장된 본능 에너지의 충동이 더욱 가중된다. 아버지가 하는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 영신이의 심리에는 ‘억압’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영신이의 억압이 긴장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녁에 돌아온 아버지는 ‘내일은 너 일어나기 전에 일하러 나갈 거야.’라고 또 다시 영신이의 고독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자 영신이의 억압은 다시 자전거로 투사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자전거 타령을 하는 영신이를 나무라자 이젠 옷 타령으로 대상을 바꾼다.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옷 좀 사 입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저항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영신이가 현실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자전거나 옷으로 대상을 바꾸며 투사되는 영신이의 충동적인 에너지를 억압하게 된다. 이것은 자아가 성숙한 아버지의 인식과, 아직은 자아가 미성숙한 영신이와의 인식의 차이다. 영신이는 아버지의 말에 이드의 에너지에 더 기울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영신이의 억압은 어떤 불행한 본능적 충동을 내포하여 위험한 발산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자식의 견해에 타협 없는 무조건적 강행은 자식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가서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드와 초자아의 절충점을 찾는 개인 내적인 정신 에너지의 문제처럼, 부모와 자식의 견해 차이의 절충점을 찾아 조화로운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영신이 아버지는 영신이가 원하는 것을 헤아리기 보다는 현실을 인식하기를 요청한다. 아버지의 현실 인식적 태도로 인하여 영신이는 심리적 억압을 해소할 출구를 찾지 못한다.

“내일 장에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없니?”

“운동화요.”

“운동화 가져와 봐.”

영신이는 낡은 운동화를 가져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녀석아, 한 달은 더 신어도 되겠다. 운동화는 안 돼.”

“그럼 체육복이나 사 주세요. 바지지가 짧아졌어요.”

“어디 체육복 입고 와 봐.”

영신이는 체육복 바지를 입고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이 정도 짧은 건 괜찮아. 조금 더 입어도 돼. 새로 사면 낭비지.”

“그래도 이렇게 짧은 것을 어떻게 입어요, 창피하게…….”

“그렇다고 멀쩡한 걸 버려? 체육복도 더 입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말해 보렴.”

“필요한 거 없어요. 차라리 묻지나 마시지. 아버지는 참…….”

영신이는 볼멘소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¹⁷⁶⁾

무의식의 공격욕으로 긴장된 영신이의 심리를 향하여 아버지는 영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묻는다. 영신이가 운동화를 사 달라고 하니 ‘이 녀석아, 한 달은 더 신어도 되겠다. 운동화는 안 돼.’라고 한다. 그래서 영신이는 체육복이라도 사 달라고 하니 ‘이 정도 짧은 건 괜찮아. 조금 더 입어도 돼. 새로 사면 낭비지.’라고 한다. 화가 난 영신이는 ‘필요한 거 없어요. 차라리 묻지나 마시지.’라며 아버지를 원망한다. 운동화도, 체육복도 사 주지 않으려는 아버지로 인해 영신이의 심리에는 ‘부정’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영신이의 불안정하던 자아 에너지는 점점 이드로 역류하게 되어 아버지를 향한 공격 에너지로 커지게 된다. 영신이의 심리적 공격 대상은 실제로 아버지다. 하지만 영신이는 부모로서 절대적인 존재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영신이 본능의 공격 에너지는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자아의 긴장을 해소하여 마음의 평정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영신이는 공격충동이 작동되어 자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은밀한 출구를 찾게 된다. 그날 따라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는다. 동네 꼬마들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 고물장수 아저씨가 지나간다. 고물장수 아저씨의 외치는 목소리가 멀어져 갈 즈음 영신이는 기어이 일을 저지르게 된다.

“아저씨, 아저씨. 고물 있어요. 고물 있어요!”¹⁷⁷⁾

176)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144.

177) 위의 책, p.146.

영신이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투사된 고물 자전거를 기어이 팔아버린다. <고물 자전거>에 드러난 바와 같이 상황이 심리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 영신이의 심리 변화를 조력하는 상황 변수를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날따라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는다. 둘째, 영신이가 은밀한 계획을 감행하도록 동네 꼬마들조차 보이지 않는다. 셋째, 아버지는 영신이의 심리적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해소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넷째, 하필 그때 고물장수 아저씨가 고물을 팔라고 외치며 지나간다. 위에 제시된 변인들이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영신이의 정신 에너지의 흐름도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영신이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고물 자전거를 팔아치우는 은밀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아저씨, 아저씨. 고물 있어요. 고물 있어요!’ 영신이가 고물 자전거를 팔아치우는 ‘행동화(acting out)’는 영신이의 본능에 대한 긴장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비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충동을 행동화함으로써 자아는 더욱 불안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고물 자전거를 팔아치우는 영신이의 행동화는 본능적 충동 에너지가 너무 강하여 행동화 이후에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다. 처해진 문제가 더 급박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맹안(盲眼)이 되어버린 경우이다. 영신이의 행동화 이후 영신이의 아버지는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전거를 찾는다.

“영신아, 자전거 못 봤니?”

“못 봤는데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에다 세워 놓고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

“네.”

아버지께서는 여기저기 찾으시다가 창고 문을 여셨습니다. 잡동사니 물건들이 가득 쌓인 창고 구석에 하얀 빨랫비누가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영신아, 이 비누 어디에서 났어?”

영신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¹⁷⁸⁾

아버지가 ‘영신아, 자전거 못 봤니?’라고 묻자 영신이는 ‘못 봤는데요.’라고 대답한다. 또 다른 불안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영신이의 심리에는 자전거의 행방에 대한 ‘부정’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물건을 함부로 팔아치우는 일을 감행했으므로 무의식의 충동적인 정신 에너지는 해소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자아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욕구 충족을 위한 본능 에너지에 기울어진 행동의 결과 자아를 고통스럽게 한다. 영신이는 자전거를 팔아버린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질문을 받게 됨으로써 다시 불안에 처한다.

아버지가 ‘이 비누 어디에서 났어?’라고 물을 때 영신이의 얼굴은 빨개지게 된다. 영신이의 심리적인 불안은 영신이의 얼굴에 신체화 증상이 되어 나타난다. 아버지는 영신이의 ‘신체화’ 증상을 통해서 상황을 짐작하게 된다. 아버지는 장에서 들고 온 봉지들을 내동댕이치듯 던져놓고 자전거를 찾으러 나서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팔아버린 영신이의 행동을 나무란다.

“나쁜 녀석, 누가 부모 물건을 함부로 없애 버려. 자전거가 뭐 어때서? 자전거가 고물이라서 너를 불편하게 했어?”
영신이가 울며 대들었습니다.¹⁷⁹⁾

영신이 아버지가 고물 자전거를 그토록 아끼는 이유가 서사의 결말에서 드러난다. 그것도 영신이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혼잣말로 독자들에게만 들려준다. 그래서 영신이는 고물 자전거를 판 이후에도 그 자전거를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신이의 심리에는 아버지에게 울며 대드는 ‘행동화’의 방어기가 작동된다. 영신이는 자전거에 대한 엄마와의 사연을 모른 채 자전거를 팔아버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영신이가 자전거를 팔아치운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억압이 그 근

178) 위의 책, p.146.

179) 위의 책, pp.147-148.

원이다. 그러한 억압은 아버지가 자신을 좀 사랑해 달라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방식이다. 자신이 영신이는 애정 결핍을 느껴 공격적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항변이다.

“낡은 자전거, 낡은 그릇. 우리 집엔 뭐든지 다 낡아빠진 것만 있어요. 새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헛 것뿐이야.”¹⁸⁰⁾

아직도 아버지가 고물 자전거를 아끼는 이유를 모르는 영신이는 고물 자전거를 팔아치운 행동화에 대하여 나름의 정당성을 부르짖는다. 영신이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공격 본능에서 나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영신이는 아버지를 향해 우리 집에는 ‘낡은 자전거, 낡은 그릇. 우리 집엔 뭐든지 다 낡아빠진 것만 있’다고 항변한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신이의 심리에는 합리화(rationalization)¹⁸¹⁾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영신이의 항변에 말없이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영신이는 아버지가 장에서 들고 온 봉지를 열어보았다. 봉지 안에는 더 신으라고 해놓고 더 입으라고 해놓고 새 운동화와 새 체육복이 들어 있었다. 운동화와 체육복을 확인한 영신이는 손등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영신이는 그제야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을 느끼며 이야기의 결말을 맺는다.

이와 같이 동화 <고물 자전거>에서 영신이는 무의식의 충동적인 공격성과 자아의 현실 인식 사이에서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자아 탐색의 동화이다. 아버지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주인공 영신이의 심리에는 미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하지만 결말에서 아버지의 애정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성숙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180) 위의 책,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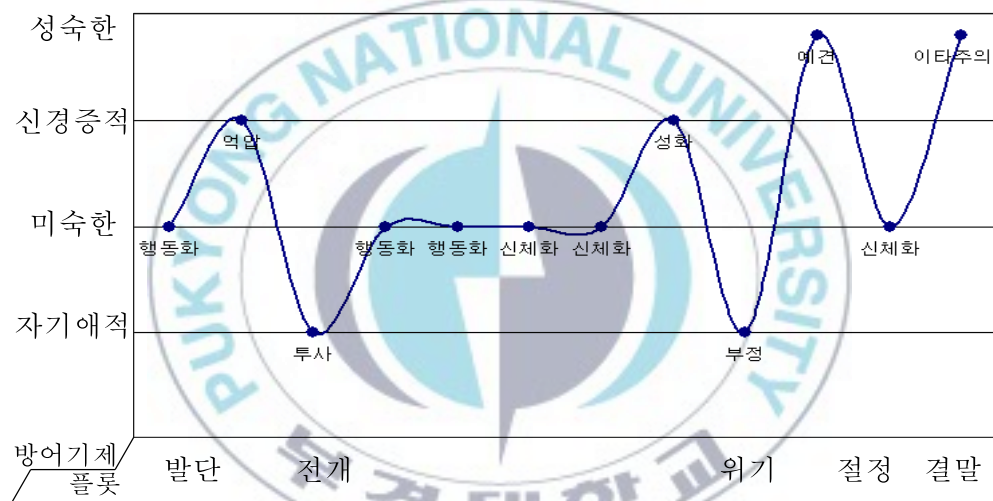
181) 조두영, 앞의 책, p.33.

합리화(rationalization)는 인식·의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지적으로 그럴 듯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같은 탐색을 통하여 한국 현대동화 <고물 자전거>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에 관한 동화이다.

3) 小結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탐색과 자아와 방어기제에 관하여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주인공 ‘나’의 심리에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관하여 동화의 플롯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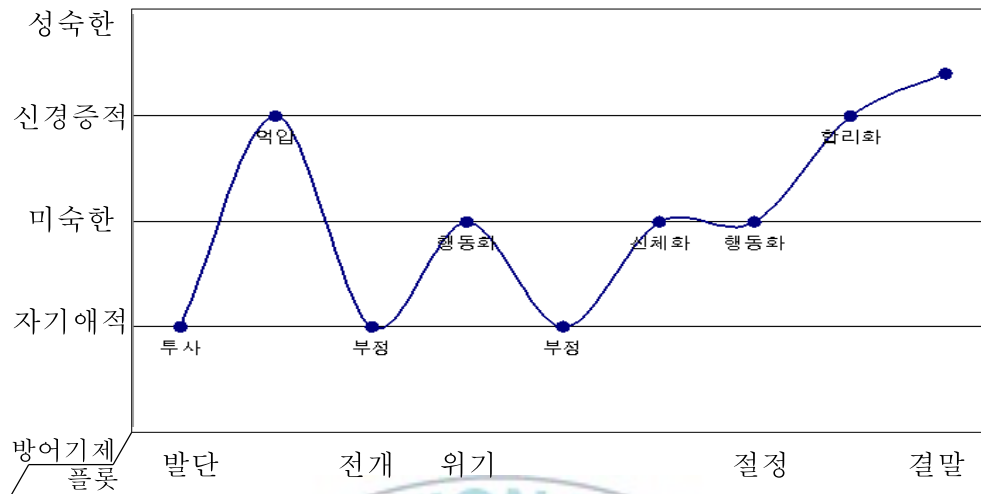


[그림 4] <아프리카 새깁디>의 방어기제와 정신 에너지 흐름

위의 [그림 4]에서 주인공 ‘나’는 행동화, 억압, 투사, 행동화, 행동화, 신체화, 신체화, 성화, 부정, 예견, 신체화, 이타주의의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나의 방어기제 작동을 살펴보면 자기애적 방어기제인 투사, 부정과 미숙한 방어기제인 행동화, 신체화, 신경증적 방어기제인 억압, 성화, 성숙한 방어기제인 예견, 이타주의가 작동되고 있다. 그 가운데 ‘나’의 가장 집약적으로 작동되는 방어기제는 미숙한 방어기제인 행동화, 신체화, 성화이다. 주인공 ‘나’는 보조적 인물인 상준이를 공격하는 행동화가 작동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상준이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불필

요한 자극을 받게 됨으로써 억압의 기제가 작동된다. 주인공 ‘나’는 주인 집 아들, 학급 반장 등으로 ‘나’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세 들어 사는 집 아이, 학교도 못 다니는 장애아라는 편견으로 상준이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상준이에 대한 듀얼리즘적 사고를 갖게 된다. ‘나’는 절대 우위, ‘상준이’는 절대 하위라는 의식이다. 그러나 이 양 극단의 지점에 있는 대조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처럼 대립이 아닌 개체에 공존하는 정신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사춘기에 접어든 6학년인 ‘나’는 성화의 방어기제와 더불어 상준이에 대한 이분된 감정이 서서히 와해되어 간다. 어느 날 상준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무관심 하고자 상준이의 소재에 대한 부정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하지만 초자아의 양심은 상준이에 대한 염려의 에너지로 바뀌어 상준이 부모와 경찰도 찾지 못하는 상준이의 소재를 예견하는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나’는 상준이가 떠난 후 흑이라도 떼어내듯 후련하다는 쾌감에 잠시 빠진다. 하지만 상준이가 떠나며 남겨둔 ‘아프리카 새깅디’가 그려진 스케치북, 상준이의 모든 것으로 상징되던 복주머니, ‘허아 사라해’라는 글귀로 인해 후련함은 연민으로 변한다. 그래서 나는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상준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타주의 기제가 작동된다.

<고물 자전거>에서 영신의 심리에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관하여 동화의 플롯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고물 자전거>의 방어기제와 정신 에너지 흐름

<고물 자전거>에서 주인공 영신이는 투사, 억압, 부정, 행동화, 부정, 신체화, 행동화, 합리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그 가운데 영신이가 집약적으로 작동되는 방어기제는 행동화, 신체화, 억압, 합리화이다. 영신이는 아버지의 고물 자전거에 대한 애착에 대하여 미움과 증오가 일어난다. 영신이가 미움을 느끼는 원인의 저변에는 자신에 대한 애정의 갈망이다. 영신이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독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미운 것이다. 그래서 영신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의 크기만큼의 에너지가 미움의 에너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버지가 장에 가면서 필요한 것 없느냐고 하자 영신이는 체육복과 운동화를 사달라고 한다. 아버지는 체육복과 운동화를 보자고 하면서 더 입고 더 신으라고 한다. 아버지의 대답은 안 그래도 아버지가 미운 상황에서 영신이의 억압을 가중하게 된다. 억압의 에너지가 넘쳐서 출구를 찾던 영신이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투사된 고물 자전거를 팔아치우는 행동화의 기제가 작동된다. 아버지가 고물 자전거의 행방을 묻자 영신이는 모른다고 부정의 기제가 작동된다. 영신이의 부정은 신체화 기제로 나타나지만 영신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합리화의 기제가 작동되며 변명하고자 한다. 영신이는 아버지가 사 온 새 운동화와 체육복을 보고 ‘안 사 준다고 하셨으면

서…….’라고 눈물을 흘린다. 결말에서 영신이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에 나타난 정신 에너지의 사용과 동화의 자아 유형 구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 및 정신 에너지 사용

구분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		자아 양상	자아 유형
	방어기제 종류	정신 에너지 사용	방어기제 종류	정신 에너지 사용		
자기애적 방어기제	투사, 부정	○	투사, 부정	○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	자아의 각성
미숙한 방어기제	행동화, 신체화	●	행동화, 신체화	●		
신경증적 방어기제	억압, 성화	●	억압 합리화	●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	자아의 탐색
성숙한 방어기제	예견, 이타주의	○				

※ 정신 에너지 사용여부 : ●=집약적 사용, ○=제한적사용, x=사용안함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주인공 ‘나’는 미숙한 방어기제인 행동화, 신체화를 신경증적 방어기제인 억압, 성화를 집약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나’는 주인집 아들이요, 학급의 반장이다. 그래서 우월한 존재이다. 그런데 상준이는 세 들어 사는 집의 아들이며 장애가 있어서 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다. 그러한 상준이에게 미숙한 방어기제인 행동화로 공격성을 드러내 보이지만 성화의 방어기제로 공격성이 관심으로 전환된다. 상준이에 대한 공격성과 관심의 양극단에서 나의 자아는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게 된다. 상준이가 떠나간 뒤 후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상준이가 남기고 간 것들로 인해 상준이의 안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 때 ‘나’는 떠나간 상준이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상준이에 대한 이해가 불안정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새깁디>는 상준이로 하여금 ‘나’의 자아 에너지가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생

기며 결말을 맺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의 동화이다.

<고물 자전거>에서 영신이는 미숙한 방어기체인 행동화, 신체화 그리고 신경증적 방어기체인 억압, 합리화를 집약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어머니가 부재한 영신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영신이의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소 거칠거나 메마르며 무뎡뎡하다. 영신이를 사랑하고 있지만 영신이가 원하는 사랑법이 아니기에 갈등과 대립상황에 처하게 된다. 영신이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고물 자전거를 팔아치우는 행동화를 감행한다. 아버지가 미워서 행동화, 합리화를 하는 영신이에게 아버지는 운동화며 체육복을 사다준다. 아버지가 장에서 들고 온 봉지를 확인한 영신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지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감지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처럼 <고물 자전거>에서 영신이의 자아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영신이가 완전한 성숙을 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방향성만 제시할 뿐이다. 영신이는 현실과 욕망을 조율하는 방법에 서툴러서 갈등과 불안에 빠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에 관한 동화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의 동화이다. 이 유형에서는 합리적인 자아로 거듭나고자 충동과 억제가 요동치는 자아의 양상을 보인다.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의 동화는 자아 발달과정에서 볼 때 자아의 각성 유형을 거친 다음에 맞이하는 유형이다. 자아의 탐색 유형에서는 자아의 방어기제 작동이 성숙을 지향하려고 하나 완전한 성숙은 보여주지 못하는 유형이다.

3.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의 동화에서 자아는 완전한 성숙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드의 욕구충족에 정도되어 자아가 현실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던 자아의 각성기를 지나고, 성숙한 자아를 지향하며 자아에 에너지를 더욱 투입하고자 노력하던 자아의 탐색기를 지나서, 자아가 확실한 성숙에 도달하게 된 시기이다. 인간이 정신 에너지의 완벽한 기능을 갖추는 것은 이상에 불과한 불가항력의 일이다. 단지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신 에너지가 충동과 안정의 양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게 되며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자아의 실현을 추구하는 동화에서는 이야기의 결말을 인간의 자아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지점인 실현의 경지, 정신 에너지의 완벽한 평형의 경지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테면 동화의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아의 실현 유형의 동화는 자아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었기에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 있는 특별한 인물이다. 이 유형의 동화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행복한 결말 그 자체가 아니다. 주인공이 자아의 궁극 목표인 실현 지점에 도달한 결과보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자아의 각성과 자아의 탐색에서 드러난 자아의 처절한 노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오세암>, <강아지 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승화’된 부처님 길손이

<오세암>에는 5세인 길손이를 중심으로 길손이의 누나인 감이와 스님이 등장한다. 스님은 포구에서 거지 남매를 만난다. 스님이 남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사내아이가 스님에게 자신과 누나의 이름을 말한다. 이 때 사내아이는 자신과 누나의 이름에 대하여 의미를 설명한다.

“이름이 무엇이나?”

“나는 길손이야. 누나 이름은 감이구.”

“길손이와 감이라아……. 거참 혼치 않는 이름이구나.”

“내 이름은 향교 문지기 아저씨가 지어 주셨어. 떠돌이라는 뜻이래. 감이 누나 이름은 내가 지었구.”

“감이라는 뜻은 무엇인데?”

“아이, 스님도 답답하다. 감이는 그냥 감이라는 뜻이야. 눈을 감았으니까. 그래서 감이야.”¹⁸²⁾

스님의 질문에 사내아이는 ‘나는 길손이야. 누나 이름은 감이구.’라며 자신의 이름과 누나의 이름을 말한다. 사내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떠돌이’라는 뜻의 길손이라고 하며, 누나인 감이는 ‘눈을 감았으니까’ 감이라고 설명한다. 길손이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인간의 정신 에너지의 흐름에서 볼 때 자아의 정신 에너지의 통합이 능숙한 경지로 볼 수 있다. 무의식의 욕망을 초월하여 세계를 자기 목표에 맞게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경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초월의 세계는 정신 에너지가 마음의 어느 영역에 기울어지거나 집착되거나 구애됨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를 상징한다. 이야기에서 길손이는 정신 에너지에 있어서도 객관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주관은 객관으로 오인하던 무의식에서 객관화가 자유로운 경지에 이른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야기에서 길손이는 개울물과 바람과 흰 구름 등의 지구상에서 순환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완전한 객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는 경지이다. 길손이의 누나 감이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다. 그런데 감이는 소중한 감각기관인 시력을 상실하였으니 자아 에너지인 상상력, 분별력, 판단력이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동생 길손이는 누나의 시력이 되어주고 있다. 감이는 길손이를 통해서 정보의 형체를 청각으로 전달받는다. 감이는 길손이가 설명해 주는 이미지에 대하여 나름의 사고 작용을 거쳐서 감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감이는 수용된 이미지에 대하여 상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아 에너지를 유효하

182) 정채봉, 앞의 책, p.161.

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떠돌이, 객관의 의미를 지닌 길손이
와,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아인지력의 감이의 이름에 대한
상징화는 <오세암> 전반에 흐르는 정신 에너지의 흐름을 관통하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남매 이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사내아이의 심리에는 ‘상징화(symbolization)’¹⁸³⁾의 방어기제가 작
동된다.

스님은 길손이 남매랑 헤어져서 절로 가다가 거지남매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온다. 눈 내리는 겨울에 쪼터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지남매에게 스님이 말을 건넨다. 스님은 거지남매에게 절로 가자고 제
안한다.

“스님, 우리를 데려가도 높은 사람이 눈치 안 해? 향교에서도 그래서 쫓겨났
는데…….”

“그러면 조카들이라고 해야지. 이제부터 너희들은 부모 잃은 내 조카가 되는
거다.”¹⁸⁴⁾

스님의 제안에 길손이가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 우리를 데려가도 높
은 사람이 눈치 안 해?’라고 묻자 스님은 그제야 ‘그러면 조카들이라고
해야지.’ 라고 대답한다. 어린 길손이는 스님이 자기 남매를 절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은 좋지만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줄
안다. 물론 길손이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향교에
서의 경험에 기인한다. 향교에 갈 때도 누군가가 길손이 남매를 데리고
갔으나 높은 사람에 의해 쫓겨난 기억 회상 능력이다. 그래서 절에 가서
도 또 쫓겨날까봐 걱정을 한다. 길손이의 심리에는 자기 남매를 절에 데
리고 갔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예견(anticipation)’의 방어기제가 작동된
다.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좋지만 다시 쫓겨난다는 것은 평화롭던
마음에 삶의 불안을 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길손이 남매는 부모 없이
구걸을 하면서 더러는 밥을 얻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좌절감이 내재

183) 이무석, 앞의 책, p.179.

184) 위의 책, p.162.

되어 있을 것이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길손이 남매에게 지낼 곳을 제공하는 일은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기대가 오히려 실망으로 변해버리면 심리적으로는 좌절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좌절의 경험에 대한 길손이의 기억 회상과 판단력을 드러내고 있다. 길손이가 자기들을 데리고 절에 갔을 때의 상황을 예견하는 일에 비해 스님은 그제야 합리화의 기제로 대응책을 생각한다. 절의 사람들이 눈치 할 것을 대비해서 조카라고 하자고 제안한다.

스님을 따라 절로 간 길손이와 감이는 절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런데 길손이는 절에서의 생활이 자유를 추구하는 길손이의 정신 에너지와는 맞지 않는다.

감이는 눈이 멀었어도 제법 부엌일도 거들고 해서 제 밥값은 하는 편이었으나 길손이는 날마다 말썽만 피울 뿐이었다.

밤에 이불에 오줌 싸는 일은 사흘에 한 번꼴, 조용해야 할 선방으로 날짐승을 몰아와서 우당탕거리는 일은 이틀에 한 번꼴, 법회 때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방귀를 뽕 소리 나게 끼지를 았나, 불개미를 잡아와서 스님들의 바짓가랑이 속으로 들여보내질 았나.¹⁸⁵⁾

스님이 길손이 남매를 절에 데려간 뒤로 길손이와 감이의 적응이 다르다. ‘감이는 눈이 멀었어도 제법 부엌일도 거들고 해서 제 밥값은 하는 편’이다. 그런데 길손이는 날마다 말썽만 피울 뿐이다. 길손이는 ‘밤에 이불에 오줌 싸는 일은 사흘에 한 번꼴, 조용해야 할 선방으로 날짐승을 몰아와서 우당탕거리는 일은 이틀에 한 번꼴, 법회 때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방귀를 뽕 소리 나게 끼지를 았나, 불개미를 잡아와서 스님들의 바짓가랑이 속으로 들여보내질 았나.’ 하는 등의 말썽을 부린다. 절의 생활에 대한 길손이의 심리에는 ‘퇴행(regression)’¹⁸⁶⁾과 ‘행동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길손이가 이처럼 퇴행이 일어나는 원인은 길손이의 정신

185) 정채봉, 앞의 책, p.165.

186) 이무석, 앞의 책, p.187.

퇴행(regression)은 심한 좌절을 당했을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에너지에 기인한다. 길손이는 아직 어리기에 무의식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아이다. 그러한 길손이의 생각과는 달리 절의 생활이란 엄격한 규율이 존재한다. 지켜야 할 정해진 규율이 존재하며 격을 갖추어야 할 엄숙함이 존재한다. 규율이 존재하는 절의 생활에 길손이는 심리적으로 적응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다. 5세인 길손이가 왜 엄숙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절의 엄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누가 길손이의 긴장된 마음을 헤아려 달래줄 사람은 없다. 길손이 남매를 데려온 스님 또한 길손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수행하는 일에 전념한다.

어린 길손이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는 스님은 길손이의 퇴행과 행동화로 인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스님은 길손이를 데리고 암자로 떠나고자 한다. 암자로 가는 길은 험하기 때문에 감이는 절에 두고 스님은 길손이만 데리고 떠나게 된다. 암자로 가기 전에 길손이는 절 앞의 개울물을 물초롱에 담는다. 그러자 스님은 길손이를 달랜다. ‘거기에도 좋은 샘이 있다니까 그러는구나.’ 스님의 만류에도 길손이는 물초롱을 들고 간다.

길손이는 한사코 작은 물초롱을 들고 나섰다.

“거기에도 좋은 샘이 있다니까 그러는구나.”

“스님 바보야. 내가 물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럼 물이 아니고 무엇이나?”

“흰 구름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야. 요 앞날 개울에서 건져 왔거든.”¹⁸⁷⁾

누나와 헤어져야 하는 길손이는 누나와 친구를 대신할 수 있는 흰 구름을 동일시한다. 그 구름은 길손이에게 누나도 되고, 친구도 되고, 나아가 엄마도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이처럼 길손이는 흰 구름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 흰 구름에 대한 길손이의 마음을 스님은 알지 못한다. 흰 구름은 길손이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정신 에너지로 볼 수 있다. 누나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흰 구름은 누나이고 어머니인 이드의 원망

187) 정채봉, 앞의 책, p.165.

충족의 에너지다. 흰 구름에 대한 길손이의 심리에는 ‘전이 동일시 (transference identification)’¹⁸⁸⁾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스님은 암자에도 좋은 물이 있는데 굳이 물을 넣어가지고 나서는 길손이를 말려보지만 오히려 길손이에게 설득당하고 만다. 이어지는 서사에서 길손이는 관세음보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 동무 흰 구름’이라고 한다. ‘내 동무 흰 구름’은 길손이의 자아 에너지로 볼 수 있다. 길손이가 함께 놀아줄 동무가 그리울 때 흰 구름은 동무가 되어준다. 현실적으로 길손이는 동무가 없다. 그래서 동무가 그리울 때는 흰 구름에서 힘을 얻어 현실 생활에 적응하는 자아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흰 구름은 동화의 결말에서 길손이의 장례식이 거행될 때 장작불이 타오르면서 연기가 곧게 하늘로 올라가 흰 구름과 함께 조용히 흘러가는 서술과 연계된다. 이렇게 길손이는 흰 구름과 친구가 되어 자아를 다스리는 힘을 스스로 얻게 된다. 암자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라고 스님이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험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힘이 든다. 더구나 어린 아이인 길손이가 오르기에는 스님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암자로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스님은 길손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묵묵히 걷는다. 길손이가 스님을 따라 나선 목적은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호기심과 함께 공존한다. 어린 길손이의 마음에는 암자에서의 생활과 누나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심리적인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다.

“스님, 저기 저 안개구름 속에서 우뚝 솟은 산봉우리 이름은 무어야?”

“귀떼기 청봉이다.”

“귀떼기 청봉? 그럼 코떼기 청봉도 있겠네?”

길손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¹⁸⁹⁾

이와 같이 길손이는 무의식의 정신 에너지가 작동되어 짜증을 내거나

188) 조두영, 앞의 책, p.31.참조.

전이 동일시(transference identification)는 어떤 인물의 심상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심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부모, 형의 행동을 본뜨는 것이다.

189) 정채봉, 앞의 책, pp.165-166.

투정을 부릴 수도 있다. 그런데 길손이는 유머로써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조용하는 자아의 에너지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유머로 그러한 분위기와 마음을 달랠 줄 아는 자아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길손이는 물초롱을 들고 스님과 암자로 향한다. 암자로 가는 길에 말없는 스님과는 달리 길손이의 심리에는 ‘유머(humor)’¹⁹⁰⁾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암자에서의 생활은 5세의 어린 길손이에게는 지루하고 외로운 생활이다. 그래서 길손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나선다.

겨울잠에 빠져 있던 암자는 길손이의 소리로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별집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다람쥐굴을 파헤쳤다. 어떤 날은 별한테 쏘여서 머리에 혹이 났고, 어떤 날은 뱀굴을 다람쥐굴로 잘못 알고 건드렸다가 혼이 난 적도 있었다.¹⁹¹⁾

길손이는 호기심으로 암자와 주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겨울잠에 빠져 있던 암자는 길손이의 소리로 깨어나기 시작’한다. ‘별집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다람쥐굴을 파헤’친다. ‘어떤 날은 별한테 쏘여서 머리에 혹이 났고, 어떤 날은 뱀굴을 다람쥐굴로 잘못 알고 건드렸다가 혼이 난 적도 있’다. 길손이는 별집을 찾아다니면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지 알지 못한다. 뱀굴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탐색하러 다니는 일은 암자에서의 지루함이나 누나가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일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길손이는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주위의 탐구에 온통 몰입한다. 길손이의 자유분방한 정신 에너지는 ‘행동화(acting out)’의 방어기제로 작동된다. 길손이의 왕성한 탐구활동에 대한 행동화는 세상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자아를 탐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산 속의 암자에서 수도하는 스님과 생활하는 길손이는 절에 있는 누나

190) 조두영, 앞의 책, p.38.

유머(humor)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거북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자기 느낌을 즐겁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191) 위의 책, pp.167-168.

가 보고 싶어진다. 그러한 그리움을 해소하는 과정을 자아의 정신 에너지로 조정하고 있다.

“누나, 꽃이 피었다. 겨울인데 말이야. 바위 틈 얼음 속에 발을 묻고 피었어. 누나, 병아리의 가슴털을 만져본 적이 있지? 그래, 것처럼 꽃이 아주아주 보송 보송해. 저기 저 돌부처님이 입김으로 키웠나 봐.”

스님의 발소리가 났다.

스님은 빨래를 널고 오는 길이었다. 스님이 물었다.

“너 조금 전에 누구한테 말을 했느냐?”

“감이 누나한테 했어.”

“감이는 아래 큰절에 있지 않느냐?”

“아유 답답해. 누난 내 곁에도 지금 있는 거야. 감이 누나가 그랬어. 내가 있는 곳엔 어디고 감이 누나 마음도 따라와 있겠다고.”¹⁹²⁾

길손이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문들을 다 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길손이는 누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누나가 마치 곁에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 누나를 보고 싶지만 암자에서는 누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나가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길손이의 사고 작용과 분별력 있는 자아 에너지 사용의 과정이 드러난다. 길손이의 자아 에너지를 다스리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스님은 혼자서 중얼거리는 길손이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한다. 감이 누나가 보고 싶을 때 길손이는 꽃을 보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누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길손이의 심리에는 ‘억제(suppression)’¹⁹³⁾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길손이는 암자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게 된다. 누나가 보고 싶는데 스님은 누나의 모습인 솜다리꽃 하나도 못 피운다. 동무인 흰 구름도 나타나지 않는다.

192) 정채봉, 앞의 책, p.168.

193) 조두영, 앞의 책, p.31.

억제(suppression)는 의식적 또는 반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실연, 창피당한 기억들을 머리에 지우는 것이다.)

우두커니 서 있던 길손이가 갑자기 두 주먹을 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선방 문을 열고 스님을 불렀다.

“스님!”

그러자 스님은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갑자기 귀머거리가 되었는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앉아 있기만 하면 뭣해! 벽에 뭐가 있어? 숨다리꽃 하나도 피우지 못하구서!”

길손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문을 닫았다.

-중략-

길손이는 벌떡 일어났다. 우물가로 가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흰 구름은 산너머로 놀러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오기만 해 봐라, 혼내 놓을 테니.”¹⁹⁴⁾

길손이는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스님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스님을 따라서 암자에 오긴 했는데 심심하고 두렵고 누나가 보고 싶어진다. 길손이는 그 모든 원인이 스님 탓인 것 같아 스님에게 화가 난다. 늘 수행에 전념하기만 하는 스님의 수행에 대하여 의심이 시작된다. 스님이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의심하는 마음은 길손이에게 불안으로 다가온다. 자아 에너지를 잘 다스리던 길손이의 심리가 불안의 이드의 에너지에 기울어지게 된다. 길손이는 자유롭고자 하는 정신 에너지가 동요되면서 스님과 흰 구름에게 화가 난다. 자기도 마음의 문을 열고 싶는데 스님은 그 방법을 알고 나 있는지 불안하다. 언제 스님의 도움을 얻어 누나에게 우주 삼라만상을 실재하는 것처럼 잘 말해줄 수 있을지도 의심이 간다. 길손이는 그러고 있는 스님이 답답하여 화가 난다. 스님과 흰 구름에 대하여 화가 난 길손이의 심리에는 ‘전치(displacement)’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스님에 대한 길손이의 마음처럼 분노는 다른 대상에게 전치되기 쉽다. 스님에게 화가 난 길손이는 친구로 삼았던 구름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흰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다. 길손이는 혼자 자신을 고독하게 내버려두는

194) 위의 책, pp.168-169.

스님과 흰 구름에게 화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궁극적으로 길손이 자신의 정신 에너지의 집착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길손이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충족을 관세음보살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길손이는 들어가지 말라는 관세음보살 그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며 누나에게 말한다. 길손이는 암자의 골방에서 발견한 관세음보살 탕화를 보며 엄마를 느낀다. 길손이는 그림 속에서 환하게 웃는 관세음보살님의 웃음에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된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걸요. 정말
이어요. 내 소원을 말할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약속하지요? 내 소원
은……, 내 소원은……, 저……, 엄마를……. 엄마를 가지는 거예요. 저……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중략-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셔?”

“오고말고. 네가 마음을 다하여 부르면 꼭 오시지.”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

“이 녀석아, 엄마가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라니까.”

길손이는 가만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¹⁹⁵⁾

스님이 외출을 나가면서 깊은 산중에 혼자 남게 될 길손이에게 무서우면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라고 한다. 길손이는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이 부분은 길손이가 이후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를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음을 다해 부른다는 것은 자아의 에너지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미와도 같다. 관세음보살이 어머니가 되어주길 바라는 길손이의 심리에는 ‘전이 동일시(transference identification)’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이전 서술에서 길손이가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시사하고 있다. 길손이의 자아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일이다. 이전 서술에서 길손이가 자아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각오가 드러난다. 스님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길손

195) 위의 책, pp.174-176.

이를 혼자 남겨둔다. 스님은 길손이에게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라고 당부한다. 스님의 당부에 길손이의 의지가 드러난다.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손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아의 정신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는 부분이다.

뒷산 관음봉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소리도 없이 내려오는 것을 스님은 보았다.

여인은 길손이를 가만히 품에 안으며 말하였다.

“이 어린아이는 곧 하늘의 모습이다.

- 종락-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¹⁹⁶⁾

스님이 폭설로 인해 암자에 가지 못하고 길손이 혼자 암자에 머무르게 된다. 길손이는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님’을 부름으로써 길손이의 자아가 추구하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상의 길손이었던 길손이는 흰 구름과 같이 떠돌 수 있는 정신 에너지가 자유로운 세계, 관세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원하는 고지에 다다르기 위해 길손이의 심리에는 ‘승화(sublimation)’¹⁹⁷⁾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그 경지는 무의식의 갈등과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승화된 궁극의 경지이다.

<오세암>은 5세인 길손이¹⁹⁸⁾가 미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인 방어기

196) 정채봉, 앞의 책, p.182.

길손이의 누나인 감이는 ‘예견(anticipation)’의 방어기제가 주로 작동된다. 길손이의 누나 감이는 스님과 함께 길손이가 있는 암자로 올라가면서 길손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스님보다 먼저 느끼게 된다. 그것은 감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예견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스님의 ‘자기에로의 전향(turning against self)’ 방어기제의 작동이다. 스님은 길손이의 승화 이후 자신의 불교 공부에 대하여 ‘자기에로의 전향(turning against self)’의 기제가 작동된다. 어린 길손이는 부처가 되어 승화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스님은 ‘설장’이라는 자신의 범명과 같이 아직 수도가 미숙한 대비적 인물로 드러난다.

197) 조두영, 앞의 책, p.36.

승화(sublimation)는 본능적 욕구나 참아내기 어려운 충동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둔감하여 출구를 찾아 의식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198) <오세암>에서 길손이의 누나인 감이도 ‘예견’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자아의 실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스님은 아직도 ‘자기관찰’의 자아의 탐색에 머무르고 있음을

제가 작동되다가 자아의 정신 에너지를 궁극의 목표를 위해 마음을 다해 부름으로써 승화에 이른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에 관한 동화이다.

2) ‘승화’의 민들레꽃을 피운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은 골목길 담 밑의 구석자리에 흰둥이가 누고 간 똥이다. 추운 겨울, 구석자리, 똥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강아지 똥의 탄생은 축복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강아지 똥은 이처럼 탄생에서부터 고독과 소외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갓 세상에 나온 강아지 똥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한 강아지 똥에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온다.

추운 겨울, 서리가 하얗게 내린 아침이어서 모락모락 오르던 김이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오들오들 추워집니다.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 강아지 똥 곁에 앉더니 주둥이로 콧! 쪼아 보고, 뽀뽀 침을 뱉고는,
"똥 똥 똥 ……에그 더러워!"
종알거리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강아지 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참새가 날아간 쪽을 보고 눈을 힘껏 흘려 줍니다. 밍고 밍고 또 밍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¹⁹⁹⁾.

강아지 똥이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날아가던 참새가 강아지 똥의 존재를 일깨워 준다. ‘똥 똥 똥 ……에그 더러워!’ 흔히 ‘똥’은 무가치하고 더러워서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드러내게 된다.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본능적으로 자기애가 내재되어 있다. 자기애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본능이며 존재 그 자체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런데 강아지 똥은 태어나자마자 똥이라는 명명만으로 존재가치를 무시당하게 된다. 참새는 강아지 똥을 단지 똥이

드러낸다. <오세암>에서 이처럼 등장인물의 정신 에너지의 대비를 통해서 인물들의 자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9) 권정생, 앞의 책, pp.50-51.

라는 이유만으로 더럽다고 치부한다. 참새로부터 비난을 받은 강아지 똥의 심리에는 ‘부정’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이야기의 첫 번째 대조인물인 참새는 똥은 전적으로 더러운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전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인물로 드러난다. 참새는 이처럼 어떤 심상에 있어 무조건 좋은 것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분리하는 자기애적 방어기체인 ‘분리’가 작동되는 인물로 드러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세상에 조용하게 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을 가진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참새처럼 주관과 객관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드의 에너지에 기울어진 시기에서 흔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 사물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이면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자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판단력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어 기억된 영상들을 사고하여 뇌리에서 재구성하고 유효성에 따라 구분하는 일이다. 그런데 참새는 단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인물로 똥을 더러운 존재라고 한다. 그런데 똥에 대해 좀 더 사고를 확장해 본다면 똥 또한 처음부터 똥은 아닌 것이다. 어떤 생명체의 맛있는 먹이었을 것이고 그 먹이를 먹은 생명체는 체내의 소화기관에서 영양분을 소화하여 생명유지에 소중히 활용한 과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남은 배설물을 똥으로 내보내게 된다. 강아지 똥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겪은 산물이다. 배설물의 결과인 똥 그 자체에도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부정적인 존재방식으로는 더러운 똥이니까 그저 세상을 오염시키다가 사라지는 일이다. 이 경우는 무의식의 에너지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자아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유형과도 같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존재방식으로는 더러운 똥이지만 에너지가 변환되어 두엄으로써 식물을 더욱 잘 자라게 하는 일에 쓰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무의식의 에너지에서 깨어나서 자아가 유효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강아지 똥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참새에게 똥이라는, 더럽다는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써 속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강아지 똥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참새를 향하여 눈을 흘겨주며 본능적으로 자아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똥이라는, 더럽다는 참새의 단정에 대해 부정한다. 강아지 똥이 참새의 공격에 화가 나 있을 때 흙덩이가 히죽거린다.

강아지 똥이 그렇게 잔뜩 화가 나서 있는데, 소달구지 바퀴 자국 한가운데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바라보고 빙긋 웃습니다.

"똥똥에 웃니, 넌?"

강아지 똥이 골난 목소리로 대답니다.

"똥을 똥이라 앓고, 그럼 뭐라고 부르니?"

흙덩이는 능글맞게 히죽 웃으며 되물습니다.

강아지 똥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목 안에 가득 치미는 분통을 억지로 참습니다. 그러다가,

"똥이면 어쩌니? 어쩌니!"

발악이라도 하듯 소리 지릅니다. 눈물이 글썽해집니다.²⁰⁰⁾

강아지 똥은 참새로부터 똥이라는 말, 더럽다는 단정적인 말에 마음 속에 미움이 싹트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소달구지 바퀴 자국 한가운데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또 강아지 똥을 바웃는다. 화가 난 강아지 똥은 '똥똥에 웃니, 넌?'하고 흙덩이에게 대어든다. 그러나 흙덩이는 '똥을 똥이라 앓고, 그럼 뭐라고 부르니?'라고 반문한다. 흙덩이의 말에 강아지 똥은 할 말을 잃고 분통을 삼킨다. 그러다가 '똥이면 어쩌니? 어쩌니!'라며 소리를 지른다. 강아지 똥이 흙덩이에게 소리 지르며 대어드는 행동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는 이드의 자기보존본능에서 발로된 것이다. 참새로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창피를 당한 강아지 똥은 갈등과 불안에 처하게 된다. 불필요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위

200) 위의 책, pp.51-52.

협이다. 그러한 강아지 똥에게 흙덩이가 또다시 창피를 주게 되자 강아지 똥은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서 눈물이 글썽해진다. 흙덩이로부터 또 다른 비난을 받은 강아지 똥의 심리에는 ‘부정’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타인에 대해 공격을 가한다면 필경 적들이나 권위체로부터 역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²⁰¹⁾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참새에게 공격을 받은 강아지 똥은 무척 속이 상한다. 참새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아지 똥은 자존심(self-esteem)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된 것이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강아지 똥으로서는 자기보다 성숙한 참새나 흙덩이에 비해 더욱 심한 상처를 입기 쉽다. 전환하면 대체로 약한 자존심을 가진 자들은 미숙한 방어기제가 작동되는 자들이다. 자아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자들에 비해 상처를 심하게 입을 수 있다. 이처럼 자존심이 약한 자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나 유지하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강아지 똥이 참새에게 자존심의 공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을 때 자존심이 회복될 상황도 없이 흙덩이에게 또 다시 공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강아지 똥의 상처는 배가되며 공격자를 향한 본능적 충동이 일어나 자신도 공격을 하게 된다.

강아지 똥은 기어이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울면서 종알거렸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울통불통하고, 시커멓고, 마치 도둑놈같이…….”²⁰²⁾

자존심을 유지하는 일은 정신적 안정을 구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 자아가 미약한 강아지 똥은 자기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강아지 똥은 기어이 울음보를 터뜨린다. 울면서 종알거린다. 강아지 똥의 미약한 자아는 높은 불안과 우울, 부적응, 정서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아지 똥은 자아의 안정을 찾기 위해 흙덩이에게 ‘그럼, 너는 뭐야? 울통불통하고, 시커멓고, 마치 도둑놈같이…….’라고 종

201)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10.

202) 권정생, 앞의 책, p.52.

알거리게 된다. 흙덩이의 공격을 받은 강아지 똥의 심리에는 울면서 저항하는 ‘행동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강아지 똥을 공격하던 흙덩이의 심리에는 생존에 대한 위협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 강아지 똥에게 공격하던 흙덩이는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강아지 똥에게 사과를 한다. 그리고는 강아지 똥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드러내어 후회한다. 강아지 똥은 흙덩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강아지 똥은 흙덩이가 기억을 재생하여 판단하고 사고하는 자아 에너지를 사용하는 흙덩이의 노력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흙덩이의 이야기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원죄의식의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흙덩이는 이야기를 마친 다음 강아지 똥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한다. 흙덩이의 말에 강아지 똥은 ‘나 같은 더러운 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겠니?’라며 무의식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드러낸다. 그러자 흙덩이는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비취준다. 강아지 똥에게 귀한 삶의 에너지에 빛을 준 흙덩이는 ‘밭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곡식을 가꾸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의 목표에 이르게 된다. 강아지 똥은 흙덩이가 밭으로 떠나자 혼자 쓸쓸해진다.

‘그 애가 죽지 않고 도로 살던 곳에 가게 된 것이 참말 다행이야. 그럼 난 혼자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

강아지 똥은 고개를 갸우뚱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조금 전에 흙덩이가 일러 준 말을 되뇌어 봅니다.

‘정말 나도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면 무엇에 귀하게 쓰일까?’

해가 저물도록 혼자 웅크리고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²⁰³⁾

강아지 똥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참새와 흙덩이로부터 공격을 받아 존재에 대한 의문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인물이다. 강아지 똥의

203) 권정생, 앞의 책, p.61-62.

존재불안은 삶의 본능에너지를 끌어내는 데 힘들게 할 수 있다. 자신이 똥이며, 더러운 존재라는 현실 인식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진다. 그래서 참새와 흙덩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치는 무가치한 것인지, 아니면 흙덩이가 떠나면서 일러 준 것처럼 ‘귀하게 쓰일’ 날이 올 지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강아지 똥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불안과 긴장과 공포의 파괴적인 에너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가 강아지 똥은 존재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흙덩이가 일러준 말을 되뇌어 본다. ‘정말 나도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면 무엇에 귀하게 쓰일까?’ 강아지 똥은 본능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강아지 똥은 해가 저물도록 혼자 웅크리고 앉아 생각하며 ‘주지화’의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흙덩이가 남긴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것을 생각하는 강아지 똥의 심리에는 ‘주지화(intellectualization)²⁰⁴⁾’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강아지 똥의 자아 에너지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사고하고 탐색하며 본능의 에너지를 변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강아지 똥에게 엄마 닭이 나타난다. 몸이 되어 병아리를 데리고 나와 먹을 것을 찾던 엄마 닭은 강아지 똥에게 ‘너는 아무 필요도 없어.’라며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한다.

‘나는 역시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찌꺼기인가 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눈물이 나오고…….205)

강아지 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불안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다. 자신이 세상에 가치가 있을 지 아니면 무가치할 지에 대한 끝없는 불안에서 헤어날 수 못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본능에 내재하는 두

204) 조두영, 앞의 책, p.37.

주지화(intellectualization)는 정서와 충동을 누르기 위해 그것들을 경험하는 대신 그것들에 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다.

205) 권정생, 앞의 책, p.66.

힘인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과의 처절한 대결이다. 강아지 똥은 참새와 흙덩이가 존재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똥이라는 사실과 똥은 더럽다는 엄정한 현실로 인해 불안과 긴장이 더해간다. 강아지 똥은 존재가치를 찾는 일에 확신을 얻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더구나 외부환경인 날씨마저 추운 겨울이라 강아지 똥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고 경직된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삶이 긴장감으로 팽팽할 때 강아지 똥에게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조력자는 없다. 강아지 똥은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외톨이기에 스스로를 신뢰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자생력을 생성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강아지 똥의 자아가 스스로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릴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 강아지 똥은 존재가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춥고 긴 겨울을 참고 봄을 맞이한다. 세상에 봄이 오듯이 강아지 똥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어떤 희망의 기운이 싹튼다. 하지만 그러한 강아지 똥에게 또 다른 외부 인물인 엄마 닭이 상처를 주고 떠난다. 강아지 똥은 엄마 닭의 말에 또 다시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에 빠지며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강아지 똥의 이러한 회의는 아직은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강아지 똥은 불안감이 고조되어 자신의 존재를 탓하며 눈물을 흘린다. 엄마 닭의 말에 강아지 똥의 심리에는 ‘자기에로의 전향(turning against self)’²⁰⁶⁾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그러던 강아지 똥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귀한 삶의 빛에너지를 발견한다. 강아지 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불빛’이 되고자 한다. 강아지 똥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참새, 흙덩이, 엄마 닭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된다. 아직은 자아의 정신 에너지가 미약하고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강아지 똥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심리적인 상처로 남는다.

206) 이무석, 앞의 책, p.175.

자기에로의 전향(turning against self)은 공격적인 충동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강아지 똥은 눈부시게 쳐다보다가 어느 틈에 그 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불빛."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더러운 똥이라도 조금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 똥은 자꾸만 울었습니다. 울면서 가슴 한 곳에다 그리운 별의 씨앗을
하나 심었습니다.²⁰⁷⁾

긴장감과 불안과 고독으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은 강아지 똥의 자아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강아지 똥은 마음에 심어진 한 가지 소망을 잊지 않는다. 그것은 흙덩이가 말해주었던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는 삶의 에너지가 지닌 궁극의 목표이다. 거듭되는 존재에 대한 위협과 그로 인한 회의에도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삶의 궁극의 목표는 별빛으로 이어진다. 강아지 똥은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그날을 위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불안과 긴장을 참고 견딘다. 무엇인가 귀하게 쓰이기 위하여 인고하는 강아지 똥의 심리에는 ‘억제’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강아지 똥은 참새와 흙덩이와 어미닭의 거듭되는 존재의 위협에도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자아의 궁극의 목표에 이른다.

“내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난다면, 온 몸을 녹여 네 살이 될게.”
비는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온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습니다. 땅 속으로 모두 스며들어가 민들레의 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줄기를 따고 올라와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향긋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²⁰⁸⁾

강아지 똥은 자신이 무엇인가 소중하게 쓰일 날을 위해 추운 겨울을 인내한다. 강아지 똥은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려서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봄이 되자 민들

207) 권정생, 앞의 책, pp.66-67.

208) 위의 책, p.70.

레 짝이 돌아나서 강아지 똥에게 거름이 되어달라고 한다. 강아지 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불빛’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는 자디잘게 부서진다. 그리고는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 민들레꽃을 피워 아름다운 불빛이 된다. 강아지 똥은 민들레 짝을 만난다. 아름다운 불빛이 되고자 했던 강아지 똥은 ‘승화’의 민들레꽃을 피워낸다.

이상과 같이 <강아지 똥>은 세상에 태어나서 참새와 흙덩이를 통하여 자아를 각성하고, 어미닭을 통하여 자아를 탐색하며, 민들레를 통하여 승화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의 동화이다.

3) 小結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오세암>, <강아지 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세암>에서 길손이의 심리에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관하여 동화의 플롯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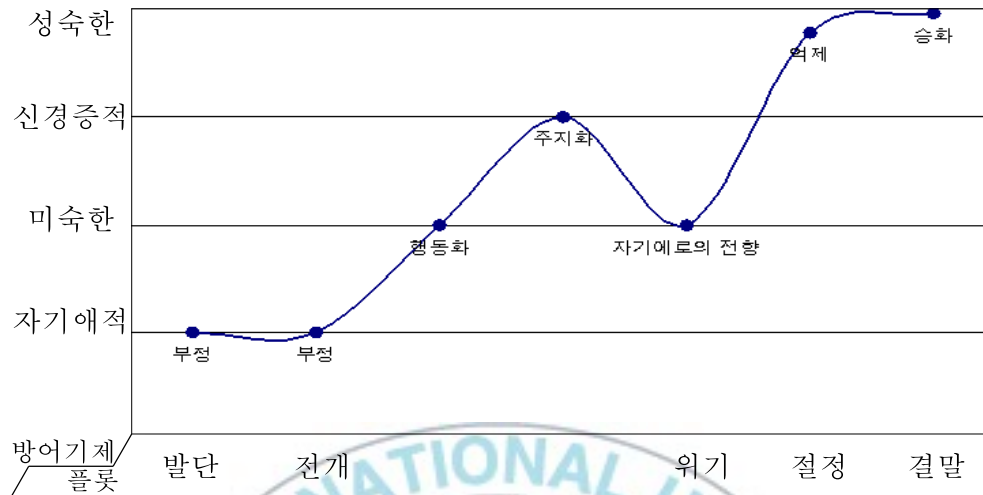


[그림 6] <오세암>의 방어기제와 정신 에너지의 흐름

<오세암>에서 주인공 길손이는 상징화, 예견, 퇴행, 행동화, 동일시, 유머, 행동화, 억제, 전치, 동일시, 승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길

손이는 5세의 어린 나이이다. 그럼에도 길손이는 자기애적 방어기제가 작동되지 않는다. 5세의 어린 아이답지 않게 신경증적 방어기제의 운영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길손이는 스님의 모습을 묘사하여 장님 소녀인 누나에게 다음과 같이 상징화한다. ‘스님이야, 머리에 머리카락 씨만 뿌려져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상징화는 자신의 이름이 떠돌이라는 뜻의 길손이라는 설명과, 누나 이름은 눈을 감았으니까 감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야기의 발단에서 길손이는 범상한 아이와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 스님이 누나와 길손이를 절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길손이는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 우리를 데려가도 높은 사람이 눈치 안 해?’ 이 부분은 길손이가 예견의 기제가 작동되는 예다. 어린 아이지만 누나와 자기를 절로 데리고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한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길손이는 절에서의 자유롭지 못함에 대해 퇴행, 행동화, 동일시를 통하여 보여준다. 수도를 하는 절에서 길손이의 퇴행, 행동화의 작동은 길손이가 암자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 누나와 헤어져 스님과 둘이서 암자로 가게 되는 길손이는 흰 구름을 누나와 동일시하는 기제가 작동된다. 그래서 흰 구름이 비친 개울물을 물초롱에 담아 암자로 들고 간다. 암자에도 물이 있는데 굳이 물을 담아가는 길손이의 마음을 스님은 헤아리지 못한다. 암자로 가는 길에 다음과 같이 스님에게 유머의 기제가 작동되기도 한다. 길손이는 ‘귀떼기청봉? 그럼 코떼기청봉도 있겠네?’라며 유머를 건넨다. 스님과 단 둘인 암자에서의 생활은 길손이에게는 고독한 시간이다. 스님은 수도에만 전념하고 길손이는 혼자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심심한 길손이는 행동화의 기제가 작동되기도 한다. 누나가 보고 싶은 마음은 억제의 기제가 작동된다. 누나에 대한 그리움과 나아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동일시의 기제가 작동된다. 이후 암자에 홀로 남겨진 길손이는 성숙한 방어기제인 승화의 경지에 이른다.

<강아지 똥>에서 강아지 똥의 심리에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관하여 동화의 플롯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강아지 똥>의 방어기제와 정신 에너지의 흐름

<강아지 똥>에서 강아지 똥은 부정, 부정, 행동화, 주지화, 자기에로의 전향, 억제, 승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강아지 똥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존재에 대해 참새로부터 더럽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 존재가치에 대한 부정은 생존 자체에 대한 파괴적인 에너지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아지 똥은 참새의 공격에 저항하며 부정한다. 강아지 똥은 또 다른 인물인 흙덩이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 강아지 똥은 거듭되는 공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생각하는 부정의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강아지 똥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공격을 한 흙덩이에게 대항하여 행동화의 방어기제로 맞선다. 그러자 흙덩이가 태도를 바꾸어 강아지 똥에게 용서를 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자기에로의 전향 기제가 작동되며 다시 발으로 되돌아간다. 강아지 똥은 남을 공격하는 흙덩이의 내면에도 근원적 갈등이 존재함을 인식한다. 강아지 똥은 흙덩이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자 한다. 강아지 똥은 존재의 가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주지화의 기제가 작동된다. 어느 봄날, 강아지 똥은 엄마 닭으로부터 또다시 쓸모없는 찌꺼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때 강아지 똥은 흙덩이가 보여준

자기에로의 전향 기제가 작동되며 저절로 한숨짓고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강아지 똥은 아름다운 별빛을 희망의 씨앗으로 심으며 억제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강아지 똥은 희망의 씨앗으로 에너지를 지원받고 승화의 민들레꽃을 활짝 피운다.

다음으로 <오세암>, <강아지 똥>에 나타난 정신 에너지의 사용과 동화의 자아에 관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 및 정신 에너지 사용

구분	오 세 암		강아지 똥		자아 양상	자아 유형
	방어기제 종류	정신 에너지 사용	방어기제 종류	정신 에너지 사용		
자기애적 방어기제		x	부정	○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	자아의 각성
미숙한 방어기제	퇴행, 행동화, 동일시	○	행동화 자기에로의 전향	○		
신경증적 방어기제	전치, 상징화	○	주지화	○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	자아의 탐색
성숙한 방어기제	예견, 유머, 억제, 승화	●	억제, 승화	●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	자아의 실현

※ 정신 에너지 사용여부 : ●=집약적 사용, ○=제한적사용, x=사용안함

<오세암>에서 길손이는 5세의 어린 나이지만 자기애적 방어기제가 작동되지 않는다. 길손이는 미숙한 방어기제인 퇴행, 행동화, 동일시의 기제가 작동되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를 뛰어넘는다. 길손이는 전치 상징화의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충동과 억제가 요동치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를 지난다. 길손이의 심리에 작동되는 성숙한 방어기제는 예견, 유머, 억제, 승화이다. 길손이는 성숙한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자아 에너지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인 승화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므로 <오세암>은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길손이의

자아가 승화의 경지에 이른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의 동화다.

<강아지 똥>에서 강아지 똥은 자기애적 방어기체인 부정의 기제가 반복 작동되고 있다. 강아지 똥은 똥이라는, 더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공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강아지 똥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강아지 똥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를 뚫어낸다. 미숙한 방어기체인 행동화로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지만, 자기에로의 전향으로 존재가치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강아지 똥은 거듭되는 비난에도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각성기를 도약하는 자아 에너지를 이드로부터 지원받는다. 강아지 똥은 신경증적 기체인 주지화의 기제로 주변의 인물들로부터 받은 공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이 시기의 강아지 똥은 충동과 억제가 요동치는 자아의 양상을 드러내며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의 에너지를 얻는다.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로 진입한 강아지 똥은 성숙한 방어기체인 억제로 삶의 에너지인 별빛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다. 이와 같이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강아지 똥은 민들레꽃의 거름이 되어 세상에 환한 별빛으로 승화되는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의 동화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오세암>, <강아지 똥>은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에 관한 동화이다. 퍼스넬리티의 안정을 추구하는 이 유형은 전기의 자아의 각성과 중기의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의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아 에너지가 작동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게 된다. 자아의 실현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자아가 조화와 적응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도달되는 이상의 경지이다. 두 동화에서 방어기제를 통한 동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오세암>의 길손이는 미숙한 방어기제, <강아지 똥>은 자기애적 방어기제와 미숙한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길손이와 강아지 똥은 동화 초기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을 보이며 자아의 각성 유형을 드러낸다. 이후 길손이와 강아지 똥은 미숙한 방어기제와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이 시기

는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의 양상을 보이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두 주인공은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을 보이는 후기의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이 때 자아는 완전한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과 거름이 되어 타인의 삶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유형은 인간의 자아가 성숙의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이상적인 유형이다. 그러므로 <오세암>, <강아지 똥>은 자아의 실현 유형을 보여주는 동화이다.



VI. 한국 현대동화의 심리적 특성

한국 현대동화의 주인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에 대처하며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동화의 주인공은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자아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주인공은 방어기제 작동과 관련하여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릴 수 있을 때 심리 작용의 발달과 함께 퍼스낼리티의 발달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동화의 자아가 문제해결에 주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자아의 퍼스낼리티가 변화하고 발달하는 등에 관한 이야기는 자아의 정신 에너지의 운용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심리적 특성 고찰을 위해 동화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 보이는 자아의 문제해결에 관하여 살펴보고, 자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며, 인간의 퍼스낼리티에 관하여 조명하고, 자아의 정신 에너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아와 문제해결

인간은 살아가면서 부단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간이 부딪치는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순간 인간의 심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한 원인은 심리적 영감을 조절하여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동화는 인간이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사건화 되며 그 사건의 중심에 주인공이 자리하게 된다. 그래서 동화의 주인공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의 해결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동화 구성의 한 요소인 플롯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인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동화에서는 사건이라고 한다. 주인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큰 사건’이라고 인식할 만큼 확실한 문제일 때 아동들의 흥미와 공감도 크게 얻어낼 수 있다. 이처럼 동화의 도입 단계에서 주인공의 확실한 문제의식을

공감할 때 동화에 대한 흥미를 더욱 느끼게 된다. 동화의 사건 제시가 아동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아동들의 생활이나 사고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경우에 동화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주인공과의 동일시 등의 심리적 거리도 멀어질 수 있다.

동화의 사건인 문제와 해결방법, 정신 에너지의 흐름,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 <고물 자전거>, <아프리카 새깁디>, <오세암>, <강아지 똥>을 조명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자아와 문제해결

구분	자아의 각성		자아의 탐색		자아의 실현	
현대 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	오세암	강아지 똥
주인공의 표면적 문제	바위나리를 만나지 못함	봄날 애상	장 애 이상준이에 대한 증오	아버지에 대한 불만	외부환경적 고립	외부환경적 고립
주인공의 내면적 문제	하늘나라 임금님의 억압에 대한 갈등	고향과 순이에 대한 그리움	공격욕과 억제력 사이의 자아갈등	소외감으로 인한 자아갈등	심리적 고립	자아존재의식 의문
문제 해결 방법	정면 돌파보다 문제 회피하기	꿈을 통한 일한 해결	대상 공격을 통한 자아반성	공격적 행동을 통한 자아반성	존재불안을 승화	존재불안을 승화
정신 에너지 흐름	무의식→자아→무의식으로 회귀	의식→무의식	무의식→자아	무의식→자아	무의식→자아→초자아	무의식→자아→초자아
심리적 안정	불안가중	불안잔류	안정지향	안정지향	안정	안정
심리적 성숙	미숙	미숙	성숙지향과정	성숙지향과정	성숙	성숙
동화독자 문제해결 시사점	바른 문제해결법 찾기	의식수준에서의 문제해결법 찾기	공격성양사고와 행동성찰	적절한 사고와 행동성찰	주인공의 의지 본받기	자아성찰 태도 본받기

첫째, 자아의 각성 유형의 동화가 보여주는 문제해결에 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기별의 표면
적 문제는 하늘나라의 아기별이 바닷가의 바위나리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다. 그러나 표면적 문제의 이면에 잠
재된 아기별의 내면적 문제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억압에 대한 긴장과 불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아기별은 자아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정면 돌파하여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아기별은 문제해결
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현실의 일시적인 안정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해결방법은 오히려 아기별의 불안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기별의 문제해결방법을 통하여 잘못된 문제해
결은 자아를 더 큰 불안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
로 아기별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꿈을 찍는 사진관>의 문제해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인공인 ‘나’의 표
면적 문제는 타향에서의 외로움으로 인한 봄날의 애상이다. 나의 애상의
내면에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시간과, 만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한다. 동화의 주인공인 나
의 정신 에너지가 가장 집약되는 부분은 자기애의 출발점인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이는 북한에 있으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순이를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없다. 그래서 동화
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고향을 복원하고, 만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꿈
을 매개로 한다. 나의 고향과 순이에 대한 그리움은 정신의 영역으로 볼
때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꿈을 매개로 하는 해결방법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회귀해 버리게 된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움의 문제는 그대로 존치하며 자아의 안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

둘째, 자아의 탐색 유형의 동화가 보여주는 문제해결에 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아프리카 새깁디>의 문제해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화의 표면적 문제는 장애아 상준이가 나의 신경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인 ‘나’의 내면적 문제는 장애아 상준이에 대한 미움의 정신 에너지에 대한 충동을 느낌으로써 초자아의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상준이의 장애는 마치 나의 욕구 충족에 방해되는 것처럼 다가오면서 상준이에 대한 공격욕구가 점점 힘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상준이의 생각 없는 행동에도 나는 상준이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게 된다. 대상 공격을 행동화하는 가운데 초자아의 도덕적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준이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연민의 감정으로 돌아서게 된다. 상준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나의 자아가 판단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예측하는 능력 등의 발달을 조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인공인 ‘나’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자아의 의지로 억제함으로써 자아의 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고물 자전거>의 주인공 영신이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간다. 영신이의 정신 에너지는 이드의 충동적인 에너지에 집중된 아직은 자아가 미성숙한 인물이다. 성숙한 인물의 아버지는 생활력이 강하며 절약하는 삶을 강조한다. 하지만 영신이는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억압하는 권위자로 느껴짐으로써 공격적이 된다. 체육복과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니 더 입고 더 신으라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더해진 영신이는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을 충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고물 자전거를 팔아버리고 만다. 그러한 문제해결의 결과에 대해 영신이는 스스로 부적절한 해결책이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영신이의 자아는 아버지를 향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전환되어 자아의 안정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역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영신이의 자아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절한 사고와 가족이라는 관계 이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자아 안정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안정을 가져오는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성찰이다.

셋째, 자아의 실현 유형의 동화가 보여주는 문제해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세암>의 길손이의 문제해결 과정은 길손이의 이름과 연관성을 지니며 드러나게 된다. 동화에 드러난 길손이의 표면적 문제는 장님 누나에게 세상이치를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다. 길손이의 내면적 문제는 욕망이나 자아의 에너지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고자 한다. 그래서 길손이는 나그네처럼 길손이는 흰 구름과 같이 정신의 자유로움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한 길손이에게 절에서의 생활은 자유로움을 구축하는 일이며 그래서 퇴행이 일어나기도 한다. 길손이는 암자에서 궁금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마음껏 탐구한다. 누나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낸다. 길손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아의 에너지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된 암자에서 자아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인 승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강아지 똥>의 문제해결은 존재의식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동화의 주인공인 강아지 똥의 표면적 문제는 추운 겨울 길모퉁이에 놓인 더러운 강아지 똥이라는 외부 환경적 고립으로 드러난다.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고, 공간적으로 길모퉁이 담벼락이며, 기능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고, 형태적으로 못생긴 똥이라는 사실은 강아지 똥의 내면에 철저한 존재불안의 문제로 인식된다. 강아지 똥은 이러한 내면적 존재불안의 문제에 참새와 흙덩이와 어미닭이 공격을 가함으로써 더욱 존재불안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강아지 똥은 그러한 불안 의식을 자아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민들레꽃의 개화를 조력하게 된다. 강아지 똥은 참새와 흙덩이와 어미닭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아의 존재가 파괴적인 에너지에 기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아지 똥은 그 때마다 시련을 참고 견디며 자아 에너지에 힘을 기울인다. 강아지 똥은 스스로 자아의 발달을 조력하며 적어도 세 번의 큰 시련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

래서 강아지 똥은 자아의 궁극의 목표인 빛이 되는 승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화에는 사건이 드러나고 그 사건의 중심에 주인공이 처해 있다. 즉 동화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동화의 과정은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할 수 있다. 이야기의 자아는 본능적 갈등이나 불안에 처하게 되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동화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동화의 주인공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된다. 즉 동화의 주인공이 그래서 자아의 안정을 되찾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하게 되었느냐의 문제에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는 동화의 독자인 아동들의 심리로 전이될 수 있으며 아동들의 현실적 문제해결책을 지원할 수도 있다. 동화의 인물이 무의식의 본능적인 충동에 처해졌을 때 합리적인 문제해결력이 요청된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자아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이드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힘이 나 초자아의 이상화된 억제하는 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자아의 현실원칙을 놓치게 되어 자아의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자아가 불안해지면 적절하지 못한 방어기제가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경우에 현실적인 자아, 건강한 자아가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한국 현대동화에는 주인공의 문제해결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다양한 동화를 읽는다는 것은 주인공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일과 같다. 동화의 독서량이 많다는 것은 자아를 다스리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자아가 조화되는 과정은 인간의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점점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과 같다.²⁰⁹⁾ 자아의 조화를 추구

209)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10.

하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인물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 다양한 인물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에너지의 지원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부단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또 ‘빠져나오려는 방어기제’²¹⁰⁾를 선택하게 된다. 처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어기제가 작동되느냐에 따라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거나 자칫 증상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동화에서 주인공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방어기제가 작동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와 방어기제

동화는 의인화된 인물을 포함하여 주인공인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동화의 주인공인 인간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미묘한 에너지 체계를 지닌 복합체의 상징적 인물이다. 동화의 전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정신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전개이다. 인간은 음식물 섭취로 에너지를 얻어 호흡, 순환, 소화, 신경 전달, 근육활동, 인지, 사고활동, 기억재생, 판단 등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 인간이 지닌 정신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인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동화의 주인공들은 각기 어떤 사건에 처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과 긴장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나름의 대처방안으로 문제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동화는 주인공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정신 에너지 작동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의 일정 지점에 처한 동화의 주인공들은 자신을 갈등과 불안,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정신 에너지인 방어기제가 작

210) 동화에서 문제해결을 조력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도깨비 방망이, 요술봉 등을 들 수 있다.

동된다.

사건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어기제는 인간 내면에 작동되는 심리기제이다. 방어기제는 자아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잘못 작동될 경우에 자아를 더욱 손상하게 되기도 한다. 방어기제의 작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아는 무력하게 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그 결과 개체는 신경증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²¹¹⁾ 그러나 방어기제가 바르게 작동될 경우에는 자아 발달을 조력하여 개별적 자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자아로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특성이란 그가 어떤 방어기제들을 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¹²⁾ 이와 관련하여 한국 현대동화에서 방어기제의 작동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자아 발달의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의 세 유형의 동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유형의 동화는 방어기제 작동이 미숙한 자아의 각성 유형의 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 방어기제가 적절히 작동되는 자아의 탐색 유형의 동화 <아프리카 새깁디>, 방어기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에 빛이 되는 경우의 자아의 실현 유형의 동화 <오세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방어기제 작동이 서툴러서 자아를 부적절하게 하는 작품으로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동화를 들 수 있다. 아기별에게 있어 방어기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아기별의 현실적 자아를 구속하게 되어 자아의 융통성과 적응력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아기별이 하늘나라에서 억압을 느낄수록 아기별의 자아는 오히려 무력하게 되고 회피와 반동형성 등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어기제의 작동은 자아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아기별을 오히려 또 다른 불안에 처하게 된다. 바위나리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규율 또한 지키지 못하게 된다. 아기별은 무력해지게 되고 갈등의 뿌리인 신경이 예민해지게 된다. 아기별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211)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74.

212) 이무석, 앞의 책, p.161.

정신을 잃게 되어 바다로 떨어지고 만다. 아기별에게 있어 방어기제의 작동은 오히려 자아발달을 조력하지 못하고 자아를 파괴하게 되는 유해한 기제이다.²¹³⁾ 하지만 이처럼 잘못 작동되면 유해할 수도 있는 방어기제일지라도 인간의 성장과정을 조력하는 무의식의 심리적 기제이며 자아의 보호막이다. 유아기의 자아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요구를 통합하고 종합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 따라서 자아의 방어기제는 하나의 보호 장치로서 채택된 것이다.²¹⁴⁾ 아기별에게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들의 자아는 마음의 세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정신 에너지의 배분을 살펴볼 때 이드의 욕망에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며, 현실인식이 미약하고, 초자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나약하다. 그러므로 자아의 방어기제는 아동의 존립을 위한 비호 장치로 투입되어 아동의 심리적 위험을 경감하는데 기여한다. 대체로 아동들에게 작동되는 부적절한 방어기제의 유형에는 부정, 투사, 반동형성, 고착, 퇴행 등의 예들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방어기제는 아동의 자아를 다양한 방어기제 작동으로 지켜내는데 이후에도 자아가 발달하지 못할 경우에 방어기제는 자아의 주위를 맴돌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버틴다. 본능은 정신 에너지의 총량이기 때문에 이드는 정신 에너지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저장 창고라고 할 수 있다. 자아와 초자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밑바탕의 저장 창고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야 한다.²¹⁵⁾ 본능의 정신 에너지를 방어기제 작동에 투입하게 된다면 인지, 사고활동, 기억재생, 판단 등의 자아의 유용한 다른 에너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아동의 자아가 발달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많은 에너지가 유효한 자아 기능에 동원되지 않고 자아를

213) 성현주, 앞의 논문, p.120.

위의 논문에서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양상의 작품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자기존중심을 발전시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형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나르시시즘을 위한 방어기제의 고찰이 드러나지 않아 왜 병적인 나르시시즘으로 환원되었는지, 방어기제의 작동과 관련하여 자아는 어떻게 에너지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214)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175.

215) 위의 책, p.72.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에 투입되는 경우이다. 아기별은 회피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결말에는 바다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결말은 심리적으로 볼 때 아기별이 결국 자아의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다시 무의식의 에너지로 악순환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정신 에너지에 관한 하나의 악순환 사이클을 보게 되는 경우이다. 아기별은 자아의 현실대처 방식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방어기제가 물러가지 않고 작동되면 될수록 자아는 발달이 저해된다. 이런 악순환을 떨쳐버리고 자아가 현실인식을 하며 무의식의 욕망과 초자아의 요구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자아발달의 과정이며 인간의 성숙이다. 방어기제와 관련한 자아의 신경계통의 변화는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아의 불안과 안정의 인지는 신경계가 전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아와 관련한 신경계가 자칫 신경증적이 되거나 불안해지면 병적인 증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아와 관련한 신경계가 안정된다면 자아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의 신경계는 결국 안정되지 못하고 자아를 부적절하게 하고 만다.

방어기제 작동이 혼란을 보이지만 성숙을 지향하는 작품으로 <아프리카 새깁디>의 동화를 들 수 있다. 이 동화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다. 동화의 환경에는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등이 있다. 옛이야기에는 길 떠나기 구도를 통한 물리적 환경을 낯설게 제시함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자아의 긴장감을 더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동화의 경우는 주로 심리적 환경을 제시하여 자아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어기제 작동의 전략을 유도하기도 한다. 아동들에게 외부환경은 자아 발달을 조력하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리적 환경의 경우 성장의 과정에 있는 아동기에는 환경적 위험이나 곤란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위험이나 곤란이 너무 적어서 아무 자극조차 받지 못하여 자아가 휴면 상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주인공

의 심리적 환경이 달라지는 설정은 현실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아프리카 새깁디>의 주인공인 나는 상준이가 이사를 오게 됨으로써 상준이에 대한 공격성이 드러나게 되어 미숙한 기제인 행동화의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나의 행동화는 장애를 가진 상준이에게 자극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초자아에서 경종의 메시지를 받은 내가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상준이를 향한 나의 행동화는 나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힘과 상황을 예견하는 힘을 지원하여 자아 발달을 조력하고 방어기제는 무의식의 심리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나는 서사의 결말에 상준이를 염려하게 되는 이타주의가 작동되며 타인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게 된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들이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자극적 환경은 자아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자아가 감당하기 힘든 자극은 병적인 자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무자극적이 되면 현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일에 뒤떨어질 수 있다. 자아가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을 적절히 작동된다면 어느 정도 성장한 성인은 굳이 자아의 방패인 방어기제 작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아가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방어기제에 작동되는 에너지를 보다 현명하게 현실에 대처하는 에너지로 작동될 수 있게 될 수 있다.

방어기제가 잘 작동되어 자아발달을 조력하는 작품으로 <오세암>을 들 수 있다. <오세암>에서 길손이의 방어기제 작동은 자아발달을 조력하게 되어 자아는 물론 사회에도 빛이 되고 있다. 나아가 주인공 길손이의 방어기제 작동을 통한 길손이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암>을 중심으로 공간구도를 활용한 자아 방어기제의 작동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세암>에서 길손이는 5세의 어린 주인공으로 자기애적이고 미숙한 방어기제가 작동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어린 길손이는 자유로운 정신 에너지를 추구하지만 현실적인 욕망을 느끼며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작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길손이는 그러한 방어기제에 고착되지 않는다. 성숙한 방어기제인 예견과 유머,

승화 등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면서 자아발달을 조력하여 자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승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 주거 환경과 상호 관계를 맺는 이유는 자신의 본능적 욕망과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다.²¹⁶⁾ <오세암>에서는 물리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승화의 감동을 더하고자 한다. <오세암>의 물리적인 외부환경은 수직축에 의한 상승적 공간구도이다. 공간은 주관적인 형태와 객관적인 형태 모두를 취한다. 주관적 공간은 정신적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사물들의 중심, 즉 경험의 내면을 의미하며 천정과 지하계를 나타내는 수직축에 의해 설정된다.²¹⁷⁾ <오세암>의 수직축에 의한 상승적 공간구도 설정은 길손이를 중심으로 한 등장인물들의 심리세계와 연계하여 [표 5]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5] 자아와 방어기제

자아유형	자아의 각성	→	자아의 탐색	→	자아의 실현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동화공간	포구	절	암자	뒷산 관음봉	하늘
심리세계	무 의 식 의 세계	무 의 식 과 의식의 갈 등 세계	자아의 현 실세계	의식과 이 상과의 갈 등 세계	초 자 아 의 이상세계
공간상징	정신 에너 지의 드나 듦의 공간	현실의 암자 와 무의식의 포구를 통합 하는 공간	현실 공간	현실과 초 자아의 이 상을 통합 하는 공간	초 자 아 의 이상실현
방어기제	상징화	예견, 퇴행	행동화, 동일시, 유머,억제	전치 동일시	승화

동화의 구성에 따른 공간구도는 ‘<포구>-<절>-<암자>-<뒷산 관음봉>-<하늘>’로 이어지는 상승적 공간구도이다. 이에 따른 동화의 심리

216)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41.

217) 이 푸 투안, 구동화,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9, pp.196-197.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 <포구>-무의식과 의식의 갈등 세계 <절>-자아의 현실 세계 <암자>-의식과 이상과의 갈등 세계 <뒷산 관음봉>-초자아의 이상 세계 <하늘>’로 이끌어 간다. 자아와 관련한 공간의 상징은 ‘정신 에너지의 드나듦의 공간 <포구>-현실의 암자와 무의식의 포구를 통합하는 공간 <절>-현실 공간 암자-현실과 초자아의 이상을 통합하는 공간 <뒷산 관음봉>-초자아의 이상실현 공간 <하늘>’을 상징한다. 자아의 유형은 자아의 각성을 지나고, 자아의 탐색을 지나서, 자아의 실현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른 방어기제는 ‘상징화의 공간 ; <포구>, 예전, 퇴행의 공간 ; <절>, 행동화, 동일시, 유머, 억제의 공간 ; <암자>, 전치, 동일시의 공간 ; <뒷산 관음봉>, 승화의 공간 ; <하늘>로 이어지고 있다.

동화 <오세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아와 관련한 창의성과 병증상²¹⁸⁾에 관한 무의식의 심리기제이다. 몽상가와 신경증 환자는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만족시키게 되어 있는 환상의 세계를 만든다.²¹⁹⁾ 창의적인 사람의 욕망은 몽상가나 신경증 환자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다른 이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형태, 심상에 달라붙는다. 창작물은 상호 주관성과 승화로 신경증의 생성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창작물의 생성과정은 욕망이 억압의 감시망을 벗어나 승화의 과정에 개입하여 억압과 타협하는 과정이다. 창의적인 과정은 자아에 의해 원초아의 충동을 억압하는 데에(초자아의 요구에 따라) 투자되던 에너지가 의식적인 적응과 정교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되고 반성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더 잘하도록 하고, 다른 유형의 창의적 활동에 의미를 준다.²²⁰⁾ 창의성과 병증상은 정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무

218) 막스 밀네르, 이규현 역, 앞의 책, p.270.

프로이트는 병증상과 창의성은 무의식의 공유된 형태라고 본다. 이들의 차이점은 병증상적 환자는 자신의 욕망만을 만족시키게 되어 있는 환상의 세계를 만들며, 창의적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다른 이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에 공유될 수 있는 생성물을 만든다는 점이라고 논한다.

219) 위의 책, p.270.

220) John Houtz, 김정희 역, 『창의성을 부르는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p.22.

Kris는 이 자기조정된 과정을 ‘자아가 봉사하는 퇴행’ 과정이라고 한다.

의식의 영역에 나란히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무의식의 충동적이며 본능적인 에너지와 관련하여 인간이 어떻게 방어기제가 작동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아기별과 같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오세암>의 길손이와 같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창의성과 병증상은 같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이 낮은 방어기제가 작동을 반복하게 되면 아기별처럼 병 증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방어기제가 작동되어 자아발달에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면 길손이처럼 창의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삶의 중요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창의성은 결정적이다.²²¹⁾ <오세암>의 길손이와 같이 성숙한 방어기제가 작동되어 자아는 물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동화 <오세암>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은 자아의 방어기제가 창의성의 문제와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아의 방어기제는 창의성과 함께 무의식의 영역에서 공유되어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21세기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의 장에서 특히 영재교육의 장에서도 그렇거니와 자본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국가경영에서도 창의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핵으로 떠오르는 창의성에 관하여 <오세암> 동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동화의 주인공인 길손이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작동된 방어기제는 창의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길손이는 창의성의 특성인 민감성, 유창성, 유통성, 정교성, 독창성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 보여준다. 첫째, 길손이의 민감성에 관한 내용이다. 길손이는 사물을 수용하는 감각이 예민하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길손이에게는 자신의 감각으로 사물을 인지하여 그것을 고스란히 전해주어야 할 장님누나가 있다.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느냐에 따라 누나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감각적 인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손이는 사물에 대한 인지력이 민감

221) 조지 E. 베일런트, 한성열 역, 앞의 책, p.151.

하다. 둘째, 길손이의 유창성에 관한 내용이다. 길손이는 민감하게 감지한 외부세계의 변화와 현상을 자아가 재배열하여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눈이 보이지 않은 누나에게 사물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길손이는 자신의 기억을 재생시켜 다양한 방법의 재배열을 위한 사고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의 반복은 활발한 두뇌활동으로 이어져 기억재생의 다양한 아이디어인 유창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오세암>에서 길손이는 스님보다도 앞서 예견하는 방어기제와 유머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는 유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길손이의 융통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야기에서 길손이는 간절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자신의 고독과 불안에 대한 갈등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길손이는 관세음보살상을 어머니로 동일시하여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넷째, 길손이의 정교성에 관한 내용이다. 길손이는 관세음보살을 엄마라고 부르기 위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야기를 나눈다. 이튿날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그리고는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지를 물어본다. 그러다가 마치 엄마에게 대하듯이 삶은 밥도 가져다주며 마음을 다하며 자아의 에너지를 목표에 유효하게 사용하는 과정이 정교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길손이의 독창성에 관한 내용이다. 길손이는 스님이 일러준 ‘마음을 다해 부르면 관세음보살님 즉 길손이의 내면적 어머니가 온다는 말’을 마음 속 깊이 새긴다. 아직은 어린 길손이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충동은 미숙한 기체인 엄마가 보고 싶다며 떼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길손이는 ‘마음을 다해 부름으로써’ 자아가 추구하는 목표인 관세음보살님, 즉 엄마를 만나게 된다. 길손이의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아직은 어린 미약한 자아를 가진 길손이가 자아를 다스려 승화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세암>은 방어기제의 작동이 자아발달을 지원하는 예를 보여주는 동화이다. 길손이는 방어기제의 작동에 고착되지 않고 자아 에너지를 긍정의 힘으로 끌어내어 승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길손이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부정의

에너지를 자아의 노력으로 연마하여 긍정의 에너지인 창의성으로 빛을 발휘하게 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저마다 다른 창의적 해결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면에 잠재된 아이디어를 지원받아서 자신의 문제해결로 전환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방어기제는 자아발달을 조력하지만 자칫 아기 별처럼 악순환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새깅디>의 주인공인 나처럼 자아 에너지를 조력할 수도 있으며, <오세암>의 길손이처럼 자아실현의 경지에 이끌 수도 있다. 한국 현대동화에서는 자아가 무의식의 환원으로 빠트릴 위험을 경고하고자 하기도 한다. 또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인 자아의 에너지를 지원받는 일에 조력하고자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방어기제는 미숙한 주인공이 방어기제의 비호를 뛰어넘어 자아발달을 위해 스스로 애쓰는 성숙한 자아가 되기를 지원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동화는 방어기제의 작동에 따라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 자아의 실현과 방어기제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3. 자아와 퍼스널리티

인간의 퍼스널리티는 자아를 중심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체험을 통하여 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된다. 유아기의 미완적인 자아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기도 하고 강렬한 욕구에 의해 전복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아가 조화를 구하는 전략들을 습득하거나 본능적 욕망에 휩쓸리게 되어 자아가 더욱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방어기제의 잘못된 작동으로 자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자아는 현실원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욕망이나 본능이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본능의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대체하는 기제를 터득하기도 한다. 한국 현대동화에는 인간을 중

심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퍼스넬리티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거나 전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퍼스넬리티에 관한 문제들이 한국 현대동화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의 퍼스넬리티는 의식적인 사고 과정이나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에 따라 성격 구조가 다르게 작동한다.²²²⁾ 인간의 퍼스넬리티 형성은 대체로 20세를 전후하여 이루어진다.²²³⁾ 대체로 이 시기까지의 인간은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며 내면적으로나 외부환경적인 좌절감을 극복하거나 적응하는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습성이나 삶의 기술, 지식 등을 탐구하고 체득하며 고통을 줄이고 불안을 덜어내는 전략들을 익히게 된다. 또한 욕망하는 바를 얻어 충족하는 기쁨과 욕망하는 바를 상실하거나, 얻지 못하거나, 빼앗기게 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갈등을 해소하는 법들을 두루 배우게 된다. 퍼스넬리티 형성과 관련하여 아동들의 놀이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들은 놀이 활동을 통하여 승화의 기제 작동을 습득하게 된다. 놀이 활동은 아동들로 하여금 시간과 정신 에너지와 정서를 상상적인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갈등을 표현할 수 있고 더 유효한 방법으로 세상을 재조직할 수 있다. 놀이와 환상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에게 유효하다. 환상 또한 갈등을 표현할 수 있고 억압된 현실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화의 환상이 아동들의 욕구 충족과 갈등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놀이 활동과 환상은 퍼스넬리티 형성을 조력하게 된다.

222) 켈빈 S. 홀, 백상창, 앞의 책, pp.41-62, 참조.

223) 하지현, 『전래동화 속의 비밀코드』, 살림, 2007, p.168.

아이는 전두엽의 시냅스의 수초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며 훈련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 전두엽은 생각의 유연성, 개념형성, 관련성, 상황과악 능력, 맥락의 이해, 선택적 집중의 유지, 충동의 억제 등의 기능을 말한다.

정재승, <영재교육 직무연수 종합 연찬 세미나>,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주관, 2007, 8.

인간의 뇌 발달과 관련하여 카이스트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는 ‘영재들의 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의 강연에서 전두엽 발달의 완성은 25세경에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러한 전두엽의 활성화 방안으로 독서와 문제해결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들고 있다.

인간의 퍼스넬리티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장과정에서의 개별적 자아의 방어기제의 작동과정이다. 둘째, 외부환경적 발달사를 들 수 있다. 셋째, 생물학적인 유전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퍼스넬리티의 구성 요인 중에서 개별적 자아의 방어기제 작동 과정과 외부환경적 발달사의 요인은 학습과 훈련과 개인의 의지력에 따라 변화 가능할 수 있다. 단, 생물학적인 유전적 영향에 관한 한 후천적인 논의에서 제외한다. 물론 정신 에너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학습을 한다고 퍼스넬리티를 구성하는 근본 에너지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에너지의 대치 전략을 익힘으로써 개인의 의지에 따라 긍정적인 삶을 위한 태도를 조력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조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안정적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들은 주변의 인물인 부모, 형, 선생, 영웅 등의 인물에 대한 모방이나 동일시를 통하여 퍼스넬리티의 안정을 얻게 되기도 한다. 아동들이 동화의 주인공과 동일시를 통하여 퍼스넬리티의 안정을 얻는 계기를 더욱 많이 마련하는 일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심리적 통합력을 훈련하는 과정의 동일시는 자아의 간접적 방어기제 작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동화를 통하여 통합하고 타협하는 습관을 배우는 일은 퍼스넬리티의 안정을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은 자아의 방어기제가 작동되거나 다른 인물에 대한 동일시를 통하여 퍼스넬리티의 안정을 얻게 된다.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와 퍼스넬리티에 관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자아와 퍼스널리티

동화 (주인공)	정신 에너지 흐름		자아	주요 방어기제	퍼스널리티
바위나리와 아기별 (아기별)	본능적 욕구 → 타협 실패 → 본능	회귀적 악순환	소모적 억지력	회피	좌절감
아프리카 새깁디 (나)	본능적 욕구 → 타협모색 → 안정 지향	발전 지향적	생 산 적 추 진 력 가능성	행동화→ 이타주의	만족 예감 성취 예감
오세암 (길손이)	본능적 욕구 → 타협모색 → 승화	발전적	생산적 추진력	퇴행 → 행동화 → 승화	만족감 성취감

위의 동화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본능에너지는 자아의 방어기제 작동에 따라 다르게 이동되며 이후 퍼스널리티의 안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방어기제 작동은 한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견인하여 성숙을 조력하게 된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주인공 아기별은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자아가 적절하게 외부환경과의 통합을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아기별은 지속되는 좌절감의 경험으로 결국 무의식의 파괴적인 힘에 지배되어 자아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이다. 아기별의 정신 에너지의 작동은 본능을 억압하는 일에 소모하게 되며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이 미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 퍼스널리티의 안정은 에너지를 투사, 반동형성, 억압, 고착, 퇴행 등의 기제를 투입함으로써 이루어내게 된다. 아기별은 자기가 대하게 되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규율과 바위나리에게 가고 싶은 자기의 욕망에 대한 현실을 효율적으로 다룰 줄을 모른다. 바위나리에 대한 이드의 욕망, 하늘나라 임금님의 규율에 대한 초자아의 금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아기별은 현실을 회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아가 현실을 왜곡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적절하지 못한 해결은 자아로 유입되었던 에너지가 이드로 역류되어 유치한 원망충족의 상태로 환원되어버릴 위험에 처해진다. 방어기제의 작동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아기별의 결과처럼 퍼스널리티의 안

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방어기제는 자아의 2차적 과정인 현실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기 위한 사고와 인식력에 쓰일 에너지를 빼내어 현실적 사고 대신 욕망충족에 동원시키게 한다. 동화에서 아기별은 현실을 회피하고 바위나리를 만나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임금님에게 쫓겨나게 된다. 이와 같이 아기별은 퍼스낼리티의 안정을 구하지 못하고 불안, 초조, 긴장의 무의식에서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아프리카 새깁디>의 주인공 나는 본능적 욕구에 의해 약자에 대한 공격성이 드러나지만 상준이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동화이다. 주인공인 나의 노력을 통하여 더 크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만족과 성취를 예감할 수 있게 된다. 동화의 주인공인 나는 이드의 맹목적인 공격욕 때문에 장애를 가진 상준이를 공격하곤 한다. 그런데 상준이는 자신이 공격을 당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상준이를 보며 상준이를 도와주라고 했던 상준이 어머니의 부탁이 초자아의 양심의 소리로 느껴진다. 자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동의 경우 정신 에너지를 이드로부터 이끌어내어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인 나는 상준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성적 판단, 분별력 등의 심리 작용을 위해 자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릴 수 있을 때 심리작용은 더욱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나의 정신 에너지는 상준이로 인하여 기억재생이나 이성적 판단, 분별력 등을 자기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자아의 심리작용으로 자아의 발달을 조력하게 된다. 그래서 상준이에게 사랑이라는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상준이에 대한 자아의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림으로써 퍼스낼리티의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의 에너지는 이타주의를 추구하며 카텍시스(공격하는 힘)에 대한 항카텍시스(저항하는 힘)와 퍼스낼리티의 통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나는 퍼스낼리티의 안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갈등하게 되지만 성숙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세암>의 주인공 길손이는 본능적 욕구에 의해 퇴행과 행동화의 방

어기제가 작동되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과의 타협을 모색하게 되고 성공적 타협모색의 결과 퍼스넬리티의 안정을 얻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길손이는 자아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승화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길손이는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되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안정된 퍼스넬리티를 얻었다고 해서 정신 에너지에 더 이상의 좌절감이나 불안 또는 긴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은 의식이 깨어 있는 한 결코 긴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단지 심리적으로 볼 때 안정된 퍼스넬리티란 긴장이 고조될 때 해결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된 퍼스넬리티의 소유자는 길손이와 같이 성숙 과정을 통해 충동적인 힘과 저항하는 힘 사이에 균형 또는 평형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균형 또는 평형의 성질은 욕구를 충족하는 이드의 에너지에 지배되거나 초자아의 금기에 지배되거나 자아의 현실원칙에 따르거나 간에 인격 발달 단계에서 받았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퍼스넬리티는 처벌이나 금지, 실패나 좌절, 강제나 결핍 등이 강화되면 항카텍시스가 활성화된다. 이와 반대로 칭찬이나 보상, 성공이나 승리, 만족이나 성취감 등이 강화되면 카텍시스의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대체로 억제하는 힘의 강한 카텍시스가 존재하게 되면 퍼스넬리티의 긴장 수준에 오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충동하는 힘의 항카텍시스가 정신 에너지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이 때 자아의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의 교란을 억제하여 균형을 모색할 수 있으면 안정된 퍼스넬리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안정된 퍼스넬리티의 소유자는 어떤 심리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리적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 항상심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심리적 특성은 심리의 세 영역인 이드, 자아, 초자아의 선천적 및 후천적 특징에 의해 정해지고, 이들 세 영역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적인 심리영역의 발달사 등에 의해 결정된다.

4. 자아와 정신 에너지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의 각성, 자아의 탐색, 자아의 실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동화 속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동화를 읽는 아동들은 그러한 동화를 통하여 자아의 통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리거나 미숙한 독자일수록 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에 대하여 종합적 관점에서의 조망이 미숙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동화를 읽고 그 동화의 주인공에게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대한 정보의 해석이 그릇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자아실현의 종합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독자는 자아에 대한 조망이 성숙할 수 있다.

한국 현대동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정신 에너지에 의한 자아형성을 자아 발달의 세 유형에 따라 [표 7]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7] 자아와 정신 에너지

구분	정신 에너지			자아 에너지 작동	자아 안정성
	무의식	자아	초자아		
자아의 각성		심리 불안		무의식 가운데 자아 각성	불안
자아의 탐색		심리 안정 가능 영역	가능 영역	무의식과 자아 충돌, 자아의 힘겨운 승리	불안 → 안정
자아의 실현		심리 안정 가능 영역		자아 통합력	안정

자아의 각성 유형의 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은 자아가 정신 에너지의 작동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자아의 에너지 사용이 부적절하여 다시 무의식의 세계로 악순환하게 된다. 이는 자아의 양상에서 볼 때 정신 에너지의 부적절한 작동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 아기별은 수동 공격적 행동, 행동화, 회피 등의 자기애적 방어기제나 미숙한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데 결말 부분에 주인공은 바다에 빠져버린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승화의 의미가 아니다. 하늘나라의 임금님에게 쫓겨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말 한마디 못한 아기별은 그냥 바다에 빠지고 만 것이다. 물론 에펠로그 부분에 지금도 바다 밑에 아기별이 빛나고 있다고 서술하며 환상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안정된 자아 형성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오히려 너무 슬픈 이야기의 결말에 대한 위안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야기의 결말과 더불어 이 동화의 주제를 살펴보자.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부딪치면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 하늘의 법을 어기면 임금님에게 벌을 받게 된다는 규범정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우정이라고 단언하기에는 결말이 비극적이다. 그렇다면 이 동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정신 에너지의 배분과 관련한 방어기제의 작동에서 찾을 수 있다. 아기별이 방어기제에 정신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아의 판단력, 분별력, 이성적 사고력, 억제력 등에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다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 아기별이 하늘나라의 임금님과 대화를 나누어 해결책을 찾아보았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진정으로 바위나리를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바위나리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일은 바람직한가. 이러한 의문들을 중심으로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주제를 자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기별의 방어기제가 부적절하게 작동되었기 때문에 자아가 더욱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자아형성을 위하여 <바위나리와 아기별>과 같은 자아의 각성 동화 유형은 주인공의 심리적 불안이 독자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바위나리 아기별>은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한 동화의 예다. 아동들이 현실에서 부적절한 방어기제에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자아의 심리 작용을 발달시키기 위한 일에 정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줄 아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때 심리 안정을 위하여 아동들은 스스로 그 방법에 대하여 사고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쓰는 일이 중요하다. 자아의 각성 동화 유형

은 자아가 이드와의 충동을 억제하는 과정, 초자아의 이상을 조합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 자아형성을 위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조망이 이루어질 때 자아의 각성 동화 유형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다. 인간은 더 많이 배울수록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 배움을 통한 깨달음은 사고의 단순한 조직 체계가 다양한 유기적 호환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동화를 통하여 안정된 자아형성을 위한 전략을 배우는 일은 세상을 자기 목표에 알맞게 조정하는 전략을 지원받는 일이 된다. 자아의 정신 에너지를 다스리는 일, 다른 사람과의 상충된 욕망을 조율하는 일, 불가능한 듯한 외부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하는 일은 정신 에너지의 작동을 유효하게 다스릴 줄 아는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아동들이 동화를 통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이러한 많은 전략들을 습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아를 중심으로 성숙의 의미를 조명하면 불안이나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어 안정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안정된 자아형성을 위하여 동화의 각 유형이 갖는 퍼스낼리티의 안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의 각성 유형의 동화가 갖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불충분은 옛이야기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옛이야기의 가치를 주장하는 학자들²²⁴⁾이 밝히는 옛이야기의 장점 중의 하나는 자아통합과정인 한 개인의 퍼스낼리티 형성의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성공감 즉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옛이야기의 자아통합에 관한 대표적인 주인공은 신데렐라, 백설공주, 심청²²⁵⁾ 등을 들 수 있다. 옛이야기의 덕목은 대체로 권선징악, 해피엔딩의 구도로 나타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도덕

224)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주옥 역, 『옛이야기의 매력1』, 시공주니어, 2003.

Marie-Louise von Franz, *Archetypal Patterns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 Toronto, 1997.

하지현, 앞의 책, 2007.

225) 황경숙, 「심청전에 나타난 토포스와 서사적 의미」, 『동북아 문화연구』 12,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7, pp.73-92.

이나 윤리의 덕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에 대한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동화는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자가 치유하며, 세상을 향해 긍정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칫 현대동화가 갖는 다양성으로 인해 동화의 독자인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다. 다양한 동화 중에는 동화의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루지 못하여 오히려 독자들에게 정서적인 불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자아의 탐색 유형의 동화에 관한 논의다. 자아의 탐색 유형의 동화는 자아의 각성 유형의 동화보다는 심리적으로 볼 때 좀 더 성숙된 상태이다. 하지만 퍼스낼리티의 안정에 이른 완결성을 지닌 구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아의 탐색 유형의 동화도 자아의 각성 유형의 동화와 같이 가상적 완결구도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 자아의 탐색 유형의 동화는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의 정신의 세 영역에서 미숙한 아동들이 흔히 겪는 정신적인 방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체적인 양상이다.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등 원하는 것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습득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때를 기다리고 참으며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탐색 유형의 자아는 자아실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일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아의 실현 유형의 동화는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퍼스낼리티의 안정에 이른 경지이다. 자아가 이르고자 하는 안정된 경지인 이 유형의 동화는 자아의 각성 유형에서 무의식의 충동적인 힘을 인지하고, 자아의 탐색 유형에서 무의식을 다루는 자아의 기능을 익혀, 자아의 실현에서 기여이 자아의 통합을 이루어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아의 정신 에너지 사용이 잘 조율된 동화는 작품 자체로서 아동들에게 안정된 자아를 형성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VI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로 동화와 자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했다. 동화와 자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명할 수 있었다. 동화의 자아는 성장의 일정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화의 창작기법인 팬타지의 세계는 아동들이 떠나고자 갈망하는 심리의 세계라는 사실이다. 현실에서 규제되고 억압받는 세계에서 벗어난 재미있는 놀이와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즐거움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욕망의 세계다. 또한 동화에는 반드시 사건이 발생하며, 사건은 주인공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동화의 사건에 대한 대응의 결과는 주인공의 이후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인간은 자아와 관련한 정신 에너지의 영역에서 볼 때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욕망을 가진 동화의 주인공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자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주인공이 자아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 자아의 세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아의 세 양상은 주인공의 심리에서 작동되는 방어기제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에 관하여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는 대체로 세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의식의 충동적인 힘에서 자아의 희미한 인식과 함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 자아의 현실인식 아래 아직은 무의식의 충동적인 힘과 외부 질서세계의 엄정한 요구에 의해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 충동적인 무의식의 욕망과 외부 질서세계의 엄정한 요구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이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으로 현대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짚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서는 아기별

이 아직은 무의식의 에너지에 기울어져 있는 나약한 자아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무의식의 영역인 꿈을 중심으로 동화를 이끌어 간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나는 자아가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에너지였음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야기는 허망한 모습의 자아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충동과 억제가 요동치는 자아의 양상에 관한 현대동화로써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를 고찰하였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주인공인 나는 장애인 상준이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주인공인 나는 상준이를 통하여 자아와의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는 일, 인간의 존엄을 깨닫는 일, 그래서 본능도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장애를 가진 상준이도 세상의 일원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새깁디>는 무의식의 공격욕과 초자아의 도덕적 규율 사이에서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며 상준이에 대한 이해로의 긍정적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고물 자전거>의 주인공 영신이는 자기애에 대한 욕구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변환되는 무의식의 정신 에너지에 지배되는 인물이다. 이는 영신이가 아직은 무의식의 공격적인 정신 에너지를 자아가 효율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단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충동적인 에너지의 사용은 대체로 안정을 찾고자 했던 자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영신이는 고물 자전거를 팔아버림으로써 일시적인 자아의 안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관심을 받는 일은 더욱 힘들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현대동화 <고물 자전거>는 주인공 영신이가 아버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드러나는 행동이 충동과 억제로 요동치는 자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조화와 적응이 성공적인 자아의 양상에 관한 현대동화로 <오세암>, <강아지똥>을 고찰하였다. <오세암>은 5세인 길손이가 현실에 부딪치며 문제에 대처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어린 나이의 길손이는 성장과정의 불안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스스로 자아를 현실

에 맞출 줄 아는 인물로서 조화와 적응이 자아의 궁극의 목표에 이르게 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강아지 똥>에서 강아지 똥은 더럽고 지저분하여 세상에서 소외되는 존재이지만 내면의 불안과 갈등을 조절하여 외부 세계의 화합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여주었다. 강아지 똥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며 민들레꽃의 거름이 되어 세상을 꽃피우게 되었다.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방어기제에 관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바위나리와 아기별>,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자아의 각성과 방어기제의 작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아기별은 수동공격적 행동, 행동화, 반동형성, 회피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아직은 자아의 에너지가 미약한 자아의 각성 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꿈을 찍는 사진관>의 주인공인 나는 무의식의 꿈을 통하여 전치, 압축, 상징화의 기제가 작동되며 추억에 대한 회상에 젖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의식 세계인 자아는 깨어나 보니 꿈이라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자아의 각성 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프리카 새깁디>, <고물 자전거>에서는 충동과 억제가 요동치는 자아의 탐색과 방어기제의 작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프리카 새깁디>에서 나는 행동화, 억압, 투사, 신체화, 성화, 부정, 예견, 이타주의의 방어기제가 작동됨으로써 본능의 공격성이 행동화로 드러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는 상준이로 인해 분노를 느끼지만 그러한 파괴적인 에너지를 상준이를 이해하는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노력한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나의 공격욕은 상준이를 염려하는 이타주의로 변환되는 자아의 탐색 유형을 보여준다. <고물 자전거>에서 영신이는 아버지에게 투사, 억압, 부정, 신체화, 행동화, 합리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되며 아버지에게 공격욕이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에서 아버지에게 대한 자신의 충동적 에너지 작동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는 자아의 탐색 유형을 드러낸다. <오세암>의 길손이는 상징화, 예견, 퇴행, 행동화, 동일시, 유머, 억제, 전치, 승화의 방어기제가 작동된다. 그 과정에서 길손이의 자아는 정신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

한다. 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릴 줄 아는 길손이는 자아의 궁극의 목표인 승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오세암>의 길손이는 목표를 승화시킨 자아의 실현 유형으로 드러난다. <강아지 똥>의 강아지 똥은 부정으로 자아의 존재가치에 대해 갈등을 하게 된다. 강아지 똥의 존재가치에 대한 갈등은 다른 인물들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존재의 부정과 존재의 긍정의 양극단을 오가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강아지 똥은 목표를 추구하며 자아를 억제한다. 자아의 에너지를 유효하게 다스린 강아지 똥은 궁극의 목표인 민들레꽃을 피워 승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강아지 똥>의 강아지 똥은 목표를 승화시킨 자아의 실현 유형으로 드러난다.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아의 심리적 특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 첫째, 동화의 자아가 사건에 대처하는 문제해결에 관하여 드러나고 있었다. 자아의 문제해결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 이후에 주인공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었다. 둘째, 주인공의 내면에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있었다. 방어기제의 작동에 따라 자아는 신경증적인 증상으로, 불안과 긴장으로, 안정으로, 창의성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셋째, 동화의 자아와 방어기제는 인간의 성숙과 퍼스낼리티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미숙한 방어기제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면 되면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될 우려가 있으며, 성숙한 방어기제가 작동되면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인공의 심리에 작동되는 방어기제는 부정적인 자아 또는 긍정적인 자아를 위한 퍼스낼리티의 형성을 조력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 현대동화는 자아의 정신 에너지에 따라 자아의 각성, 자아의 탐색, 자아의 실현 유형의 동화로 나눌 수 있었다. 자아의 각성 유형의 동화는 주인공의 자아가 불안한 채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주인공과 동일시하는 독자인 아동의 심리도 불안해질 수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자아의 탐색 유형의 동화는 주인공의 자아가 불안한 과정을 드러내다가 안정을 지향하며 이야기가 끝나고 있었다. 따라서 독자인

아동의 심리도 주인공과 함께 불안에 처해 있다가 안정을 지향하게 될 수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자아의 실현 유형의 동화는 주인공의 자아가 각성 유형과 탐색 유형의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하는 바의 유리한 고지에 이른 동화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동화를 읽는 아동의 심리도 주인공과 함께 안정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한국 현대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하여 조명함으로써 현대동화에 대한 이해에 조력하고자 했다.



참고 문헌

1. 기초 자료

-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꿈을 찍는 사진관』, 홍익사, 1954.
- 교육인적자원부, <바위나리와 아기별>, 『국어 읽기 3-2』, 교학사, 2005.
- _____, <고물 자전거>, 『국어 읽기 4-2』, 대한교과서, 2005.
- 권영미 엮, <어부와 마신>, 『아라비안나이트』, 삼성출판사, 2001.
- 권정생, <강아지 똥>, 『떡구렁이 기차』, 우리교육, 2002.
- 마해송, <바위나리와 아기별>, 『해송동화집』, 개벽사, 1934.
- 방정환, <만년 셔츠>, 『만년 셔츠』, 지경사, 2001.
- 서하원, <아프리카 새깁디>, 『아프리카 새깁디』, 대산, 1999.
- 유호진, <고물 자전거>, 『고물 자전거』, 채우리, 2002.
- 이주홍, <못나도 울 엄마>, 『못나도 울 엄마』, 창비, 2007.
- 정채봉, <오세암>, 『오세암』, 창작과비평사, 1984.
- 권용철, <봄 꿈>, 『하얀 물새의 꿈』, 배동바지, 2003.
- 배익천, <이상한 꿈>, 『꽃씨를 먹은 꽃게』, 새남, 1992.
- 김요섭, <꽃잎을 먹는 기관차>, 『꽃잎을 먹는 기관차』, 신구미디어, 1995.

2. 단행본

- 고미영,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청목출판사, 2004.
- 곽기상, 『교육의 심리적 기초』, 형설출판사, 2004.
-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예출판사, 2000.
- _____, 『프로이트의 성과 권력』, 문예출판사, 1998.
- 김광길 외,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 김서정, 『동화가 재미있는 이유』, 문학과지성사, 1993.
- _____, 『멋진 판타지』, 굴렁쇠, 2002.
- 김열규 외, 『정신분석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2.
- _____, 『어머니, 동화는 이렇게 읽어주세요』, 춘추사, 1993.
- _____,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동화교실』, 소금창고, 2005.

- 김자연, 『한국 동화문학 연구』, 서문당, 2000.
- 김중희 외, 『한국 동화문학의 흐름과 미학-배익천의 문학과 인간』, 청동
거울, 2007.
- 박상재, 『한국 동화문학의 탐색과 조명』, 집문당, 2002.
- 박종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이야기 심리치료』, 학지사, 2005.
-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 서정철, 『인문학과 소설 텍스트의 해석』, 민음사, 2002.
- 석용원, 『아동문학원론』, 동아학연사, 1982.
-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2002.
- 송인섭 외, 『교육심리학』, 양서원, 2000.
-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 유창근, 『현대아동문학의 이해』, 동문사, 1997.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6.
- 이부영, 『韓國民譚의 深層分析』, 집문당, 2000.
- , 『그림자』, 한길사, 2006.
-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5.
-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5.
- 이원수, 『아동 문학 입문』, 소년한길, 1984.
- , 『이원수 아동문학전집』 28권, 웅진닷컴, 1984.
- 이장호 외, 『행동장애와 심리치료』, 교육과학사, 2001.
-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소년한길, 2002.
- , 『판타지 동화 세계』, 사계절, 2001.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 이재철, 『韓國兒童文學研究』, 개문사, 1995.
- ,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이지호,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 집문당, 2006.
- 조두영, 『프로이트와 한국 문학』, 일조각, 2004.
- 최지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3. 논문

- 구본권, 「방어기제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교 논문집 Vol.25 No1. 1994.
- 김선일, 「정채봉 동화의 구원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열규, 「한국인의 수(數) 개념의 신비」, 『기호학 연구』 제14집, 한국기호학회, 2003.
- 김용희, 「韓國創作童話의 형성과정과 構成原理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정옥, 「자아방어와 심리적 갈등」, 숙명여자대학교 창학100주년기념 학생생활상담소 학술 발표회, 2006.
- 노제운, 「한국 전래동화의 심층의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박경화,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박상재, 「韓國 創作童話에 나타난 幻想性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성현주, 「韓國現代童話의 나르시시즘 樣相 研究」,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심상교, 「그림(Grimm) 동화에 나타난 악인형 인물 연구」, 『어문학교육』 제38집, 2009.
- 양정임, 「김정한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인물들의 내면 갈등으로 인한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 저널 Vol 23, 2004.
- 오길주,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근후 외, 「전래의 속담에 나타난 과거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 『신경정신의학』 제29권 제3호, 1990.
- 이성자, 「한국 현대 판타지동화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영미, 「韓國童話의 變身 모티브에 內在된 原型性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주영, 「문학반응 활성화를 위한 역할 정하여 낭독하기 방법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수선, 「한국 전래동화와 독일 전래동화의 정신분석학적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경희, 「동화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하지현,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황경숙, 「심청전에 나타난 토포스와 서사적 의미」, 『동북아 문화연구』 12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7.

4. 외국 논저 및 편저

-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1997.
- 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2004.
- 르네 웰렉·오스틴 위렌, 김병길 역,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2000.
- 릴리언 H. 스미드, 김요섭 역, 『兒童文學論』, 교학연구사, 2000.
- 마리아 니콜라예바, 김서정 역, 『용의 아이들』, 문학과 지성사, 2004.
- 마이 루이제 폰 프란츠, 홍성화 역, 『동화 심리학』, 교육과학사, 1986.
- 막스 밀네르, 이규현 역, 『프로이트와 문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9.
-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주옥 역, 『옛이야기의 매력1』, 시공주니어, 2003.
- 블라디미르 프롭, 황인덕 역, 『민담형태론』, 예림기획, 1998.
- 샌디 호치키스, 이세진 역,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교양인, 2006.
- 순자, 김학주 역, 『순자』, 을유문화사, 2008.
- 에드 섹스턴, 이용철 역, 『도킨스와 이기적인 유전자』, 이제이북스, 2002.
- 엘리자베드 라이트, 권택영 역, 『정신분석비평』, 문예출판사, 1997.

- 이 푸 투안, 구동회,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9.
-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2000.
- 조셉 골드, 이종인 역, 『Bibliotherapy』, 북키앙, 2003.
- 조지 E. 베일런트, 한성열 역, 『성공적 삶의 심리학』, 나남출판, 2005.
- John Houtz, 김정희 역, 『창의성을 부르는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 주앙 다비드 나지오, 표원경 역, 『정신분석학의 7가지 개념』, 백의출판사, 2002.
- 칼G. 융 외,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2.
- 켈빈 S. 홀,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 페리 노들먼, 김서정 역,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시공주니어, 2001.
- 폴 아자르, 햇살과나무꾼 역, 『책, 어린이, 어른』, 시공주니어, 1999.
- 프로이트, 김미리혜 역,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1998.
- _____, 민희식 역, 『꿈의 해석』, 정민미디어, 2006.
- _____, 박찬부 역,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 _____, 윤희기 역,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8.
- _____, 이한우 역,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열린책들, 1997.
- _____, 황보석 역,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1997.
- 필립 윌라이트, 김태옥 역, 『은유와 실재』, 한국문화사, 2000.
- 한스 마이어호프, 이종철 역, 『문학 속의 시간』, 문예출판사, 2003.
- 호메로스, 유영 역, 『오디세이아』, 범우사, 1997.
- Bruno Bettelheim, *The Uses of Enchantment :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New York, alfred A. Knopf, 1977.
- Marie - Louise Von Franz, *Animus and Anima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1997.
- _____, *Archetypal Patterns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2002.
- _____, *An Introdu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pring Publications, New York, N.Y.10016, 1970.

5. 기타.

남전스님, 「중생들이 갖는 모든 번뇌 상징적 표현」, 『불교신문』 2280호,
2006.11.22.

방정환, 「동화 작법 -동화 짓는 이에게-」, 『동아일보』, 1925. 1. 1.

삼성, 「함께하는 사회」, 2006, 5~6월호.

우종옥, 『영재교육담당교사직무연수』,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2003.



Research on Aspects of Ego and Defence Mechanism in Korean Modern
Fairy Tales

Hwang, Gyeong su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at clarifying self-aspect and defence mechanism shown in Korea's modern fairy tales.

This endeavor is to shed light on meaning of psychological trait of ego, based on heroes in Korean modern fairy tales, through examination of ego aspect and defence mechanism.

As a result of research history on this study, I came to know that research on the protagonist's ego in modern fairy tales of Korea has not been prosecuted sufficiently. As its cause I can indicate that ego has not revealed itself well enough in Korean modern fairy tales. That ego in fairy tales is not displayed well is deemed to point out that use of spiritual energy has not been well utilized, which makes Korea's modern plays become little noted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study. However, we need to do study on ego to understand diverse aspects of life. While comprehending the use of spiritual energy for many children reading fairy tales, along with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of theme of Korean modern fairy tales.

It is necessary to review fairy tales and ego for deeper research on modern fairy tales in Korea. Ego in fairy tales is located on some point of ego growth and in it we can find psychological world of fantasy, revealing the way a case is coped with. You can find inherent desire for ego in fairy tales. And ego in fairy tales and spiritual energy in it displays the degree of

ego maturity. Protagonist in fairy tale is, in general, an immature figure, and such a hero in the fairy tale operates defense mechanism in him for ego protection. We can see that In Korea's modern fairy tales, aspect of ego becomes different according to degree of hero's maturity. The aspect of ego in Korea's modern fairy tale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ego appearing slowly, ego with impetus and inhibition conflicting with each other and ego in successful aspect with harmony and adaptation. "Stone gentleman" in "Stone Gentleman and Baby Star" is weak and feeble, a narcissistic figure, trying to avoid reality. In "Photograph study of Dream" I as hero try to satisfy desire, centered on dream which is realm of unconsciousness. Such kind of desire satisfaction shows ego aspect, which is unable to escape from spiritual energy of unconsciousness. The ego aspect where impetus and inhibition seriously conflict with each other is found in modern fairy tales like in "A black boy in Africa" and "Second hand bike". In "African Black Boy" I show hostile attitude of attack against the handicapped boy, Youngjun. In the process I feel awakening call of conscience called super-ego, showing a will to improve use of spiritual energy.

I reveal the aspect of ego, which aspire for maturity through Sang-Jun. In "Second hand Bike" the heroine, Young-Shin, displays confrontational behavior against her father due to affection for herself. However, in the end of the story, she shows the ego aspect, which needs the improvement in the use of impetus energy for her father.

We can see "Oseam rock" and "Puppy Poop" in modern fairy tales, which are related to successful ego equipped with harmony and adjustment. "Oseam", though the little kid at the age of five shows anxiety of growth process through behavior, reaches an ultimate purpose through effective use of ego. In the "Puppy Poop" the poop feels isolated from the world, causing it to have an anxiety of existence. However, by making use of ego energy effectively, which adjusts inner conflict and anxiety successfully with each other, it, the poop, blooms into beautiful dandelion, showing successful aspect of ego. The aspect of ego in the hero shown in modern Korean fairy tales stems from operation of defence mechanism. In the works such as "Rock Lily and Baby Star" and "Photograph studio of Dream", we can detect self-awakening and defence mechanism. In "Rock Lily and Baby Star" the

baby star is moved by immature self-awakening and neurotic self-protection mechanism. Examining self-defence mechanism operating in the baby's mentality, we can recognize the kid star is a type of fairy tale in which psychological energy is still feeble. The protagonist, I in "Photograph Studio of Dream" am immersed in past recollections by dint of unconsciousness in the form of mechanisms of pre-existence, compression and symbolization, but feel empty after waking, which is a new sort of self-awakening. In "African Black Boy" and "Second hand Bike" we can point out self-exploration and functioning of self-defence mechanism. In "African Black Boy" the hero reveals immature defence mechanism and neurotic defence mechanism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accidents, along with bellicosity of instinct. However, in the end it turns out to be a style of self-exploration which longs for mature defence mechanism. In "Second hand Bike" the heroine Youngshin in immature defence mechanism and neurotic defence mechanism shows hostile nature towards her father. However, finally realizing how much her father loves her, she shed tears, which indicates a type of self-exploration suggesting maturity. In "Oseam Rock" and "Puppy Poop" we can detect self-realization and defence mechanism. In "Oseam Rock" is a kind of fairy tale in which the hero, Kilson, undergoes diverse and mature defence mechanism, which enables him to realize ego in consummate form.

In "Puppy Poop", the poop bares conflicting process of existential value in the form of self-affection like self-defence. Afterwards, immature self-defence mechanism and neurotic defence mechanism operates, bringing about self-inhibition process. But at the end of the tale, mature defence mechanism materializes self-realization type in the form of blooming dandelion. In conclusion I am able to pursue and detect psychological trait of ego through research of ego aspect and defence mechanism. Firstly, I examine problem solution of ego. Secondly, I see that the hero's ego has his or her defence mechanism revealed in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Thirdly, ego aspect and defence mechanism have influence on personality and maturity of humanity. Fourthly, according to psychological energy use of ego Korean modern fairy tales are divided into such styles like awakening style exploratory style and realization style.

Shedding light on psychological trait of ego, through research of ego

aspect and defence mechanism shown in Korean modern fairy tales, I inten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fairy tales.

Key word: modern fairy tales, ego, instinct, defence mechanism, personality

